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IT직종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
취업
완전
정복

IT직종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IT 직종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IT직종 취업 한눈에 보기

01 구직초기단계

IT 직종 환경 개요

1. IT 산업의 전망 p.14
2. 프로그래머, 개발자, 엔지니어 구분 p.18
3. 해외취업 현황(p.22) 및 전망(p.26)
4. 유망 IT 직종에 대한 개요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소개(p.30)
   -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소개(p.36)
   - 정보시스템운영자 소개(p.42)
   - 웹디자이너 소개(p.48)

유망 IT 직종별 특성 파악

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 취업전망(p.34), 임금수준(p.34)
2.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 취업전망(p.40), 임금수준(p.41)
3. 정보시스템운영자
   - 취업전망(p.45), 임금수준(p.46)
4. 웹디자이너
   - 취업전망(p.51), 임금수준(p.52)

02 본격적인 구직준비단계

IT직종 취업정보 탐색

1. 국가별 IT 관련 구인공고 탐색
   - 미국(p.69), 일본(p.93), 독일(p.111)
2. 국내 공공기관 활용 해외취업 정보찾기 p.118

취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1. 공공기관,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취업알선업체를 이용하여 구직준비 p.122
2. 스스로 취업하기 p.132

직종별 취업 전략 및 채용트랜드 파악

1. 직종별 취업 전략
   -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 전략(p.31)
   -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취업 전략(p.37)
   - 정보시스템운영자 취업 전략(p.43)
   - 웹디자이너 취업 전략(p.49)
2. 국가별 IT 채용트랜드 파악하기
   - 미국(p.68), 일본(p.92), 독일(p.110)

03 구직 및 면접 진행단계

채용공고 확인

월드잡 홈페이지, 개별 기업 홈페이지, 현지 구인구직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등 활용

입사 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
- IT 부문 이력서 작성 공통 TIP(p.70)
- 일본 입사지원(p.94)
- 독일 서류전형(p.112)

면접 진행

지원한 회사 및 산업 동향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리더십·회사비전·산업 특성 등과 관련된 예상 질문을 철저히 준비
- IT 부문 면접전형 공통 TIP(p.75)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자 발급

채용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비자 발급.
- 미국 취업비자(p.64)
- 일본 취업비자(p.88)
- 독일 취업비자(p.104)

IT직종 취업 SUMMARY

IT 해외취업은 여전히 전망이 밝다

2020년에 COVID-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위축을 겪었고 이로 인해 구인수요가 감소하면서 청년 구직자들도 해외취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IT산업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서 IT 부문에 대한 투자를 축소함에 따라 지난 10년 간 부침없이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한 IT산업도 2020년은 힘든 한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IT 부문은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많은 분야이다.

첫 번째 기회요인으로, IT산업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의 회복 및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이미 IT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여서 미래 성장을 위해 IT는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게다가 COVID-19를 겪으면서 디지털화, 초자동화, 원격작업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IT 지출이 창출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는 IT 부문의 빠른 회복과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IT 부문의 고용 확대 요인으로는 산업 성장에 따른 생산의 증가, R&D 투자 및 창업의 증가, 기술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노동수요와 고용의 확대가 구직자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타 직종에 비해 IT 직종은 해외취업에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기회요인은 IT 부문의 경우 실력만 있다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다. 물론 IT 부문 해외취업 시 직종에 따라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거나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의 업무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업능력과 더불어 원활한 수준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지만, 역량을 갖춘 구직자가 본인의 스킬과 강점을 어필할 수 있으면 해외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취업에 비해 해외취업 시 근로시간이나 임금 수준 등 근무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은 점은 덤이다.

세 번째 기회요인은 한국인 구직자가 해외취업 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의 하나가 취업비자(워크퍼밋) 문제인데, IT 부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족직업군에 속함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취업비자 발급이 가장 용이한 분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구직자가 현실에 떠밀려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삶과 커리어패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서에서는 과거 해외취업 통계를 바탕으로 IT 부문에 속하는 주요 직종과 해외취업이 유망한 국가를 살펴보고, 해외취업 시 구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취업 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담고자 하였다. 본 서에 담은 내용은 전체 IT 부문을 고려할 때 일부를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다양한 IT 분야로 진출하는데 단초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많은 구직자들이 IT 부문에서 해외취업에 도전해 보기를 희망한다.

IT직종 취업을 위한 자기분석 체크리스트

자기분석 체크리스트

	항목	YES	NO
1.	해외취업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였는가?		
2.	해외취업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분한가?		
3.	IT 부문의 직종별 특징 및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4.	해외취업을 위한 다양한 취업경로/채널(월드잡플러스, 현지 채용포털, SNS 등)에 대해 알고 있는가?		
5.	본인의 전공이 지원하는 직종과 관련이 있는가?		
6.	자신의 보유 스킬이 채용기업의 직무기술서 상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는가?		
7.	IT 부문에서 협업이 가능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었는가?		
8.	자격증보다는 보유 스킬과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문화를 알고 있는가?		
9.	소셜네트워크 상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10.	자신의 전문성과 경력개발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1.	해외 체류를 위한 비자의 종류와 발급절차, 준비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있는가?		
12.	채용 및 취업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건강상태 등 결격사유는 없는가?		
13.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가?		
14.	현지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가?		
15.	현지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화, 언어, 생활 등의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CONTENTS

PART 01 IT 직종 개요

01 IT란 ? 012
02 IT 시장 전망 014
03 IT 직종의 연봉 및 근무조건 018
04 해외취업 현황 022
05 해외취업 전망 026

PART 02 해외취업 유망 IT 직종

0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030
0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036
03 정보시스템 운영자 042
04 웹디자이너 048

PART 03 해외 취업 유망 국가

01 미국 056
02 일본 080
03 독일 098

PART 04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118
02 정부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122
03 스스로 취업하기 132
0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134

PART 05

해외취업 성공 사례

01 일본 IT 취업 성공 사례(1) 138
02 일본 IT 취업 성공 사례(2) 142
03 미국 IT 취업 성공 사례 146
04 독일 IT 취업 성공 사례 150

PART 06

해외취업 Q&A 158

PART

01

IT 직종 개요

01
IT란 ?
-
02
IT 시장 전망
-
03
IT 직종의 연봉 및 근무조건
-
04
해외취업 현황
-
05
해외취업 전망

01. IT의 분류

IT(information technology)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용어이지만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확산되면서 IT와 타산업 간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전적으로 IT는 정보의 처리와 배포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개발하고 유지 및 사용과 관련된 기술로 정의된다. 정의에서도 나타나듯이 IT는 산업분류체계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으며, 세분류상으로도 출판에서부터 부품 제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IT산업은 국가별 및 분류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 IT산업에 속하는 업종이나 품목, 직종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IT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IT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서비스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고 통신 관련 산업을 추가하여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로 지칭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으로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IT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IT보다는 ICT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되는 편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IT와 ICT가 혼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GICS(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 분류체계에 의한 IT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1-1] GICS에 따른 IT 분류

Software & Services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IT Services	IT Consulting & Other Services
		Data Processing & Outsourced Services
		Internet Services & Infrastructure
	Software	Application Software
		Systems Software
Technology Hardware & Equipment (기술 하드웨어 및 장비)	Communications Equipment	Communications Equipment
	Technology Hardware, Storage & Peripherals	Technology Hardware, Storage & Peripherals
	Electronic Equipment, Instruments & Components	Electronic Equipment & Instruments
		Electronic Components
		Electronic Manufacturing Services
		Technology Distributors

02.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의 분류

해외취업 시 IT 분야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학력이나 경험, 보유 스킬을 감안할 때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GICS 체제에 따른 IT의 분류 중 해외취업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구직자에게 관심의 대상은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SW산업) 부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서에서도 IT로 통칭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SW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19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SW산업의 사전적 정의는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SW의 조직화된 체계를 의미한다. 즉 SW산업은 SW 개발 단계부터 최종 소비자(개인·기업·정부 등)가 사용하기까지 SW 공급과 관련된 모든 생산적 활동 전반을 포함한다. SW산업의 분류는 협의 또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선 협의의 SW산업 분류는 패키지SW(시스템SW 및 응용SW), IT서비스, 게임SW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고, 광의의 SW산업은 인터넷SW(정보서비스) 분야까지 포괄하여 정의된다.

SW산업 분야

- **패키지SW** : 이미 만들어진 응용SW·기성 제품을 완성된 형태로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특정 용도로 개발된 범용성 프로그램(오피스SW, 사무용SW, 보안SW 등)을 개발·제작·유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 **IT서비스** :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IT컨설팅)에서부터 구축, 실제적인 운용·관리, 교육·훈련까지 모든 과정상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주문형SW·솔루션의 개발, 정보(컴퓨터) 시스템 구축 및 통합, 개발 및 구축된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솔루션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방법론, 기술 및 인프라, 인력 등을 제공한다.
- **게임SW** :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SW 기술, 3D동영상, 캐릭터, 배경그래픽, 배경음악 및 사운드효과 등 디지털콘텐츠, 게임시나리오, 게임디자인, 기획, 프로듀싱 등으로 결합된 일종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 및 네트워크, 정보기술,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및 온라인,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콘솔 게임기의 네트워크 기능 탑재,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가상현실, 디지털 3차원 영상, 각종 센서 기술 등 게임의 유형과 미디어 및 게임 동작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되어 발전하고 있다.
- **인터넷SW** : 포털 및 정보검색,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전자거래, 웹 콘텐츠 전송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이다.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로 수평적인 콘텐츠(Content)-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디바이스(Device) 생태계가 형성되고, 산업 간 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SW산업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SW 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기업(제조, 금융, 통신 및 서비스 등)들까지 SW 및 관련 사업에 진출하면서 SW 산업 생태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01. IT 부문 전반적 전망

IT 부문의 경우 연관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장규모나 성장세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2020년에는 COVID-19가 대부분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타 산업과 달리 지난 10년간 부침없이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한 IT 부문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항공운수 부문의 경우 COVID-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IT 관련 지출을 30% 이상 축소함에 따라 IT 부문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COVID-19를 겪으면서 디지털화, 초자동화, 원격작업 등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IT 지출이 창출되고 있어 2021년 이후에는 IT 부문의 빠른 회복과 성장이 예상된다. 디지털화의 경우 2020년 말부터 클라우드컴퓨팅,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유저인터페이스 등의 분야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위한 초자동화와 관련한 글로벌 수요도 이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근무와 같은 원격작업이 확산되면서 태블릿이나 노트북과 같은 디바이스 시장도 수요 확대가 기대된다.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COVID-19는 IT 부문에도 영향을 미쳐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시장규모가 3.2% 정도 축소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22년 IT 부문 지출규모는 4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2] 전 세계 IT 부문 지출규모(단위: 십억 US$)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E)	2022년(E)
Data Center Systems	214.9	215.0	228.4	236.0
Enterprise Software	476.7	465.0	505.7	557.4
Devices	711.5	653.2	705.4	714.8
IT Services	1,040.3	1,011.8	1,072.6	1,140.1
Communications Services	1,372.9	1,349.9	1,410.7	1,456.6
Overall IT	3,816.3	3,694.9	3,922.8	4,104.9

출처: Gartner(2021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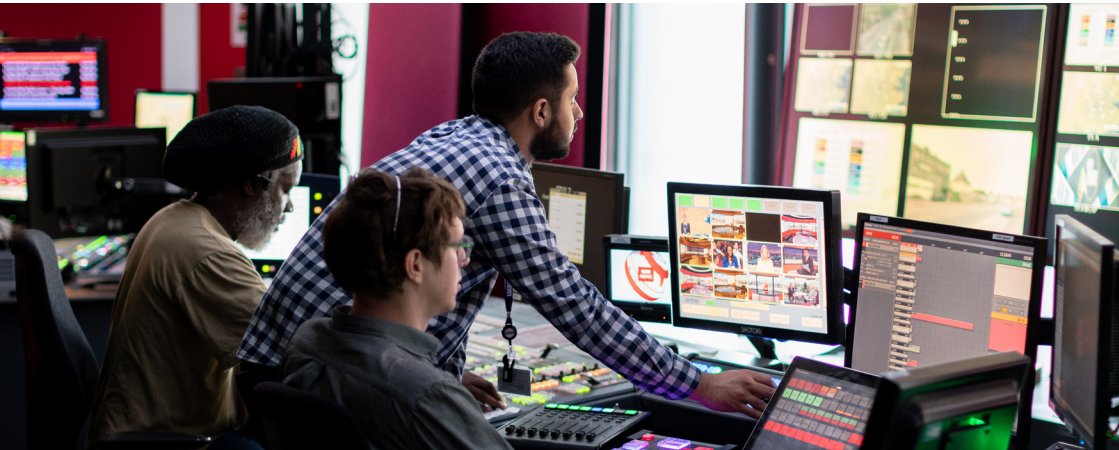
02. 주요 SW(software)산업 전망

❶ 패키지SW

세계 패키지SW 시장규모는 2018년 5,4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6% 성장했으며, 2019~2023년까지 연평균 8.4% 성장해 2023년에는 8,1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키지SW 중 애플리케이션(응용 SW) 시장이 2018년 2,880억 달러로 전체 패키지SW 시장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스템 인프라 SW 시장이 1,257억 달러로 23.2%, 애플리케이션 개발/배포 SW(개발용 SW) 시장이 1,286억 달러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2019~2023년 연평균 성장률(CAGR)을 보면, 애플리케이션 개발/배포 SW 시장이 11.2%,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8.3%, 시스템 인프라 SW 시장이 5.4%로, 애플리케이션 개발/배포 SW 시장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❷ IT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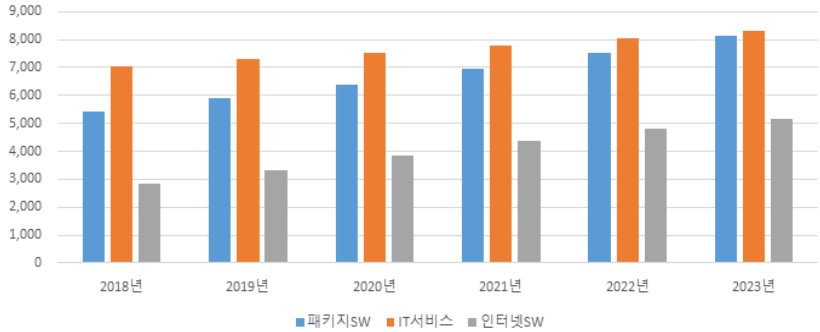
세계 IT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7,0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성장했으며, 2019~2023년까지 연평균 3.3% 성장해 2023년에는 8,2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아웃소싱 시장이 2018년 2,834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컨설팅/SI/NI 시장이 2,629억 달러로 37.3%, 지원 및 교육 시장이 1,578억 달러로 22.4%를 차지하고 있다. 2019~2023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컨설팅/SI/NI 시장이 4.1%로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및 교육 시장이 2.9%, 아웃소싱 시장이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❸ 인터넷SW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는 2019년 3,3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6%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광고 시장에서 50.1%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1] 주요 SW 시장 규모 현황 및 전망(단위: 억 US$)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2019 소프트웨어산업 연간보고서' 중 IDC 및 eMarketer 출처 자료 재구성
주) 패키지SW와 IT서비스는 IDC(2019.08)의 전망치를 재인용한 것이며, 인터넷SW는 주요 서비스 업체의 주 매출원인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에 대한 eMarketer(2019.03)의 전망치를 재인용한 것임.

Esc
F1
F2
F3
F4
1 Actual Size
2
3
4
5 Make Guides
6 Re-Select
Q Quit
W Close
E
R Rulers
T Character
Y Outline
A Select All
S Save
D
F Paste In Front
G Group
H Show/Hide Extras
J
Hold to constrain proportions
Z Undo/ Redo
X Cut
C Copy
V Paste
B Paste In Back
N New File
M
Function
command
Hold for hand tool

01. IT 직종에서 프로그래머, 개발자, 엔지니어 구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산업에서 IT 종사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직종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소속된 기업의 비즈니스에 따라 자사 기업의 IT 업무를 할 수도 있고, 타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할 수도 있으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구분하여 직무별로 직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채용 공고에 명시되는 직군에 대해 상이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세분화하지 않았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된 포지션으로 채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은 채용 공고의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를 더욱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괄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IT 직종은 프로그래머(개발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관리자, 컨설턴트, 기타 지원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고 해외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은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라고 불리는 직종일 것이다.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는 소프트웨어를 기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고 테스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구분할 때 프로그래머(programmers)라고 부르고, 막 입문한 프로그래머로서 주어진 지시에 따라 코딩을 수행하는 사람을 코더(coder)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다. 개발자(developers)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분석, 설계, 구현에 이르는 개발 전반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프로그래머에 비해 업무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개발자는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회사나 업무에 따라서 프로그래머뿐만 아니라 기획자나 디자이너 등이 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면 개발자로 불릴 수 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불릴 수 있고, 웹개발자, 앱개발자, 게임개발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IT 직종을 언급할 때 프로그래머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개발자이다. 요즘에는 프로그래머들의 업무가 코딩에 국한되지 않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래머들이 함께 참여하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이 경우 프로그래머보다는 개발자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큰 의미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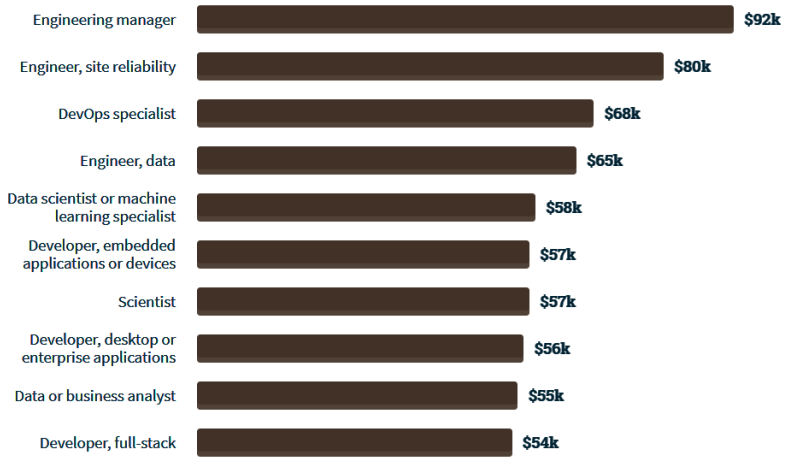
한편,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의 설계와 개발, 테스트, 유지보수, 개선 등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엔지니어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개발자들을 엔지니어로 불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엔지니어의 업무가 개발자의 업무까지도 포괄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수행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대개의 IT 직종에서 직급은 경험 정도에 따라 입문(entry level), 주니어(junior), 시니어(senior), 리드(lead) 등의 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편의상 구분해 보면 프로그래머는 입문 및 주니어급이 담당할 수 있고, 개발자와 엔지니어는 각각 시니어급 및 리드급의 업무 역할과 범위, 책임이 뒤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2. IT 직종의 연봉 및 근무조건

IT의 경우 유형별 국가별로 연봉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본서의 경우 해외취업 유망국가별로 IT 관련 직업군의 임금 수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IT개발자의 최대 커뮤니티인 Stackoverflo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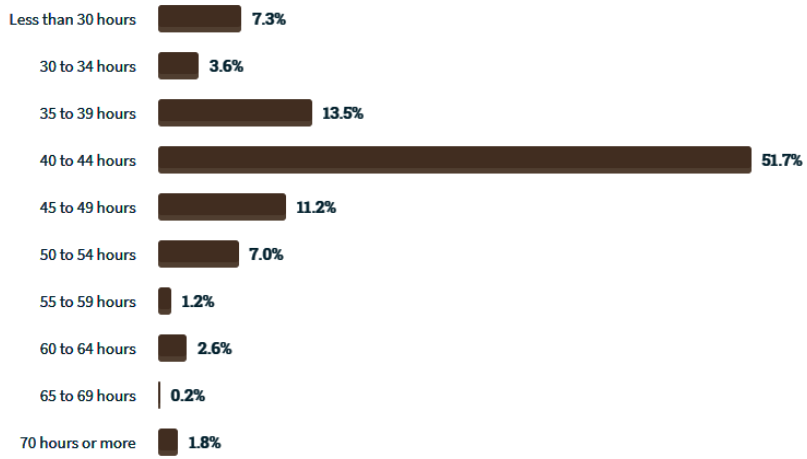
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서베이 자료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연봉 및 근무조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 그림은 2020년 서베이 자료 중 유형별 임금 수준과 주당 근무시간에 대한 정보이다.

[그림 1-2] 유형별 평균 임금 수준(상위 10개)



출처: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flow.com), 'developer survey 2020'

[그림 1-3] IT 개발자의 주당 근무시간



출처: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flow.com), 'developer survey 2020'

01. 국가별 해외취업 현황

월드잡플러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인의 IT 분야 해외취업자는 총 3,245명이며, 2017년 812명, 2018년 1,065명, 2019년 1,36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최근 3년간 일본이 2,58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 372명, 말레이시아 97명, 독일 3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의 경우에는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독일 등의 순으로 해외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국가별/연도별 IT 분야 해외취업 현황(단위: 명)

국가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합계
일본	623	836	1,122	2,581
미국	116	134	122	372
말레이시아	19	38	36	97
독일	7	12	14	33
싱가포르	9	9	13	31
캐나다	5	4	15	24
기타국가	33	32	46	111
총합계	812	1,065	1,368	3,245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02. 직종별 해외취업 현황

직종별로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웹엔지니어 및 웹개발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웹디자이너 등의 순으로 해외취업자가 집계되고 있다. 다만 동 통계의 경우 해외취업자가 스스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이용 시에는 해외취업자의 직무가 복수의 직종에 걸쳐져 있거나 국가별 직무/직종의 분류 체계상 차이 등으로 인해 명확한 직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4] 직종별/연도별 IT 분야 해외취업 현황(단위: 명)

직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합계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282	312	598	1,192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280	353	295	928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53	75	101	229
정보시스템 운영자	51	82	57	190
웹디자이너	57	51	71	179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31	32	59	122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 관리자	5	42	48	95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2	13	52	67
시스템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15	19	8	42
컴퓨터 운영 관리자	0	6	19	25
기타 IT 직종[1)]	36	80	60	176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주 1) 기타 IT 직종에 포함되는 직종명은 다음과 같음.
정보통신 컨설턴트,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기계 캐드원,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웹기획자, 전기·전자장비 캐드원, 통신관리자, 건축 캐드원, 그 외 캐드원, 멀티미디어 기획자, 컴퓨터 하드웨어개발 관리자, 시스템엔지니어, 웹마스터, 컴퓨터 보안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그 외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03. 기타 해외취업 현황

급여수준별로는 대부분의 IT 직종 해외취업자가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의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종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기업 유형별로는 외국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2,04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인 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811명 정도로 나타났다.

[표 1-5] 급여수준별/연도별 IT 분야 해외취업 현황(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합계
1,500만원 ~ 2,500만원	167	219	258	644
2,500만원 ~ 3,500만원	532	743	957	2,232
3,500만원 이상	107	103	153	363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주) 3,245명 중 6명은 연봉수준을 공개하지 않아 현황에 미포함.

[표 1-6] 기업유형별/연도별 IT 분야 해외취업 현황(단위: 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총합계
외국기업	408	707	931	2,046
한인기업	361	284	166	811
한국진출기업	40	74	271	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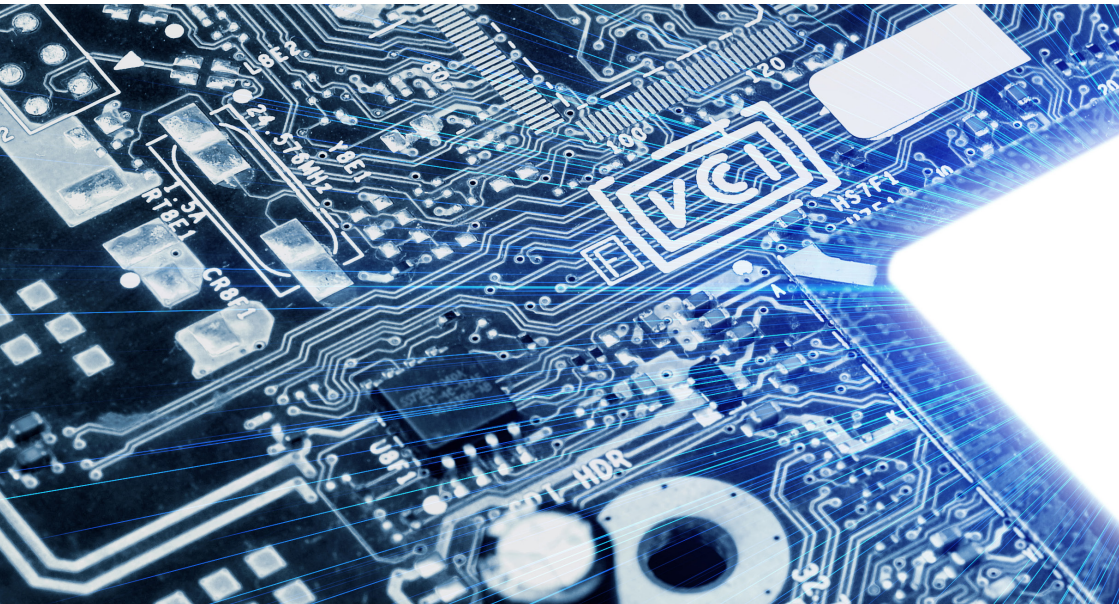
출처: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을 통한 취업현황(한국산업인력공단)
주) 3,245명 중 3명은 기업유형을 공개하지 않아 현황에 미포함.

Daily Desk
Connect
Search
New Wall
ACME POS Software
Performance research
Laravel performance
Misc
Example: Robots...
Example: Writing a...
Journey to Zhuok...
Archive
ACME POS Software
Intro
Share
About
The Acme Corporation is a fictional corporation that features prominently in the Road Runner/Wile E. Coyote animated shorts as a company who E. Coyote attempts to purchase products that fail or backfire catastrophically at the worst possible times.
Purpose of this project
The POS should be designed to be user-friendly, with a sole purpose of making life easier, and balancing factor 5 should allow staff to focus their attention on the customer, as well as the physical preparation and sale of products, concerning the most important values of retail.
Similar
Resolved
Choose the World's B...
All-in-One Cloud-Bas...
Square POS: Point of ...
Budget & Timeframe
Features
New Brick
Resolved
Resolved

05 해외취업 전망

오늘날 우리는 이미 IT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깝게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부터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등 IT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IT는 단순히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융, 자동차, 의료, 물류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그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21세기 세계경제는 IT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다양한 기능·기술·산업 간 창조적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시대'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창업을 통한 신생기업의 부각과 중견기업의 육성과 투자가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 등 다양한 순기능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발전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없으며, 무엇보다 IT 역량을 보유한 인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이 IT 관련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I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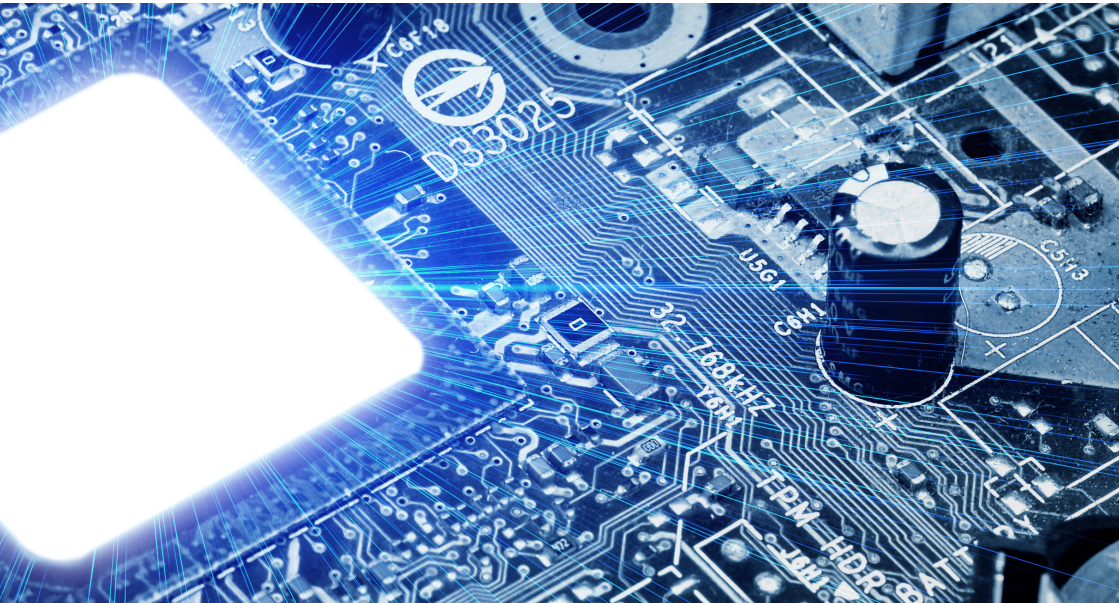
최근 COVID-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산업이 위축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IT의 경우 COVID-19 상황에서도 글로벌 인력의 수요가 여전하고 앞으로의 일자리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게다가 IT는 다른 분야에 비해 산업의 회복



및 성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노동은 대표적인 파생수요라는 점에서 IT의 성장은 고용 확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IT 부문의 고용 확대 요인으로는 산업 성장에 따른 생산의 증가, R&D 투자 및 창업의 증가, 기술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노동 수요와 고용의 확대가 구직자의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타 직종에 비해 IT 직종은 해외취업에 유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할 것이다.

특히 동 분야는 가장 인력 수요가 많은 부문임에 따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취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임과 동시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족직업군에 속함에 따라 한국인 구직자가 해외취업 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취업비자(워크퍼밋)과 관련하여 가장 취업비자 발급이 용이한 분야로 평가된다. 다만, IT 분야의 경우 주로 영어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원활한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며, 인력 수요가 많은 국가의 경우에도 신입직보다는 일정 경험을 갖춘 경력자 위주로 채용이 진행되므로 경력 및 관련 전공에 대한 요구가 높은 편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해외취업 시 유망한 IT 직종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취업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ART

02

해외취업 유망 IT 직종

0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
0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
03
정보시스템 운영자
-
04
웹디자이너

0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소개 (System Software Developer)

시스템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란 ?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조정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컴퓨터 시스템의 일부로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이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컴퓨터의 운영체계(OS), 컴파일러, 유틸리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컴퓨터 활동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를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라고 하는데 Window, Unix, Linux, MS-DOS, 모바일용 OS 등이 있다. C언어, 베이식(basic) 등의 언어번역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유틸리티 소프트웨어 등도 시스템소프트웨어에 포함된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크게 기획, 컴퓨터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작동 테스트, 출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과정 전반에 걸쳐 개발 및 설계까지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지칭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램밍으로 업무 범위를 좁힌다면 프로그래머로 지칭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조정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사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급,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지휘 및 조정하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인지를 기획하고 C, C++, JAVA 등을 이용한 설계 작업, 설계서를 개발언어로 바꾸는 코딩작업을 거쳐 베타버전을 만든다. 이후 베타버전을 컴퓨터 시스템에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며 보안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테스트를 거친 후 완제품을 출시한다. 이 중 코딩작업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낮은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베타버전을 통해 에러, 보안 등을 확인·감독하는 역할은 프

로젝트매니저(PM)가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지만, 시스템소프트웨어가 상품으로 출시되기 위해서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주요 수행직무

- 유닉스(Unix), 리눅스(Linux), 윈도우(windows) 등과 같은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체계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FORTRAN, C, C++, JAVA 등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의 컴파일러(compiler : 고급언어로 쓰인 프로그램을 그와 의미적으로 동등하며 컴퓨터에서 즉시 실행될 수 있는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주는 번역 프로그램)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델파이(Delphi), 파워빌더(PowerBuilder) 등과 같은 개발용 도구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네트워크시스템에서 운영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처리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정보보호에 필요한 방화벽, 인증, 인가 관련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각종 산업용 제어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산업 설비의 제어, 모니터링 및 관리용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컴퓨터시스템의 각종 주변 장치의 제어 및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컴퓨터시스템에서 운용되는 각종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개발한다.
- 운영체계를 해당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에 이식(Potting)시키고 기능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개발된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기록하고, 사용자의 교육과 기술 자문에 응한다.
- 지속적으로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한다.

출처: 워크넷(www.work.go.kr)

02.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 전략

필요 스킬 및 연관 직책명 검색 결과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해외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스킬은 매우 다양한데, 채용 공고에 제시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킬은 프로그래머의 경우 C#, C++, Java, SQL, .NET 등이고, 개발자의 경우에는 JavaScript, SQL, C#, Java, .NET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기가 있다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구직자들 간 경쟁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업무에 따라 다양한 직책(job title)을 갖는데, 국가별 및 회사별로 사용하는 직책에 대한 용어 차이가 존재한다. 해외취업 시 취업자가 채용공고를 탐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payscale에서 'Software Developer'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 시 나타나는 스킬과 직책명 관련 연관 검색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2-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필요 스킬

JavaScript | SQL | C# Programming Languag | Java | .NET | Python
React.js | HTML | C++ Programming Language | Node.js | PHP | Angular
Linux | MySQL | ASP.NET Framework | Spring | Amazon Web Services(AWS)
Angular.js | C Programming Language | Ruby on Rains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표 2-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관련 직책명(job title)

Software Developer, Software Engineer, Software Development Manager, Project Manager(Software Development), Android Software Developer, Software Engineer/Developer/Programmer, Senior Software Engineer, .NET Software Developer/Programmer, Software Programmer, Software Developer(Web Applications), Java Software Developer/Programmer, Full Stack Software Developer, Software Architect, Software Developer(Database), Product Manager(Software), Software Tester, PHP Software Developer/Programmer, Software Development Engineer, Software Consultant, Software Developer(SAP), Software Trainer, Principal Software Engineer, Embedded Software Developer

요구되는 자질

- 분석능력(Analytical skills): 개발자는 사용자나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여 그러한 요구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설계해야 한다.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거나 자신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창의력(Creativity): 개발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시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디테일지향(Detail oriented):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로세스 상 많은 부분에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 원만한 대인관계(Interpersonal skills): 개발은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성공적인 소프트웨어를 설계, 개발 및 프로그래밍에 기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skills):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설계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을 위한 준비 및 경력 개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시 관련 전공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요구한다. 코딩 위주 업무의 경우에는 학위에 준하는 수준의 관련 경험, 예를 들어 4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학위 요건을 대체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 명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위가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니어나 리드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에 멈출 것이 아니라 개발자나 엔지니어로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개발·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언어뿐만 아니라 각종 OS, 장비의 전자신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당장의 취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학문적인 배경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대부분의 채용공고 상 요구하는 관련 전공은 'computer science, software engineering, or a related field'으로 제시가 되는데, 국내 대학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공학과 등의 학과에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진출할 수 있다.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학과들이 별도로 개설되기도 한다. 이들 학과에서는 시스템소프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C언어, JAVA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이론 등을 공부하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을 하기도 한다. 또한, 비전공자들은 정보통신 관련 사설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임베디드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T 부문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이 있는 경우 해외취업이 매우 유리한데,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내 자격증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민간 기업에서 수행하는 자격증으로는 Oracle사의 OCAJP, CISCO사의 CCNA/CCNP, CompTIA의 Linux+ 등과 같은 자격증이 있으며, 이러한 자격증은 국제적으로 권위가 인정되고 업계에서 통용되므로 국내 및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된다.

한편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미들웨어업체, 전산 및 통신장비업체 등에 취업해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업들에서는 전산지식, 프로그래밍 능력을 필요로 하고, IT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호한다. 처음부터 경력을 갖추고 시작하기는 어려우므로 비교적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코더(Coder)로 시작하여 차츰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경력이 쌓이면 단위업무의 리더인 프로젝트리더(PL, Project Leader)를 거쳐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 Project Manager)로 승진할 수 있다. 실무경력을 살려 컴퓨터시스템개발자, IT

컨설턴트 등으로 옮기기도 하며, 관련 업체를 본인이 직접 창업하기도 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도태되지 않도록 꾸준히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공부를 해야 하며, 관련 학교 및 학과에서 기초부터 착실히 다지는 것이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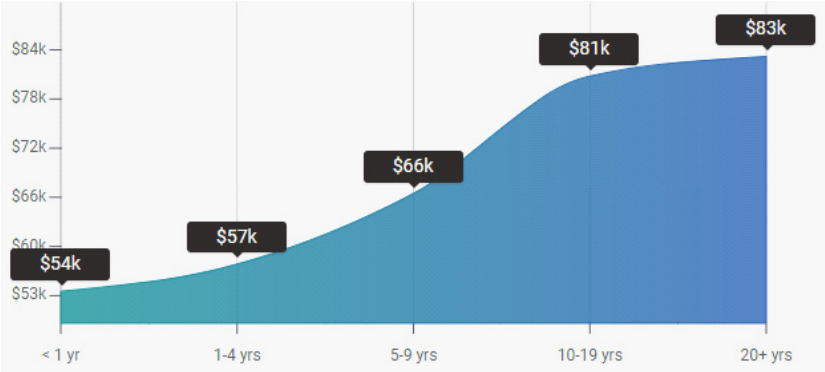
전망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정보기술의 핵심이 되는 고부가가치성 소프트웨어로서 고도의 기술 집약적 특성을 가지며, 향후 IT 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객관계관리(CRM)에 빅데이터를 결합하여 실시간 고객 분류 세분화와 시간·위치에 따른 표적 설정 등을 통해 고객 충성도 향상과 매출 증대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폰 대중화, 사회관계망(SNS)이 CRM 환경을 변화시키고 빅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다양화, 오픈 소프트웨어의 보급 확대, 방송과 통신이 결합한 IPTV 시장 활성화, 기기와 장비의 디지털화 등 급속한 변화로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IT와 비IT 업종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와 인력 수요가 늘고 있다. 최근 PDA, 휴대폰단말기, 자동차, 항공기,가전제품에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임베디드 OS가 늘면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10년간 임베디드 및 펌웨어 부문을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마트 TV 등 PC 외적인 IT기기들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개발자)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임금수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연간 평균 임금 수준은 US$71,896(미국 기준) 정도인데, 경력에 따라 US$54,000에서부터 US$83,000까지 분포하고 있다.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는 개발자보다는 임금수준이 다소 낮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보유 스킬에 따라 평균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데, 프로그래머를 예로 들면 Perl(+58%), jQuery(+30%), Java/J2EE(+14%), C Language(+12%), Python(+10%), MySQL(+7%), JavaScript(+7%), Oracle(+6%) 등의 스킬을 보유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8%까지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림 2-2] 시스템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경력별 임금수준 추이(미국 기준, 단위: US$)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01.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소개 (application software programmer)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software)란 ?

소프트웨어는 크게 운영체제인 UNIX, DOS, Window와 같은 시스템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 응용소프트웨어는 한글, 엑셀, 포토샵처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컴퓨터에 설치하는 패키지프로그램과 특정 기업의 인사관리나 회계관리 등과 같이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지는 주문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응용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을 특정 응용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 시스템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과학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특히 회계, 제조, 유통, 인사, 영업 등 기업용 응용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기업관리 소프트웨어인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관리시스템(SCM) 등이 대표적인 응용소프트웨어이다. 또한 전자결재프로그램, 항공권, 열차표 등의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도 응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역할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응용소프트웨어의 분야가 넓어짐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직종은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게임 프로그래머, 모바일 프로그래머 등과 같이 개발하는 프로그램 앞에 업무내용을 붙여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그 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란 업무내용이 구분되는 프로그래머에 속하지 않으면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통칭하며, 이들은 주로 주문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기획자가 업무를 분석하고 나면 프로그래머는 기획된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조 등을 일련의 양식으로 도식화한다. 프로그래머는 도식화된 양식을 로직으로 변환하여 독립된 프로세스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을 설계하면서 프로그램의 개발에 착수하고, 이후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프로그램의 테스트 및 배포가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내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까지도 담당한다.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하고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기획과 프로그래밍, 유지개선 등 개발 분야 전반을 모두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지칭한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출시된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조사, 소프트웨어의 용도 파악, 고객의 요구 수렴 등을 거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설계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C, C++, 자바, 비주얼스튜디오, 델파이, 파워빌더 등을 사용하여 개발언어로 바꾸는 코딩작업을 거쳐 베타버전을 만든다. 이후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며, 이를 통해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출시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음 버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반영한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주요 수행직무

-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범위와 목표를 설정한다.
- 소프트웨어를 개발·완성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자원 조달 계획을 편성한다.
- 응용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의 방법과 계획을 설정한다.
- 소프트웨어의 세부적인 기능 및 사양에 관한 상세 설계를 한다.
- 상세 설계에 따라서 단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응용시스템으로 결합시킨다.
- 해당 컴퓨터시스템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능 및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다.
- 패키지성의 개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버전관리를 한다.
- 테스트를 통해 버그를 수정한다.
-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운영 교육과 기술을 지원한다.

출처: 워크넷(www.work.go.kr)

02.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취업 전략

필요 스킬 및 연관 직책명 검색 결과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해외취업 시 채용 공고에 제시되는 가장 인기 있는 스

킬은 SQL, C#, JavaScript, HTML, .NET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C, C++, PHP, Python 등도 많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스킬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프로그래머들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문성으로 판단되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전이 가능한 스킬, 즉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은 다른 프로그램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으므로 현재에 안주해서는 빠르게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스킬을 습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스택오버플로우(Stack Overflow)에 따르면 2020년 개발자 서베이에서 많은 개발자에게 얼마나 자주 새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배우는지 물어본 결과 75%의 응답자들은 매년 한 번 이상 새로운 기술을 학습한다고 대답했다. 해외취업 시 취업자가 채용공고를 탐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payscale에서 'Application Programmer'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 시 나타나는 스킬과 직책명 관련 연관 검색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3]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게 요구되는 필요 스킬

SQL | C# Programming Language | JavaScript | Java | HTML | .NET
Python | C++ Programming Language | COBOL | Microsoft Server
Microsoft Office | Web Development | Visual Basic(VB) | PHP | Linux
Job Control Language(JCL) | PL/SQL | Mainframe | VB.Net | Node.js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표 2-2]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관련 직책명(job title)

Application Developer, Applications Engineer, Mobile Applications Developer, Application Support Analyst, Software Developer, Web Applications, Applications Systems Analyst, Software Architect(Applications), Web Application Developer, Applications Systems Analyst/Programmer, Application Support Specialist, Computer Software Engineer(Applications), Applications Development Manager, Applications and Support Engineer, Clinical Applications Specialist, Application Architect, Director of Applications, Field Application Engineer, Applications Engineering Manager, Applications Development Manager(Computer Software), Software Developer/Business Analyst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요구되는 자질

- 분석능력(Analytical skills): 프로그래머는 코딩을 위한 복잡한 지시체계와 구조를 분석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집중력(Concentration): 프로그래머는 코드를 작성하거나 기존 코드에서 오류를 확인할 때 자신의 작업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 디테일지향(Detail oriented): 작은 실수가 전체 프로그램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들은 자신이 쓰는 코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 업무 특성상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고 업무별로 서로 연관된 부분이 많아 프로그램 수정 시 혼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업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 자기개발능력(self improvement): 끊임없이 바뀌는 신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계속 많은 툴들이 개발되므로 개발자로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 개발자로 도태되지 않는 자기개발능력이 요구된다.
-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skills):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고, 프로그래머의 업무에서 중요한 부분은 코드를 검사하여 오류 또는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을 위한 준비 및 경력 개발

대부분의 IT 직종에서도 나타나듯이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의 학사 학위자가 취업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자료의 구조, 알고리즘, 분산처리 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면접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통해 이론들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IT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향후의 경력 관리를 위해서는 학위가 여전히 중요하다. 관련 전공에 대해 많은 경우 채용공고 상 'computer science or a related subject'으로 제시가 되는데, 국내 대학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등이 관련 학과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별도의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램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를 비롯해 실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을 한다. 또한 IT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사설 교육기관에서 정규 대학 학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구글의 Career Certificates, 마이크로소프트의 Global Skills Initiative와 같은 IT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또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들도 있는데, CompTia의 IT 분야별 인증서(www.comptia.org/certifications)나 CLA의 프로그래밍 언어 인증(cppinstitute.org/certification)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경력 개발을 위해서는 주로 SI(시스템통합)업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금융권 등 기업체의 전산실 등에서 근무하는데, 채용 시 경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비교적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코더(Coder)로 시작하여 차츰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력이 쌓이면 단위업무의 프로젝트리더(PL : Project Leader)를 거쳐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프로젝트매니저(PM : Project Manager)로 승진할 수 있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경력을 쌓은 후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옮기기도 하며, 숙련자는 IT 컨설턴트로 진출하기도 한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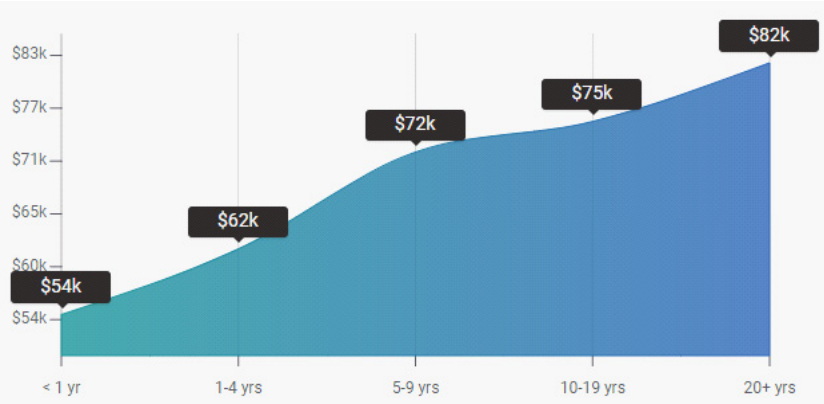
일반적인 응용소프트웨어는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웹프로그램은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일반적인 응용소프트웨어보다는 웹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 분야는 PC뿐만 아니라 웹이나 모바일 분야에서도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만 있으면 어디로든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직업 전망도 매우 밝다. 최근 COVID-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군 종사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T 직종 중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직군의 경우 가장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고 강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이다.

임금수준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연간 평균 임금은 US$66,033(미국 기준)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US$54,000에서부터 US$82,000까지 분포한다.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경우 Oracle(+40%), Visual Basic(+38%), Cascading Style Sheets(+10%), COBOL(+6%), Python(+4%) 등의 스킬을 보유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게는 4%에서 많게는 40%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림 2-4]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의 경력별 임금수준 추이(단위: US$)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01. 정보시스템 운영자 소개 (Information System Administrators)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이란 ?

정보시스템이란 일반적으로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적용, 전파하는 전반적인 기반의 시설 및 조직, 인원 등의 구성 요소를 의미하며, 기업환경에서는 업무처리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배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보시스템은 업무처리나 의사결정 외에도 사원 간의 의사소통이나 협력증진, 혹은 통제의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기업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통신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더 이상 정보시스템은 기업경영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하는 일개 부문이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고객서비스나 외부파트너와의 협력의 정도를 제고하는 등의 기업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하위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시스템의 하위시스템으로서 정보시스템은 기업시스템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구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역할

오늘날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방대한 양의 자료가 축적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은 전문적인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운영전문가가 필요하다.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사용자들에게 기술적인 지원 및 훈련을 시키고, 시스템 전반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장애 발생 시 문제를 처리하는 등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며 각종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 백업과 예방점검을 수행한다. 시스템 사용자의 등록 관리, 사용 권한 부여, 불편사항 접수 및 개선도 이들이 담당한다. 새로운 주변장치를 설치하고 테스트하며 운영시스템 및 드라이브에 필요한 조정을 하며, 시스템 사용자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사용자들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며,

프린팅, 워드프로세싱, 프로그래밍 언어, 전자메일 및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고객의 문의에 응답해준다.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력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신속히 시스템이 복구되도록 한다. 이 외에 서버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보시스템의 상태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서버운영관리자, 기업체나 기관에서 사용되는 전산 네트워크 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네트워크운영관리자 역시 정보시스템 운영자로 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주요 수행직무

-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지침서를 작성한다.
- 컴퓨터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유지, 보수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 전산실의 온도, 습도 분진 등을 체크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시켜 시스템장비를 보호한다.
- 정보시스템의 사용자를 등록, 관리하고 이들에 대하여 시스템 접근을 관리한다.
- 정보시스템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관리·통제한다.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시스템의 성능 및 기능을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한다.
-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고장이 발생되었을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시스템을 최단 시간 내에 복구한다.
- 정보시스템의 관리 현황을 문서로 기록·관리한다.
- 시스템 성능 향상 시 종합적으로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평가한다.
- 사용자의 불편 및 요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 사용자의 기술 관련 문의에 응대하고,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 정보시스템의 가동 및 정지의 권한을 갖고 필요시 시스템을 가동 및 정지시킨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과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시스템의 성능 향상 시 반영한다.

출처: 워크넷(www.work.go.kr)

02. 정보시스템 운영자 취업 전략

필요 스킬 및 연관 직책명 검색 결과

정보시스템 운영자로 해외취업 시 채용 공고에 제시되는 가장 인기있는 스킬은 System Administration, Microsoft Active Directory, Network Management/Administration, Window Server 2012 R2, VMware ESX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취업 시 취업자가 채용공고를 탐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payscale에서 'System Administrator'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 시 나타나는 스킬과 직책명 관련 연관 검색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5] 정보시스템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필요 스킬

System Administration
Microsoft Active Directory
Network Management / Administration
VMware ESX
Windows Server 2012 R2
Microsoft Office
Microsoft Exchange
Information Technology(IT) Support
Linux
Virtualization
Windows Support
Microsoft Azure
SQL
Windows Operating System General Use
Amazon Web Services(AWS)
Windows PowerShell
Cisco Networking
Red Hat Enterprise Linux(RHEL)
Microsoft SQL Server
UNIX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표 2-3] 정보시스템 운영자 관련 직책명(job title)

System Administrator(Computer/Network), System Administrator, Windows Server, UNIX System Administrator, Linux System Administrator, System Administrator(Server), Network/System Administrator(General Office), Network Administrator(IT), Database Administrator, Administrative Assistant, System Support Administrator,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t, System Administrator(Web)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요구되는 자질

- 분석능력(Analytical skills):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평가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고, 고객의 요구가 변화하는데 맞춰 새로운 요구사항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고객이나 타 부문 직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멀티태스킹능력(Multitasking skills):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skills):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을 위한 준비 및 경력 개발

정보시스템 운영자로 일하려면 각종 컴퓨터 운영체제(OS)와 OS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설치와 운영, 보안,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과 기술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들은 컴퓨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며, 각종 자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해야 하므로 분석적이고, 적응성 및 융통성이 높은 성격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전산, 기술 분석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컴퓨터와 전자공학, 통신 공학과 기술 등의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 분야 역시 채용 시 관련 전공('in a field related to computer or information science')의 학사 이상을 요구하는데, 국내 대학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응용소프트웨어학과, 정보처리학과, 전자계산과, 전산공학과, 공학교육과, 산업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등이 관련 학과에 해당한다. 또한 CompTIA, Amazon Web Services(AWS), ISACA 등의 업체에서는 다양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해외취업 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한편,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주로 SI(시스템통합)업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전산실, 전산시스템을 위탁받아 통합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등에서 근무한다.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관련 경력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경력을 쌓은 후에는 정보기술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컴퓨터시스템설계분석가, 네트워크 시스템분석가 및 개발자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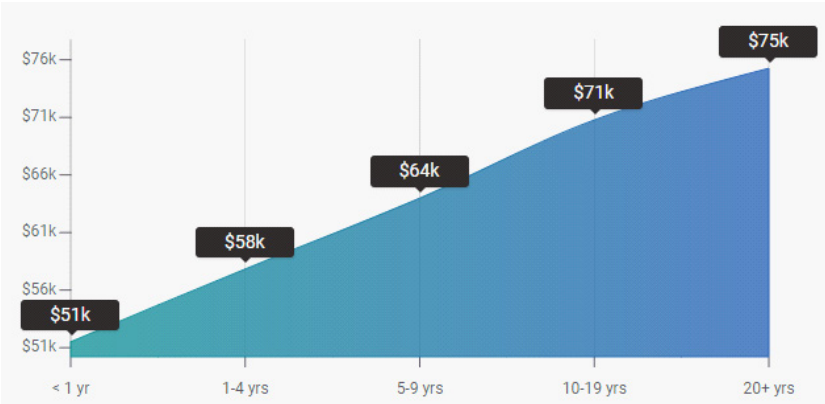
정보시스템 운영자는 IT기반 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바일 통신 기기 확대, 유무선 네트워크 연계, 산업의 IT화 등으로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의 역할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e-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 사회적 미디어 활성화, 각종 기기의 자동화·디지털화, 사물인터넷(IoT)의 개발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결망 확대로 정보시스템의 규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경에서 정보시스템의 고장이나 장애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각 기관에서는 24시간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등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고용 증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컴퓨터 시스템 개발의 발전으로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스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는 것은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큰 기관에서는 자체 인력을 채용하지만 최근 들어 별도의 통합 데이터센터를 통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시스템통합(SI)업체에 외부 용역을 주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인력 파견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근무 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일시에 해결하게 된 것은 특정 기관 내 상주하는 정보시스템운영 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외주화(outsourcing)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수준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연간 평균 임금 수준은 US$62,813(미국 기준)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US$51,000에서부터 US$75,000까지 분포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경우 Kubernetes(+79%), Documentum(+53%), Agile Software Development(+40%), Puppet(+36%), Computer Aided Design(+36%), IBM WebSphere(+35%), Marketing Communications(+33%), System Integration(+33%), Oracle Hyperion Financial Management(+33%) 등의 스킬을 보유하고 있으면 많게는 79%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림 2-6] 정보시스템 운영자의 경력별 임금수준 추이(단위: US$)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01. 웹디자이너 소개 (Web Designers)

웹디자인(Web-Design)이란 ?

웹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 담긴 정보를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웹페이지의 구조, 레이아웃, 색상, 폰트, 이미지, 상호작용 등을 계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근에는 UI(User Interface)디자인이나 UX(User Experience)디자인 등으로 영역을 세분화하기도 한다. UI(User Interface)디자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웹페이지나 모바일 화면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고, UX(User Experience)디자인은 사용자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반응과 행동과 같은 경험을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UI디자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적으로 웹디자인은 크게 디자인과 코딩으로 나뉘며, 디자인 영역은 다시 홈페이지 디자인,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등으로 세분된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의 개발 목적에 따라 전체 이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내비게이션을 설계하고 전체 구조와 메뉴, 서브메뉴를 위계적으로 설정하며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웹디자이너(Web Designers)의 역할

웹디자이너는 컴퓨터그래픽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웹의 구축 목적 및 내용을 웹사이트 상에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직무를 말한다. 이를 위해 웹디자이너는 웹사이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미지 형태, 사이즈, 동영상, 애니메이션, 텍스트, 서체, 레이아웃 등의 시각적인 요소를 구성하고 디자인한다. 과거 웹디자이너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에 국한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최근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나 사용자 경험(UX)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웹디자이너의 역할이 시각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웹페이지 간 상호작용이나 최적화와 같은 비시각적 디자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작업을 위한 그래픽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와 코딩에도 익숙할 필요가 있다.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2D스튜디오, 어도비 프리미어 등 그래픽 관련 소프트웨어 툴(tool)을 능숙하게 다

룰 수 있어야 하며,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지식, 예술적 감각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프로그램 언어인 HTML과 자바(JAVA), 애니메이션 등 개발 관련 언어를 아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된다. 창의력, 표현력뿐만 아니라 색채감각, 조형감각 등을 갖추고 있으면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혁신적인 성격,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이 요구된다.

웹디자이너의 주요 수행직무

- 웹사이트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설계한다.
-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한다.
- 웹사이트의 네비게이션 체계를 설계한다.
- 웹사이트의 전체 구조를 결정하고, 메뉴와 서브 메뉴를 위계적으로 설정한다.
-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레이아웃 한다.
- 웹사이트의 주요 화면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웹사이트에 비즈니스를 위한 배너와 플래시 에니메이션을 제작한다.
- 웹사이트 디자인 외에 부가적으로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와 일러스트를 디자인한다.

출처: 워크넷(www.work.go.kr)

02. 웹디자이너 취업 전략

필요 스킬 및 연관 직책명 검색 결과

웹디자이너로 해외취업 시 채용 공고에 제시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킬은 Web Design, Adebe Photoshop, Cascading Style Sheets(CSS), Graphic Design, HTML% 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웹디자인 전문가에게 웹 프로그래밍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밍 스킬이 있는 웹디자인 전문가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프로그래머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관련 스킬을 보유하면 채용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 해외취업 시 취업자가 채용공고를 탐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payscale에서 'Web Designer'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 시 나타나는 스킬과 직책명 관련 연관 검색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7] 웹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필요 스킬

Web Design | Cascading Style Sheets(CSS) | Adobe Photoshop | HTML5
Graphic Design | Wordpress | HTML | Adobe Illustrator
User Experience (UX) Design | User Interface Design | Web Development | Sketch
JavaScript | Adobe Creative Suite | Bootstrap | e-Commerce
Search Engin Optimazation (SEO) | Adobe InDesign | PHP | jQuery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표 2-4] 웹디자이너 관련 직책명(job title)

Graphic Designer, Graphic Artist, Web Designer, UX Designer, Architectural Designer, User Experience Designer, Digital Designer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요구되는 자질

- 컴퓨터활용능력(computer skills): 웹 정보를 찾고 디자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활용능력은 기본적이다. 특히 그래픽 툴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 팀원들과 협력하고 의뢰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팀원이나 의뢰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 의뢰 고객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자기개발능력(self improvement):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및 변화 등에 따라 빠른 웹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꾸준한 자기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디자인이라는 창조적인 행위를 웹상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 및 기술을 이해, 선택,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skills):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고 웹 상에서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혹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영되어야 하는 디자인을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도 필요하다.

취업을 위한 준비 및 경력 개발

여타 IT 직종과 달리 웹디자이너의 경우 해외 취업 시 학위 요건보다는 미적 감각이나 다룰 수 있는 툴의 범위, 업무 경험 등이 중요하다. 웹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관련 분야의 학위와 함께 2년에서 4년 정도의 경험자를 채용하는 공고가 가장 많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공자라 하더라도 웹디자인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경우 재학 기

간 중 반드시 관련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채용공고 상 요구하는 관련 전공은 'in a field such as web design, digital design, or graphic arts'로 제시가 되는데,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디자인, 멀티미디어, 컴퓨터그래픽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전문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취업 시에는 학력이나 자격증 취득 여부보다는 실무 경험이 중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포트폴리오는 웹디자이너를 채용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때로는 학위나 경력에 상관없이 채용 심사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 포트폴리오만으로 채용되기도 한다.

한편 웹디자이너는 주로 웹사이트 개발업체, 전문 디자인업체, 게임개발업체의 채용공고를 통해 입직하거나 업무가 있을 때 프리랜서의 형태로 개발자들과 팀을 이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웹디자이너는 웹사이트 개발업체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동안 경력과 실력을 쌓아 웹광고기획자, 웹마스터, 웹콘텐츠기획자 등으로 전직할 수도 있다.

전망

웹 IT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디바이스의 출현과 함께 웹기술은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된 웹디자이너의 수요 또한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의 IT 기기가 발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 및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발전은 고품질의 멀티미디어 디자인에 대한 기대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웹사이트 모바일 버전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매체에 최적화된 영상 콘텐츠 및 디자인 적용이 반영되고, 첨단 영상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 수요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시장이 열리면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관련 기술이 접목된 제품의 디자인 및 게임물, 영상콘텐츠 분야의 유망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때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이 상용화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려면 비주얼 디자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영상 및 멀티미디어 디자인이 빠질 수 없다. 때문에 첨단과학 기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역량을 갖춘 멀티미디어디자이너의 수요가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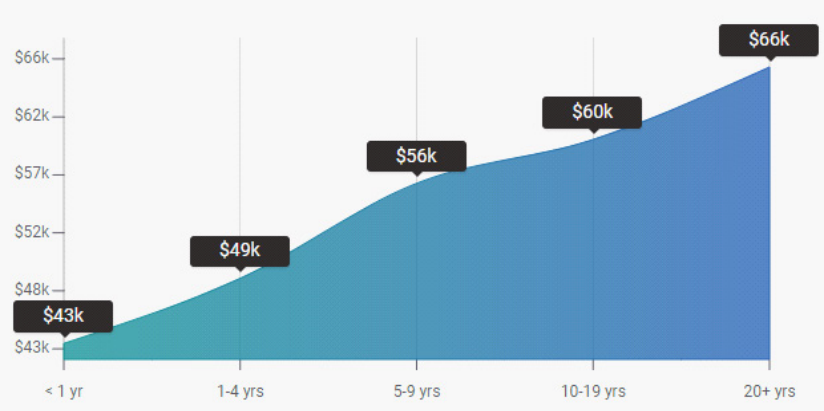
동 분야는 대학의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관련 학과뿐 아니라 사설학원 등에서도 관련 기술을 배울 기회가 많아 해당 디자인 분야 배출인력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웹디자이너는 웹사이트를 개

발할 때 디자인에 국한된 역할만 수행했으나, 최근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나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웹디자이너의 역할은 시각적 효과를 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 프로세스에 걸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우도 점점 좋아지는 분야이다. 다만 채용기업에서는 실력 있는 경력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신규 입직자는 치열한 경쟁과 취업난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술 개발 기간의 단축으로 보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요구하면서 디자이너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를 해야 하고, 전문 분야를 특화하거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모전 수상 등 남다른 준비가 필요하다.

임금 수준

웹디자이너의 연간 평균 임금 수준은 US$50,904(미국 기준) 정도이며, 경력에 따라 US$43,000에서부터 US$66,000까지 분포한다. 웹디자이너의 경우 Axure RP(+46%), Interaction Design(+42%), MacOS(+37%), Digital Marketing(+30%), MySQL(+18%), User Research(+17%), Adibe Flash(+16%), Web Analytics(+16%) 등의 스킬을 보유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림 2-8] 웹디자이너의 경력별 임금수준 추이(단위: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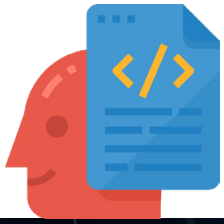
출처: payscale(www.payscale.com)

tumblr.
HYPEBE
HIGHSNOB
YOHJI
YAMAMOTO
CREATIVITY IS CONTAGIOUS
Pass it on

PART

03

해외 취업 유망 국가



01
미국
-
02
일본
-
03
독일

01. 국가 기본 정보

[표 3-1] 미국의 국가 정보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면적	9,372,610 ㎢ (2020년 12월 기준)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약 3억 3,013만 명 (미국 인구조사국, 2021년 2월 말 현재)
주요 도시	뉴욕(862만), 로스앤젤레스(400만), 시카고(272만)
민족	백인(60.7%), 히스패닉(18.1%), 흑인(13.4%),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8%), 하와이 및 태평양 원주민 (0.2%) 등
언어	영어(일부 지역은 스페인어도 통용)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무슬림(0.9%),불교(0.7%), 힌두(0.7%), 기타(1.5%), 무교(22.8%)
건국(독립)일	1776년 7월 4일(13개 주 독립선언일)
국가원수	대통령: 조 바이든(Joe Biden)
주요 정당	공화당(Republican Party) / 민주당(Democratic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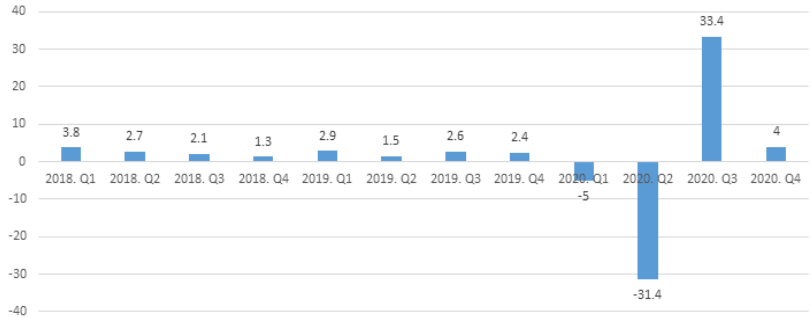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02. 미국 경제동향

미국은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기반하여 자유무역과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교역 규모 또한 세계 최대 재화 수입국이자 세계 3위 수출국이다. 최근 미국 경제는 선진국 중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2020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동향을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큰 경제성장률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분기와 4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2020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망된다.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2021년에는 COVID-19

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의 보급과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3.1% ~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제재개 시 부문별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은 수요 증대로 혜택이 예상되나 여행, 숙박 등의 부문은 여전히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단위: %)



출처: 미국 상무국 산하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1년 1월말 기준

03. 미국 산업 현황

미국 산업 현황

2020년 미국 GDP(Value Added 기준)에서 민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7.5%로 전년대비 약 0.2% 포인트 비중이 줄었으며, 정부 비중은 증가했다. 이는 COVID-19로 인한 재정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산업구조는 1,2차 산업의 비중이 20%에 불과하고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이 나머지를 차지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0년 3분기 말 현재 산업별 비중은 부동산/대여(14.0%), 전문서비스(12.6%), 제조업(12%), 금융/보험(8.3%), 헬스케어(7.5%), 도매(5.9%), 소매(5.9%), 정보(5.6%) 등의 순이다. 2020년 들어 COVID-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운송/물류 부문과 음식/숙박업, 광업 등이 가장 큰 폭으로 GDP가 감소하였다. 반면 소매, IT, 금융/보험, 유틸리티 등의 부문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3-2] 미국 산업별 GDP 현황(단위: 십억 US$)

구분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국내총생산(GDP)	20,910	21,747	21,170
민간부문	18,323	19,075	18,517
- 농업·어업·수렵	176	180	173
- 광업	337	301	180
- 가스·수도·전기 등	327	341	343
- 건설	861	906	900
- 제조	2,352	2,370	2,329
- 도매	1,237	1,270	1,245
- 소매	1,121	1,180	1,259
- 운송·물류·유통	671	710	579
- IT	1,076	1,156	1,175
- 금융·보험	1,626	1,693	1,748
- 부동산·대여	2,785	2,922	2,954
- 전문서비스	2,615	2,754	2,674
- 교육·헬스케어·사회복지	1,811	1,898	1,851
- 예술·공연·음식·숙박	880	923	683
- 기타서비스	447	470	425
정부 부문	2,587	2,672	2,654

출처: 미국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21년 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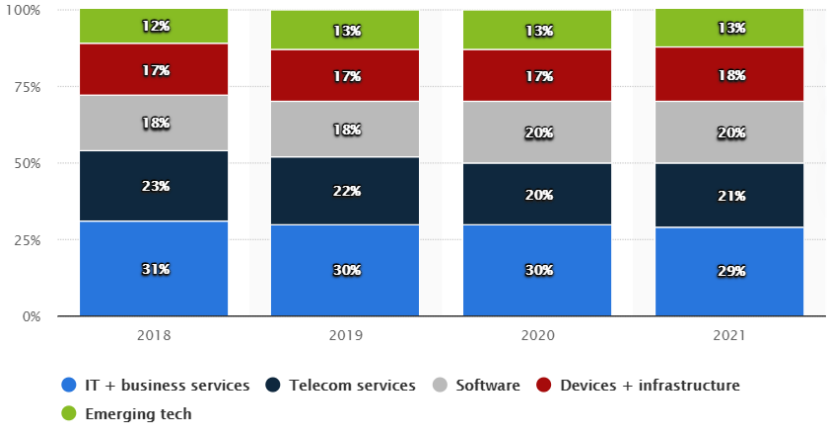
미국 IT산업 현황

미국은 세계 SW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전 세계 IT 기업 중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부터 5위까지의 기업이 모두 미국기업일 정도로 세계 최고의 IT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강국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 부문이 달성하고 있는 혁신성과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민간에 이루어지거나 민관이 협력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온 것이 특징이다. 미국 정부는 정책을 통해 시장

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대신 기업들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 환경 마련에 힘을 쓰고 있으며 큰 그림에서의 투자 방향 제시와 산학연관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미국은 연방정부의 IT 현대화 정책적 기조에 따라 전 산업 부문에서 기존 산업과 ICT를 융합하여 산업혁신을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적으로 첨단제조업, 사물인터넷, AI,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을 집중 육성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분야는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미래 IT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임을 고려할 때 미국의 선제적 대응이 돋보이는 분야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IT 시장이며, IT산업은 미국의 GDP 중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IT 시장 규모가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2021년에는 5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IT 시장은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IT 시장 중 33%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의 위상이 높다. 부문별로는 IT서비스 부문의 점유율이 29%로 가장 높고, 이동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기기 및 인프라, 신기술 등의 순이다.

[그림 3-2]미국 IT 부문별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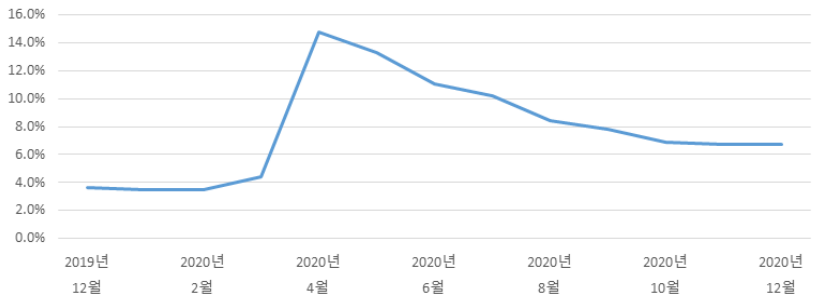
출처: Statista, 'Information technology (IT) industry market share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8 to 2021, by segment'

04. 미국 고용시장

고용시장 현황

미국의 고용상황은 장기간 호조를 지속해 왔으나 2020년 들어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초기에 크게 악화되었다. 미국 실업률은 팬데믹 발생 이전 3.5% 전후의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했으나 3~4월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2,216만명)하면서 대공황 이후 최고치인 14.7%를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 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경제재개 등에 힘입어 10월 실업률이 7% 미만으로 낮아지는 등 빠르게 반등한 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중이나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대면접촉이 수반되는 서비스 부문의 고용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회복 과정에서도 동 부문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의하면 서비스 직군의 경우 2019년 말 실업률이 4.4%였으나 2020년 말에는 13.0%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에 판매 직군은 3.8%에서 8.8%로, 사무 직군은 3.6%에서 7.3%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업률이 상승하였다.

[그림 3-3] 미국 실업률 추이(단위: %)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년 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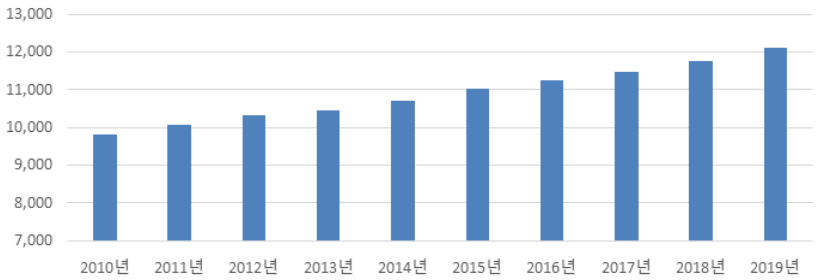
향후 미국의 고용 상황은 소비 및 생산 증대에 따른 노동수요 회복에 따라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사정 개선흐름은 백신보급 및 경제활동 재개 정도에 따라 제약될 소지가 있으나, 2021년 취업자 수는 COVID-19 확산 이후 일시적으로 해고되었던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COVID-19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한 충격이 임금 수준이나 산업별로 불균형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회복속도가 다르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휴노동력이 큰 폭으로 잔존하고 있어 노동시장의 완전한 회복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IT 부문 고용인원

IT 부문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 부문의 일자리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CompTIA에 따르면 미국에서 IT산업이 2010년에 창출한 일자리는 9,800만개 가량이었으나 2020년에는 1,200만개를 상회할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2018년에만 약 40,500개의 IT 스타트-업 기업이 설립되었으며, 2019년 말 현재 525,0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3-4] 미국 IT산업 고용인원 추이(단위: 천 명)



출처: CompTIA, 'Cyberstates 2020'

미국 IT 부문 임금수준

임금은 노동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 회복 등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COVID-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고 노동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사정 개선흐름은 백신보급 및 경제활동 재개 정도에 따라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대부분의 IT 관련 직업군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미국 직업별 임금 중위 수준(단위: US$)

직업군	전체	남성	여성
full-time wage and salary workers	$51,168	$56,264	$46,332
IT 관련 직업군			
- Computer systems analysts	$78,780	$84,292	$73,476
- Information security analysts	$108,056	$108,264	미집계
- Computer programmers	$85,956	$86,996	$79,508
- Software developers	$99,840	$104,208	$89,856
- Software quality assurance analysts and testers	$88,244	$102,804	미집계
- Web developers	$80,808	$80,652	미집계
- Web and digital interface designers	$60,216	미집계	미집계
- Computer support specialists	$59,644	$60,476	$56,940
- Database administrators and architects	$89,700	$89,336	미집계
- Network and computer systems administrators	$74,776	$75,972	미집계
- Computer network architects	$98,904	$102,960	미집계
- Computer occupations, all other	$72,488	$75,712	$60,372
- Computer hardware engineers	$98,228	$97,968	미집계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0년 12월말 기준
주) 노동통계국의 raw-date는 주별 임금 중위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연 52주를 가정하여 환산함.

Maker
Space
Keynote
Stage
WC
WC

01. 개요

미국의 취업비자 취득 환경은 전공과 일치하는 업종에 고학력자가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 비자 취득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구조이다. 미국의 취업비자 취득 환경은 미국 경제 상황과 행정부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경제 호황기를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미국 기업들은 부족한 인력, 특히 고학력의 인재들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활발하게 해왔다. 덕분에 기업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H-1B 비자에 청원서가 몰리면서 정해진 비자 숫자 이상이 매년 접수되어 결국 이민국은 청원서들 중 비자 숫자만큼 무작위 추첨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 결과, H-1B 비자의 일반적인 취득 용이성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지난 2020년 10월에 H-1B 비자와 관련된 두 가지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연방노동국은 H-1B 신청 첫 단계인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리뷰에 적용하는 적정 임금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방 이민국은 H-1B비자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두 가지 법안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고용주들로 하여금 가급적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H-1B비자를 통해 미국에 취업하고자 하는 한국 구직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H-1B비자를 취득하여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구직자들은 우선 본인의 전공, 특히 학과의 명칭이 아니라 본인이 수강한 과목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본인의 전문지식이 “직접적”으로 사용될 직책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회사들을 찾아 취업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또는 해당 회사와 직책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직무들에 대한 과목 찾아 수강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02. 주요 취업비자(H-1B, J-1)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비

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비숙련직/전문직 취업자(H), 회사 내 지사 전근자(L), 비범한 재능소유자(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Q) 또는 종교인(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한다.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매년 한국인에게 평균 2,400여개 정도의 무역상사 및 소액투자사업 비자(E 비자), 26,000여개 정도의 학생비자(F 비자), 2,800여개 정도의 취업비자(H 비자), 14,000여개 정도의 문화교류비자(J 비자), 4,200여개 정도의 일반 주재원비자(L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 중 본 책에서는 미국 취업 시 한국인 구직자가 주로 취득하게 되는 H-1B 비자와 J-1 비자에 대해 소개(KOTRA가 2021년 2월 4일에 발간한 '나만 알고 싶은 28개국 해외 취업정보'의 미국편 내용에서 발췌)한다.

H-1B 비자 소개 및 취득절차

- H-1B 비자란 ? :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관련 전공 학사 이상의 학력자가 일을 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취업비자이다. 학사 학력이더라도 관련 전공이 아니거나, 학사 미만의 학력이라면 관련 분야의 경력과 학력을 함께 고려하여 요구하는 학력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회사는 직원에게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이상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회사 업종, 직책에 제한이 없으나 비자 자체의 숫자가 85,000개(그 중 20,000개는 석사 이상에 배정)로 한정되어 있다. 연구기관이나 비영리단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숫자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허용 기간은 1회에 3년, 총 6년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심사 시 일하고자 하는 직책이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가, 지원자가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고 관련 전공자인가, 그리고 회사가 적정임금(Prevailing Wage)를 책정 받았고 지불하고자 하는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 H-1B 비자 취득 절차 : 직원에게 H-1B를 부여하고자 하는 회사는 매년 3월 중 온라인으로 "고용주사전접수"를 신청하여 H-1B 취득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의 숫자가 배정된 비자 숫자보다 많은 경우 3월 마지막 주에 전자추첨을 한다. 추첨에서 선정된 회사들은 4월부터 이민국에 H 청원서를 접수한다. 청원서가 승인되는 경우 해당 해 10월 1일부터 직원은 미국에서 H-1B 비자로 일을 시작 할 수 있다. 직원

이 미국 내에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있는 경우, 10월 1일자로 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며,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취득한다.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용이하고 차후 취업영주권 진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J-1 비자 소개 및 취득절차

- J-1 비자 소개 : 대학 교환 교수, 연구원들도 사용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고려할 수 있는 비자이다. 가능한 업종에 대해 10개로 구분하여 한정하고 있으나 매우 포괄적인 업종 분류로 항공 등 몇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에 숫자 제한이 없다. 허용 기간은 보통 12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18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심사 기준은 인턴쉽의 내용이 지원자의 전공 혹은 전문 분야와 일치하는가, 지원자가 미국 내 인턴쉽 수행이 가능한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 J-1 비자 취득 절차 : 미국 내 인턴십 진행 회사 혹은 인턴십 에이전시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십의 내용을 근거로 국무성에서 승인을 받는다. 지원자는 승인이 되면 발급되는 DS-2019 서류를 가지고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보고 비자를 취득한다. J-1비자 소지자는 프로그램 시작일 30일 전부터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업무 성적에 따라 H-1B나 O와 같은 다른 취업비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 비교적 용이하다. 하지만, 참여한 인턴십이 종료되면 무조건 모국에서 2년 동안 거주해야 하는 조건("2년 본국 거주 조건") 이 있는 경우 조건해제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03. 취업비자 유의사항

미국 내 취업비자는 "비자취득 환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경제 상황 그리고 행정부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비자더라도 미국 경제 상황, 행정부 성격에 따라 이민국에서 더 혹은 덜 초점을 맞춰 심사하는 내용들이 있고, 이러한 양상은 계속 변화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양식이나 접수비 등 이민국의 행정적인 부분들이 바뀌고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비자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 H-1B의 경우, 숫자가 정해져

있고 최근 10년 동안 비자를 원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 추첨을 하고 있다. 이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월 이전에 고용이 확정되어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경우, 미국 구직활동의 시기를 잘 계획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추가적인 H-1B 규정들이 발표되었지만 일부 규정의 위법성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동 규정들은 법원의 판결 경과를 고려하여 많은 수정과 변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H-1B의 경우 "현재 유효한 규정"에 대해 구직자 스스로 수시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J-1의 경우, 비교적 취득이 쉽고 용이하나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2년 본국 거주 조건"이 있는 경우 따로 조건 해제 절차를 밟아야 다른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모든 비자는 발급 시 비자를 받을 지원자가 이전에 이민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점검한다. 따라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허용된 기간을 넘어서 체류하거나 취업비자 없이 일을 하여 이민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각 비자는 위에 언급되지 않은 세부 법규나 예외조항들이 있으므로 회사 내 HR 담당자나 법률전문가 등과 상의를 하여 비자 취득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

01. 미국 IT 채용트랜드

미국은 한국과 달리 공채보다는 상시 채용의 방식을 취한다. 미국 취업은 학부성적 외에도 다양한 인턴을 통한 업무 경험, 네트워킹을 통한 취업 활로를 넓히는 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특히 인턴 경험은 다음 단계를 준비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필히 준비해야 한다. 미국 내 취업을 위해서는 우선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회사는 이유나 설명 또는 경고 없이 언제든지 직원을 해고할 수 있고, 반대로 직원은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어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종업원 채용 시 스펙보다는 직무 관련 경험을 중요시하며, 일하는 중에도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직원 추천을 통해 지원한 검증된 구직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추천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고용으로도 많이 이어진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위해서는 LinkedIn 또는 캠퍼스 채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이 필요하다. 물론 IT 관련 분야의 경우 추천도 중요하지만 이력서 준비와 내실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소위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으로 분류되는 전공자의 경우 추천을 받으면 인터뷰 기회를 얻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도 기술, 코딩 시험 등의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인 실력이 없다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COVID-19로 인해 기록적인 대량 해고사태를 겪고 있지만 기술, 통신, 의료와 같은 부문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기업은 계속해서 대량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테크기업의 고용 확대로 인해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COVID-19 이후 테크기업을 중심으로 원격 근무와 비대면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기업이 원격 운영 구축에 능숙해지면 실리콘밸리처럼 한 곳에 밀집돼 있던 재능이 미국 전지로 분산된다면 경쟁력 있는 인력을 타 주에서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격 근무가 확대되면 채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의 규모와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구인 기업은 앞으로 기업의 위치나 혈통이 아닌 지원자의 능력을 기반으로 후보자를 원격 채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그리고 비대면 채용과 관련해서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AI 채용 솔루션, 화상 면접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채

용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는 추세다. 이 중에서도 AI 채용 솔루션은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있는 플랫폼이다. AI는 후보자의 이력서 데이터를 스캔해 주요 키워드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인터뷰 영상을 다각도로 평가한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는 사람이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인종, 성별,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는 상태로 지원자를 공평하게 채점할 수 있다.

02. 채용 절차별 미국 취업 TIP

채용공고 검색

채용정보는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flow)와 같은 IT 관련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며, 이 외에 채용포털이나 기업의 채용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미국의 경우 최대 IT 시장답게 대부분의 글로벌 채용포털이 미국 IT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구직자들이 이용하는 채용포털은 인디드, 몬스터, 글래스도어, 다이스, 커리어빌더, 드리블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추천에 의한 고용사례가 많기 때문에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소통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

[표 3-4] 미국 주요 채용포털 목록

포털명	웹사이트	특징
스택오버플로우	stackoverflow.com	IT부문 최대 글로벌 커뮤니티
인디드	indeed.com	글로벌 채용포털. 방대한 채용 정보 제공
몬스터	monster.com	글로벌 채용포털. 강력한 검색 엔진
글래스도어	glassdoor.com	글로벌 채용포털. 회사 평가 및 연봉 정보 공개
다이스	dice.com	글로벌 채용포털. IT를 포함한 기술 전문가에 특화
커리어빌더	careerbuilder.com	글로벌 채용포털. 이력서 기반 직업 추천 기능
드리블	dribbble.com	글로벌 채용포털. 웹디자인 관련 정보 공유

출처: 송기봉, IT 해외취업 가이드, 2016년, 한빛아카데미

서류전형 (1) : 이력서(resume) 작성 TIP

서류 전형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이력서, 커버레터, 포트폴리오, 추천서 등이 있다. 이력서는 모든 나라와 직종에서 채용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이력서는 지원자의 정보가 요약돼 있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대개 장문의 자기소개서보다 먼저 확인하는 서류로, 지원자가 과연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다른 분야와 달리 IT 관련 직종의 경우 이력서는 구직자의 능력을 설명하기보다는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채용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지원자의 이력서를 검토해야 하므로 되도록 1페이지 이내에 간략하게 핵심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업적을 나열하기보다는 요구되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이력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별로 작성 사례와 주의할 점 위주로 소개한다. 참고로 monster.com에서는 직종별로 이력서 예제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방법이나 주의사항 등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력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제시된 내용은 monster.com에 제시된 entry-level computer programmer의 resume sample을 이용하였다.

❶ 기본정보

한국과 달리 나이나 키와 같은 세세한 개인정보를 이력서에 요구하지 않는다. 보편적인 기본정보는 지원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링크드인 URL(선택), 포트폴리오 링크(선택) 등이다.

Gil-Dong Hong

Sometown, OH 43085 // (555) 555-5555
GDHomg@somedomain.com // LinkedIn URL // Portfolio Link

❷ 지원하는 포지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력서를 작성할 때 채용공고 상 직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포지션에서 자신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ENTRY-LEVEL COMPUTER PROGRAMMER

- Honors student of ABC University's BS in IT program. Academic credentials are reinforced by programming experience gained during internship with ABC company.
- Consistently commended by professors and internship supervisor for programming abilities, grasp of multiple technologies and attention to detail.
- Strong knowledge of object-oriented programing and application development tools using Microsoft VB.Net, C#, .Net, C++, ASP.Net; Python and VBA.
- Known as a self-starter, team player and multitasker--strive to consistently exceed expectations.

❸ 보유 스킬 요약

심사자의 입장에서는 채용하는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스킬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 스킬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보유 스킬은 우선 채용공고에 제시된 필수 스킬을 상단에 배치하고, 필수 기술은 아니지만 선호하는 기술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스킬을 이어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각각의 기술을 나열하기보다는 종류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카테고리에 묶어서 제시한다. 또한, 면접 시 면접관들은 이력서에 제시된 스킬에 대해 지원자가 모두 익숙하다고 생각하여 실제 역량을 벗어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시한 스킬에 따라 자신의 숙련도를 함께 표시(예: C++ proficient)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Technology Summary

- Programming/Languages: VB.Net; C#; .Net; C; C++; ASP.Net; Python, VBA, Java, Visual Basic; SharePoint; PHP; MySQL; HTML; Ant
- Database Management: Oracle RDBMS, SQL Server, MS Access
- Design & IDE Tools: Rational Rose, UML, WSAD, Oracle WebLogic Server
- Systems: Windows Server 2016, Linux/Unix, Mac OS X

❹ 학력 사항

학력 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최근 학력을 상단에 배치하고, 학위 기간 중 수상 실적이나 참여 프로젝트, 관련 주요 교과목 등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대학 졸업 예정자나 초급 전문가의 경우에는 학점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일 학위 기간 중 참여한 프로젝트

실적이 유의미하다면 학력이 아닌 경력 사항에 별도의 카테고리로 만들어 보여주는 것도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ducation

- ABC UNIVERSITY — Sometown, NH
- Bachelor of Science, Major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gram, GPA: 3.85/4.0
- Honors: Golden Key Honor Society; John Doe Academic Scholarship; Dean's List (all semesters)
- Senior Project: Earned "A" grade on capstone project as co-developer of Web-based, customized enterprise software solution that integrated business processes for a nonprofit organization. Delivered turnkey application that reduced manual data entry, saving hundreds of personnel hours monthly.
- Course Highlights: Enterprise Application Development, Security, Java/C/VB Programming, IT Project Management, Database Programming, Web Design, Computer Architecture

❺ 경력 사항

경력 사항을 기술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성과와 지신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이다. 경력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지금까지 일한 경력을 모두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력을 통해 이룩한 업적이나 성과에 대해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 경험을 분석하여 웹페이지 구성을 바꾼 결과 재접속률이 20% 증가하였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수치화하여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초년생의 입장에서는 마땅한 경력 사항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학위 기간 중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인턴십, 관련 동아리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경력으로 쌓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Internship

ABC Company — Sometown, NH
Computer Programmer Intern, 2016 to Present
Selected for competitive internship program out of more than 150 applicants. Selected accomplishments:

- Handled database and Web site programming tasks (primarily using Java, C, C++, HTML and SharePoint), working an average of 20 hours per week while maintaining a 3.85 GPA.
- Redesigned Internet and intranet pages. Used SEO best practices to optimize Web site for search engine rankings and improved functionality of company database.
- Resolved memory corruption and other technical issues by leveraging strengths in coding, debugging and integration testing

Volunteer Work

Volunteered during summers for Habitat for Humanity and ABC Homeless Shelter.

❻ 기타 사항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이력서에 별도 항목으로 하여 자격증명, 발급 기관, 발급 연도 순으로 제시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마다 자격증 제도가 달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하는 국가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상 및 기타 성취 항목도 직무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기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학금 수혜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모전 및 대회 수상 이력 등을 수상 내용, 수여 기관, 수상 연도 순으로 기재하면 된다.

[표 3-5] 이력서 작성 기본 유의사항

룩앤필(look & feel)	볼드, 이탤릭체, 대문자, 불릿 등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강조점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나타낸다.
에러 프리	철자나 문법에 오류가 있으면 안된다.
용어 선택	약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인지 확인하고, 은어나 속나, 금기어 등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레이아웃	이력서의 내용과 여백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내용이 너무 빽빽하거나 여백이 너무 많으면 작성자의 문서 작성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독성	글자 크기, 자산 및 줄 간격이 읽기에 편해야 하며, 이력서 전반에 걸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내용 일관성	경력 목표, 업무 경력, 기타 성과 등 이력서 전반의 내용이 일관되어야 한다.

출처: 송기봉, IT 해외취업 가이드, 2016년, 한빛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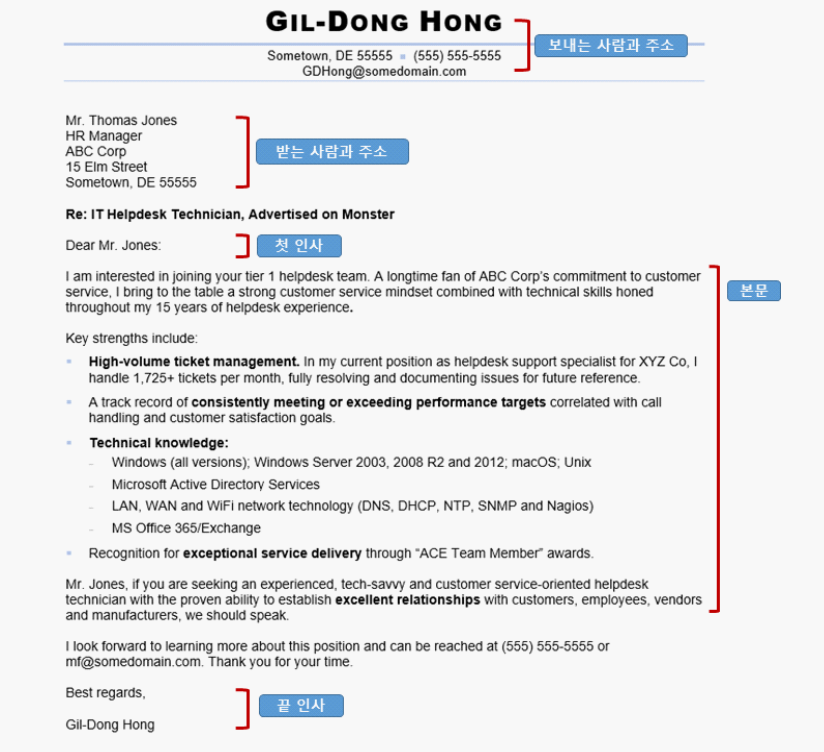
서류전형 (2) : 커버레터(cover letter) 작성 TIP

커버레터는 회사에 따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는 커버레터를 필수 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역량에 대해 이미 기술한 바 있지만 커버레터에는 이력서에 기술한 객관적인 정보 외에 부각하고 싶은 내용들을 두드러지게 드러낼 수 있다. 대학 졸업자나 초년생의 경우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쓸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담기보다는 1페이지 정도로 핵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커버레터는 보내는 사람인 지원자의 이름과 주소에서 시작하고, 다음으로 받는 사람인 채용 심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넣는다. 다음으로 받는 사람에 대한 인사말을 적는데, ‘Dear Mr.’ 혹은 ‘Dear Madam’ 등으로 적어도 되지만 심사자의 직위와 이름을 안다면 이를 커버레터 본문 앞에 명시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본문의 경우 채용 공

고의 내용과 회사에 대해 잘 살펴서 적어야 하는데, 회사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표현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면 된다. 특히 회사의 최신 보도 자료, 언론 보도 및 소셜 미디어 활동을 체크하여 커버레터에 언급하면 좋다. 이어서 지원하는 포지션에서 하게 될 일과 관련된 이전의 경험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강조하여 기술한다. 채용 공고에 필수 스킬 외에 성격이나 성향 등에 대해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과 합치되는 부분을 강조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지원 동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적어야 하는데, 특히 초년생의 경우에는 일에 대한 열정과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될 성장의 기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말로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5] 커버레터 작성 샘플



GIL-DONG HONG

Sometown, DE 55555 ▪ (555) 555-5555
GDHong@somedomain.com

보내는 사람과 주소

Mr. Thomas Jones
HR Manager
ABC Corp
15 Elm Street
Sometown, DE 55555

받는 사람과 주소

Re: IT Helpdesk Technician, Advertised on Monster

Dear Mr. Jones:

첫 인사

I am interested in joining your tier 1 helpdesk team. A longtime fan of ABC Corp's commitment to customer service, I bring to the table a strong customer service mindset combined with technical skills honed throughout my 15 years of helpdesk experience.

본문

Key strengths include:

- **High-volume ticket management.** In my current position as helpdesk support specialist for XYZ Co, I handle 1,725+ tickets per month, fully resolving and documenting issues for future reference.
- A track record of **consistently meeting or exceeding performance targets** correlated with call handling and customer satisfaction goals.
- **Technical knowledge:**
  - Windows (all versions); Windows Server 2003, 2008 R2 and 2012; macOS; Unix
  - Microsoft Active Directory Services
  - LAN, WAN and WiFi network technology (DNS, DHCP, NTP, SNMP and Nagios)
  - MS Office 365/Exchange
- Recognition for **exceptional service delivery** through "ACE Team Member" awards.

Mr. Jones, if you are seeking an experienced, tech-savvy and customer service-oriented helpdesk technician with the proven ability to establish **excellent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employees, vendors and manufacturers, we should speak.

I look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this position and can be reached at (555) 555-5555 or mf@somedomain.com. Thank you for your time.

Best regards,

Gil-Dong Hong

끝 인사

출처: monster.com

면접 전형 TIP

IT 부문의 경우 면접을 준비할 때 참고할 만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용 과정에서 보통 HR팀과의 사전 면접 외에 실무팀과의 기술 면접과 1~2번의 추가 면접을 더 거치게 된다. HR팀과의 사전 면접은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과 회사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라면, 기술 면접은 지원자의 IT 역량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개발자의 경우 어떻게 버그와 프로그래밍 습관을 고치면서 제품이 기능을 발휘하게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❶ 사전 면접

채용회사는 이력서를 바탕으로 사전 면접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사전 면접에서는 이력서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사전 면접을 통해 HR팀에서는 지원자가 회사의 구성원과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의사소통 능력은 충분한지, 지원자의 업무 태도나 성향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❷ 기술 면접

기술 면접은 지원자의 업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룬다. 이때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둔 솔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변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질문 내용 중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생소한 발음으로 인해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자신의 역량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애매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면접관에게 다시 물어 확실하게 질문을 알고 답변할 필요가 있다. 기술 면접 말미에는 질문의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 궁금증이 없다고 답변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려우므로 회사나 포지션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질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무팀과의 기술 면접 시 연봉이나 처우 같은 내용에 대한 질문은 피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주요 채용포털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각 직종별 예상 면접 질문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미리 살펴보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구성해 보는 것이 좋다. 일례로 개발자가 면접 때 받게 될 일반적인 질문과 행간을 고려한 답변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Common interview questions for developers”, By Aoife Geary & Hannah Williams, computerworld.com, Apr 28, 2020

1. What development methodology are you most familiar with?
면접관은 당신이 조직과 환경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알고자 당신이 가장 익숙한 개발방법에 대한 질문을 한다. 당신의 예전 경험이나 경력에 근거해서, 관련 예를 들어 특정 방법을 사용해야 했던 상황과 프로세스가 어떻게 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밝힌다.

2. Tell us about a tough software development problem you encountered & how you solved it
이 질문은 면접관이 지원자의 문제해결 스킬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자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전시하듯 보여줌으로써 문제가 닥쳤을 때 당신이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때 가장 근래의 타당한 예를 듦으로써 면접관이 당신의 최신 스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What is your process to test and find bugs in an application?
모든 지원자들이 서로 다른 방법을 갖고 있을 것이므로, 자신만의 보안버그를 찾아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4. What excites you most about coding?
얼핏 보면 직설적인 질문 같지만, 개발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HR 관리자는 개발에 대한 열정과 흥분을 표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고용하고 싶어 하므로, 당신이 즐기는 일의 요소를 논의할 때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전달하라.

5. Tell us about a project you worked on that you’re proud of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여전히 관련이 있고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큰 현재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코딩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프로젝트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치를 추가하고 다른 팀 구성원을 도왔던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면접관에게는 당신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은 덜 중요하다. 면접관은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신이 일하는 방식과 팀의 일원이 되어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6. Describe a project that you worked on that you’re not so proud of
이 질문은 의도는 미래의 고용주에게 당신이 팀의 업무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이는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좋은 지표며 미래의 직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태도다.

7. What source control do you use?
구축 단계에서 코드를 관리하며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저장하기 위해 팀에서 작업할 때 소스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 즉, 여러 사람이 코딩하고 뭔가 잘못됐을 경우 안정된 버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 질문은 코딩의 나쁜 습관과 팀 내에서의 경험을 확인하는 것이다.

8. What’s your favourite feature of the product?
당신이 면접 보는 회사가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면, 당신이 해당 제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면접관은 당신이 지원하는 회사를 알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후보자는 제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통찰력과 이러한 기능을 구현하는 데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까지도 강조할 수 있다.

9. How do you ensure you’re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non-technical colleagues?
이 질문의 의도는 당신이 IT가 아닌 다른 팀과 함께 생산적이고 협업적인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좀더 원만해 보이는 방식을 추가하기만 했는지에 면접관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 IT직원에게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를 보고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나타내는 특정 프로젝트나 워크플로우에 관해 이야기하라.

10. What passion projects are you working on?
채용 담당자는 꾸준히 자기 계발하는 개발자를 찾고 있다. 업무 외 이야기는 전문적인 경험 이외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다. 잠재적인 고용주에서 당신의 열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기도 하다.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가 일인 척할 필요는 없다. 돈을 넘어 프로젝트에 대한 균형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11. Why do you want to work at this company?
간단명료한 질문이다. 다른 후보자보다 눈에 띄기를 원한다면 제품의 특정 기능을 참조하고 자신의 기술이 역할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라. 직무에는 기술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다. 왜 당신이 문화와 양립할 수 있는지, 왜 회사의 사명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팀 내에서 어떻게 일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하라. 당신이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면, 면접관에게 ‘당신이 원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줘라.

12. Describe your ideal development environment
최선을 다해 일하는 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자유롭게 코딩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개방형 사무실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워크플로우에 가장 적합한 작업 환경을 고려하라. 당신은 두 사람이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페어 프로그래밍(pair programming)을 좋아하나? 아니면 이를 도전으로 생각하나? 다기능 팀에서 어떻게 일하나? 코드를 테스트 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나? 동료가 당신의 코드를 검토하는 게 괜찮은가? 동료와 의사소통할 때 직접 말하나? 아니면 메시징 앱이나 구글 행아웃으로 하나?

13. Any questions for us?
이 질문은 대개 면접이 끝날 때 나온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질문이다. 면접관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고 직무 내용 이외의 역할에 대한 세부 정보를 구하면 된다. 각 부서의 기능, 경영 구조, 프로젝트 진행 기회, 사회 문화적 요소, 워크플로우에 대해 질문해 팀에 관심을 보여라.

❸ 심층 면접 및 테스트

회사에 따라 기술 면접만으로 채용이 완료되기도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추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 면접과 마찬가지로 심층 면접도 지원자의 실무 지식이나 스킬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내용상으로는 기술 면접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최종적인 채용 과정임에 따라 지원자의 다양한 면을 평가하기 위해 실무팀뿐만 아니라 유관부서의 여러 면접관이 참여하여 지원자를 평가한다. 또한 심층 면접 중 혹은 이후에 실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즉석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래머의 경우 지원자에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도구를 이용하여 코딩해 볼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웹디자인 지원자에게는 임의의 디자인을 주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하며,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지원자의 대응 능력을 판단하기도 한다.

☰ [표 3-6] 비대면면접 전형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시간조율	기업과 사전에 시간을 조율할 때 면접 시간대 전후 여유시간을 충분히 설정
면접 플랫폼	Skype, Zoom, Google Hangout, WebEX, Facetime, Whatsapp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되므로, 면접 시 사용할 플랫폼이 정해질 경우 면접 당일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플랫폼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함.
조명 및 배경화면	조명이 너무 어둡거나 밝으면 인사담당자가 지원자를 제대로 볼 수 없으므로 적당한 조명을 확보하고, 배경화면은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과도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최대한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충분한 준비	대면면접과 동일하게 사전에 예상 질문리스트를 만들어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면접 시 화상이라는 이유로 출력한 대본을 읽는 것은 지양해야 함. 독일에서는 최근 들어 소위 '화상 피칭'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서 제공받은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스톱워치를 이용해 지인과 함께 반드시 사전 연습을 하고 실전에 임해야 함.
기타	인터넷이 안정적인지 확인하고 화상면접도 결국 대면면접과 같다는 마음가짐으로 복장 역시 대면 면접과 똑같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함. 또한 화상면접으로 물리적 제약이 수반되지만 미소를 유지하고 상황에 적절한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인사담당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출처: Stepstone, KOTRA 푸랑크푸르트 및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미국의 대표 IT 전문 채용포털인 Dice.com에서 주요 IT 직종에 대해 채용공고를 검색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학사 이상의 관련 전공자이면서 3년~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entry 또는 junior 레벨의 채용공고 중심으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3-7]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Apex Systems	Atlanta, GA	모집분야	Junior Software Developer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컴퓨터 공학	
			경 력	인턴십, 또는 1년 이상 DevOps 경험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Java programming 현장 경험	

출처: Dice.com

[표 3-8]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Synergistic IT	Fremont, CA	모집분야	Junior Developer (Entry Level)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전공	
			경 력	무관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Java, CSS, HTML, Python, Hadoop, AWS에 대한 기본 지식 Jav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출처: Dice.com

[표 3-9] 정보시스템 운영자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Booz Allen Hamilton	Laurel, MD	모집분야	Junior System Administrator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전공	
			경 력	2년 이상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Perl, Python, 또는 Ruby 경험자 운영체제(Windows, Linux, or UNIX) 경험자	

출처: Dice.com

[표 3-10] 웹디자이너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Goucher College	Baltimore, MD	모집분야	Web Designer / Developer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그래픽디자인, 웹디자인 또는 관련 전공	
			경 력	2년 이상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HTML/CSS/Javascript 숙련자 디자인 프로그램(Photoshop, Illustrator, and InDesign) 경험자 UI/UX 및 information architecture 명령문	

출처: Dice.com

01. 국가 기본 정보

[표3-11] 일본 국가 정보

국명	일본(Japan)
위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 섬으로 구성
면적	377,975.21㎢ (자료원 : 총무성, 2019 기준)
기후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길이가 3,300km로 지역별 기후 차이가 심함.
수도	도쿄(東京) / TOKYO
인구	1억 2,562만 명 (일본 통계청, '인구 추정치', 2021. 2. 22. 발표)
환율	US$ 1 = 105.25엔 (변동환율, 2021년 2월기준)
민족	대화족(大和族 : 야마토족) 99% 이상, 기타(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
언어	일본어
종교	신도 46.9%, 불교 42.6%, 기독교 2.6%, 기타 7.9%
시차	GMT + 9
건국(독립)일	2월 11일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일왕 : 나루히토(德仁) 내각총리대신 : 스가 요시히데(菅 義偉)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일본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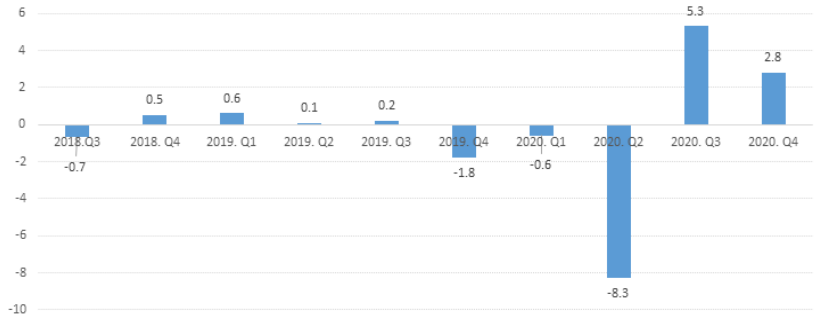
02. 일본 경제동향

일본은 제조업에서의 강점을 기반으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견조한 경제성장을 보이는 국가이지만,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수출의 감소,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성장률은 지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2019년 일본 GDP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로 인해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0년에 들어서는 COVID-19 영향으로 인해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소비세 인상 여파와 2020년 초 COVID-19 발발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무역감소 등으로 인해 전 분기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특히 2

분기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8.3% 감소하여 전후 시기인 1955년 이래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1차 및 2차 경제대책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전국민 현금지급 및 고용유지 지원 등으로 가계소비가 반등하면서 2020년 3분기 실질 GDP는 COVID-19 사태 전과 비교하여 96%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설비투자는 수요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재화수출은 양호하나 외국인 방문객 급감으로 서비스수출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0년 말 현재 예측기관들은 일본의 2021년 경제성장률은 2.5% 내외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경우 서비스소비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3-6]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Cabinet Office). 2021년 2월말 기준

03. 일본 산업동향

일본 산업현황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산업별 GDP 비중은 1차 산업이 1.2%, 2차 산업이 26.6%, 3차 산업이 72.2%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10년

[표 3-12] 일본의 산업별 구성비율(GDP, 기업 수, 매출액, 종사자 수)

구분		GDP (단위: 십억엔)	기업 수 (단위: 천개)	종사자수 (단위: 천명)	매출액 (단위: 십억엔)
전체 규모		544,747	3,856.5	66,640	1,624,714
1차산업	농림수산업	1.2%	0.7%	3.4%	0.3%
2차산업	광업	0.1%	0.0%	0.0%	0.1%
	건설업	5.8%	11.2%	7.5%	6.7%
	제조업	20.7%	10.0%	15.9%	24.4%
3차산업	유틸리티	2.6%	0.0%	0.4%	1.6%
	정보통신업	5.0%	1.1%	3.3%	3.7%
	운송/우편	5.1%	1.8%	5.1%	4.0%
	도소매업	13.9%	21.8%	16.1%	30.8%
	금융보험	4.1%	0.8%	2.4%	7.7%
	부동산/상품임대업	11.3%	7.9%	2.0%	2.8%
	학술/전문기술서비스	7.4%	4.9%	3.6%	2.6%
	숙박/음식업	2.5%	13.3%	6.2%	1.6%
	교육	3.6%	3.0%	4.8%	0.9%
	보건복지	7.0%	7.6%	12.5%	6.9%
	기타	9.1%	15.9%	14.6%	13.0%

출처: 일본 통계청,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20」

간 일본의 산업구조는 큰 변동 없이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 서비스산업의 큰 특징으로는 외국인 관광산업의 성장, 의료 및 간호서비스 산업의 확대, 인력 절감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등 외국인 관광산업 육성정책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만 COVID-19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고령화로 인해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만성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서비스 기업들이 로봇이나 AI 등을 활용하는 인력 절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COVID-19의 확산으로 서비스산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력 절감 기술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촉진하여 관련 기업의 구조개편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기조는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들에서도 생산구조재편이나 신기술 도입 확대 등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업종별 GDP 비중은 제조업이 20.8%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13.9%), 부동산/상품임대업(1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전체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기업 수 및 종사자 수는 각각 385.6만개와 6,664만명 정도인데, 제조업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수와 종사자 수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IT산업 현황

일본의 IT업계는 경제산업성의 기준에 따르면 정보서비스업(① 소프트웨어업, ②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③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일본은 2019년 IT 경쟁력 순위 12위, 특허출원 수 3위, 소프트파워 순위 8위 등 IT 부문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이다.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과 같은 IT 부문을 성장전략의 주요 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은 일본 내각부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Society 5.0이라는 '초 스마트사회'를 바탕으로, 내각부 산하 미래투자회의가 매년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에 구체화되고 있다. 단, Society 5.0과 관련된 정책의 중점 분야는 매년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2017년도 성장전략에서는 건강·의료·간병, 스마트모빌리티, 서플라이체인, 스마트인프라, 핀테크 분야가 중점 분야로 선정되었고, 2018년도 성장전략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분야가 선정되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신산업·신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 오픈 플랫폼으로 신뢰성이 높은 공공 Data(지리 공간정보, 방재정보, 각종 통계정보 등)를 제공하여 이를 민간에서 보유한 각종 Data와 연동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 의료, 간호, 건강, 에너지, 방재 등 다분야에서 IT를 이용해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One Stop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사회를 클라우드 기술로 실현하는 것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내 ICT 투자는 1990년대 후반 일시적으로 성장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투자에 적극적인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으며, 투자비율은 '90년도 후반에는 하드웨어 투자가 70%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본 IT업계는 그룹계, 독립계, 외국계로 분류되는데, 주요 FUJITSU, HITACHI, SHIN-

NITTETSU, NEC, ITOCHU 등의 그룹계 기업이 일본 IT 업계 매출액 순위에서 최상위에 포진하고 있다. 최근 일본 SW산업의 현황에 따르면 패키지SW와 인터넷SW를 중심으로 매출 규모와 고용인원 모두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 3-13] 일본 IT산업 현황(단위: 억 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소프트웨어업	143,745	148,401	186,070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76,658	72,888	52,063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17,424	19,792	34,824
합계	237,827	241,080	272,958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1년 1월

04. 일본 고용시장

고용시장 현황

일본은 비자발적 실업의 감소, 청년실업 완화, 내수 관련 산업 중심의 지속적인 고용수요 창출 등으로 인해 OECD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유지해 왔으나, COVID-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2020년 일본의 고용시장 또한 크게 위축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일본 전체 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2019년에 비해 0.7%p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숙박/음식업과 생활편의/오락업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의 경우 COVID-19로 인해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실업률이 높아지고 유효구인배율이 급감하는 등 2020년 일본의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2019년에 비해 0.4%p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오던 유효구인배율도 2019년 1.60배에서 대폭 하락해 2020년에는 1.18으로 집계되었다. 일본의 실업률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 원인이 불황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실업률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COVID-19가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고용지표가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림 3-7] 일본 실업률 추이(단위: %)

출처: 일본 통계청, Labour Force Survey(2020년 12월)

한편, COVID-19는 여성의 실업 증가, 휴직자 증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취소 등 고용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재택근무 확대와 같은 근로환경과 비대면 채용방식 등 고용시장 전반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COVID-19로 인해 새롭게 주목받는 업종과 직업이 거론되고 있으나 COVID-19는 대체로 경제 전분야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도 고용지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부담할 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해 주는 '고용조정조성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지역경제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쿄도의 '텔레워크 정착 촉진 조성금 제도'나 오사카부의 '비정규직 고용 지원금 제도', 후쿠오카현의 '코로나19 긴급단기고용 창출사업' 등이 그 예이다.

일본 IT 부문 고용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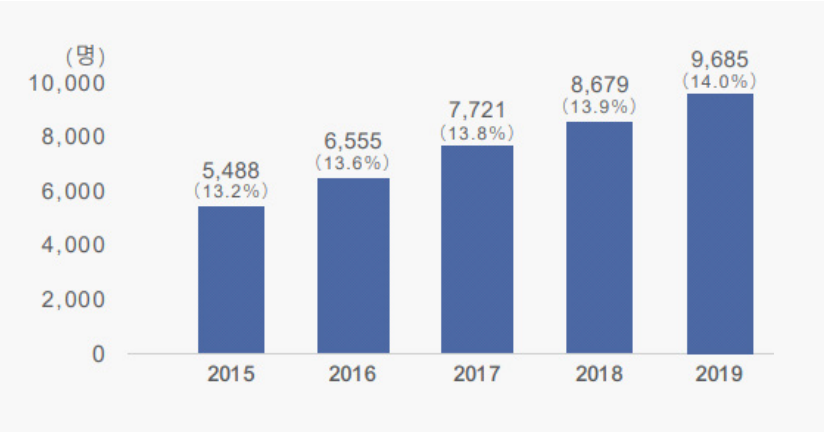
IT 부문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의 하나로 일본의 경우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동 부문의 일자리 또한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 IT 부문의 유효구인배율은 2.28배로 모든 직업의 평균 유효구인배율 1.48배를 크게 웃돌고 있어 IT 인재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다. 2019년 현재 일본 내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 기업 수는 3,550여 개이고, 종업원 수는 110만명을 상회한다. 또한 지난 3년간 소프트웨어업과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4] 일본 IT산업 고용인원 현황(단위: 천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소프트웨어업	701	708	822
정보처리·제공 서비스업	325	311	226
인터넷 부수 서비스업	55	59	110
합계	1,081	1,078	1,159

출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2021년 1월

[그림 3-8] 일본 IT 부문 한국인 취업자 수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임금수준

일반적으로 일본의 임금은 매월 정기 지급되는 '월례임금(월급)'과 특별 지급되는 '특별임금'으로 구분된다. '월례임금'이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내 임금(기본급+제수당)'과 초과근무 등에 대한 '소정외 임금'으로 구분된다. 월례임금에 포함되는 제수당은 종류가 많고 회사마다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책수당과 가족수당, 주택수당이 기본이 되고 필요에 따라 소수로 채택하고 있다. '특별임금'에는 상여금과 퇴직수당(퇴직금)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매년 직장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취업대상 회사의 임금 수준을 알 수 있다.

[표 3-15] 2019년 주요산업별, 학력별 월례임금 초임 수준(단위: 천엔)

구분	남성				여성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대학원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전체 산업	239.0	212.8	184.7	168.9	238.3	206.9	183.4	164.6
건설업	245.7	218.2	191.7	177.0	241.6	211.2	181.5	167.2
제조업	236.0	207.7	184.9	167.3	234.3	204.4	180.0	164.2
정보통신업	243.9	218.3	190.5	169.6	244.3	217.8	189.2	172.7
운수업/우편업	231.0	203.4	178.3	167.5	230.2	199.1	174.6	165.4
도매/소매업	236.2	213.8	181.2	170.7	233.9	207.0	179.4	166.2
금융업/보험업	246.1	213.9	190.8	165.8	249.7	201.7	167.6	158.0
학술연구/기술업	243.6	229.0	183.7	167.6	252.2	223.8	174.5	166.7
숙박/음식업	215.7	203.7	176.0	169.7	169.6	199.0	176.7	166.7
교육/학습지원업	244.4	215.3	183.1	170.1	237.8	206.7	183.1	163.5
의료복지	209.9	204.0	192.7	167.2	209.0	208.1	188.8	164.6
서비스업(기타)	229.2	204.9	180.1	167.8	229.8	205.9	171.9	166.3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임금구조 기본통계(2021년 1월 29일 공표)」

01. 개요

비자(사증)

비자는 일본 입국 시에 필요한 것인 반면 재류자격은 일본에 입국한 후 체류를 위해 필요한 자격이다. 일본 입국 시 단기 체재(90일 이내)에 대해서는 비자면제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취업으로 장기 체재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비자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재외 일본 공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데 장기 체재를 위한 비자의 경우 재외 일본 공관에서는 일본 현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대부분의 경우 일본입국관리국에서 일본에 입국 및 체재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행하는 활동이 각각의 비자 조건에 적합한지를 미리 심사하고, 그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는 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재외 일본 공관에 제시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입국 및 체재 조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입국 시 상륙심사도 간소화된다.

02.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일본의 취업비자는 공용(외국정부 등의 공무에 종사하는 분과 그 가족)이나 보도(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법률・회계업무(변호사나 공인회계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실습(일본에서 일을 배우면서 보수를 받는 기능실습생) 등,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17개의 자격으로 나눠진다. 모든 직업이 취업 비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청소나 공장근무 등 단순 노동의 일이나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은 취업 비자 취득이 어렵다. 본서에서는 일본에 취업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에 대해 살펴본다. 동 비자는 2014년까지 기술 비자와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로 나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체크포인트

1. 일본에서 일하려면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데, IT 인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재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그 취득 요건으로 학력·경력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일본 비자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발급 안내를 참조하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된다(https://www.kr.emb-japan.go.jp/visa/visa_ryoji.html).
3. 일본 취업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완전정복(일본편)을 참조하자. (링크: https://www.worldjob.or.kr/ebook/2020/jpn/assets/shared/ebook_JPN.pdf).

활동 내용

일본의 공적 또는 사적 기관과의 계약에 의거하여 행하는 인문과학 분야(인문계 분야이며 사회과학 분야도 포함)와 이공계 분야(이학, 공학,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또는 외국 문화에 기반을 가진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

주요 발급 조건

1. 학력 및 전공 관련 조건(어느 하나에 해당)
   - 종사하고자 하는 업무에 필요한 기술 혹은 지식과 관련된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
   - 일본의 전수학교 전문 과정을 수료(해당 수료에 관해 법무대신 고시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함)
   - 종사하려는 업무에 관하여 10년 이상(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해당 기술 또는 지식에 관한 과목을 전공한 기간을 포함)의 실무경험에 의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을 것
   - 단, 정보처리에 관한 기술 또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대신 고시로 정한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자격을 갖고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외국문화에 기반을 지닌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가 번역, 통역, 어학지도, 홍보, 선전 또는 해외거래업무, 복식 또는 실내장식에 관한 디자인, 상품개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이며,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을 것. 단,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실무경험 불필요
3.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 액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특히 IT 인재의 경우 특례(법무대신이 고시로 결정하는 IT 시험 및 자격)로 일본의 정보처리기술자 시험 및 상호 인증을 받은 경우 학력 요건과 경력 요건을 대신할 수 있

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하는 자격 중 정보처리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상호 인증을 받은 시험에 해당하므로 일본에서 IT 부문으로 취업을 하려면 동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03.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절차

취업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

취업하게 되는 회사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회사의 요청에 충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자가 준비하는 필요서류가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본어로 번역공증이 필요하다. 또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서류상 본인이름(영문 스펠링)이 여권의 영문 스펠링과 동일해야 한다. 취업비자 심사 시 취업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내용을 포함한 취업이유서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비자 신청 및 발급의 절차

기본적으로는 입사를 예정하고 있는 기업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의 교부 신청을 하고, 교부 받은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내정자에게 우송해 준다. 내정자는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았으면 이를 첨부하여 가까운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재류자격을 신청할 때는 취업 예정인 기업과 자세하게 상의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① 취업하게 되는 일본 측 회사가 내정서 발급
② 지원자(취업자)가 내정 수락 의사표명 또는 사인
③ 회사가 지원자에게 비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안내
④ 지원자가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회사로 우편 발송
⑤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원자의 서류와 함께 출입국관리국에 비자 신청
⑥ 출입국관리국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하여 회사로 우편 발송(소요기간 1~2달)
⑦ 회사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지원자에게 우편 발송
⑧ 지원자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수령 후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취업비자 발급 요청
⑨ 취업비자 수령 후 일본으로 출국

출처: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취업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취업비자의 경우 일본 측 회사가 일본의 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하고 그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비자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하게 되는 활동에 대한 체류자격의 해당성 및 기준적합성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입국심사의 신속화와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 기간 내에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① 여권 :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존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국 시 체류예정기간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을 권장
② 비자발급 신청서 : 일본 대사관 영사부에 비치 또는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
③ 사진 1매 : 칼라, 상반신, 4.5×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④ 주민등록증(양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 원본 및 양면 복사. 원본은 사증 발급 후 여권에 붙여서 반환

출처: 주 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

01. 일본 IT 채용트랜드

2000년대 초반 IT 인력 양성에 소홀했던 일본은 최근 심각한 IT 인력 부족현상에 고심하고 있는데 자국의 인력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우수한 해외 고급 인력을 스카우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우수한 해외 IT 인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성실하고 문화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 인력들이 일본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한일 IT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으로 한국의 자격 취득자(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컴퓨터 분야 비전공자라도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취업이 가능하다. 인력 수요 측면에서는 최근 도입된 마이넘버 제도와 2021년 도쿄올림픽 개최(2020년에서 잠정 연기)에 따라 당분간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당 기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 IT 기술의 보급에 근거하여 AI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의 AI 관련 직종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IT 활약의 장소는 더욱 넓어지고 있고, IT 이외의 업종에서도 IT를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T 인재에 대한 수요가 많다. 이러한 기업에서는 IT 인재의 인원 수가 만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IT 전반에 걸친 업무가 맡겨지는 경우도 있어 IT를 활용하여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IT기업은 한국계 기업과 일본계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본계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원교육에 힘쓰는 경향이 있고, 한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우 초봉이 일본계 기업보다 높거나 기숙사 지원 등 사원 복지에 보다 우호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한국계 기업이든 일본계 기업이든 IT 분야의 경우는 업무의 특성상 무엇보다 기술과 실력이 우선시되므로 정보처리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양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경험과 실력을 쌓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실력과 아울러 회사 내에서 좀 더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관건이다. 일본어능력시험 자격증 유무와는 별개로 일본어 회화 실력이나 전공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객과 직접 면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은 물론 정중한 일본어도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SE(시스템엔지니어)의 경우 고객의 목적과 희망을 파악해서 시스템을 설계

하므로 경청능력과 제안능력 등 보통 이상의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02. 채용 절차별 일본 취업 TIP

IT 부문의 경우 국가별로 채용 절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내용도 국가별로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채용 절차별 취업 TIP에 대해서는 III장의 '1. 미국'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서는 일본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기술하였다.

일자리 찾기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는 주요 방법은 구인사이트 응모, 이직 에이전트를 통한 구인 소개, 잡 페어 등 이벤트 참가, 인턴십 참가 등이 있다. 각 방법별 장단점이 명확한 편이므로 구직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림 3-9] 일본에서 일자리 찾는 방법별 장단점

①구인 사이트	②이직 에이전트	③이벤트 참가	④인턴 참가
[이점] • 구인수가 많다.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다 • 자신의 페이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결점] • 응모나 필요 서류 작성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한다 • 구인수가 많아 원하는 구인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실시 주체] • 구인 광고 대리점	[이점] • 응모나 필요 서류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업계 사정을 알려 준다 • 비공개 구인을 소개해 주는경우가 있다 [결점] • 담당자와 밀접하게 연락을 나눌 필요가 있다 • 학력과 경력에 따라 응모 기업의 폭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다 [실시 주체] • 인재 소개 회사	[이점] • 그 자리에서 최종 면접 또는 내정까지 진행할 수 있다 • 직접 기업의 매력과 업무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직장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다 [결점] • 이벤트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 • 이벤트 장소까지 가야 한다 [실시 주체] • 구인 광고 대리점 • 인재 소개 회사 • 경제산업성	[이점] • 취업 전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 취업 전에 일본에서 일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고 또한 일본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 입사 후의 직무적성의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다 [결점] • 경험할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인 경우가 있다 [실시 주체] • 인턴 알선 기업 • 경제산업성

출처: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에서 IT 인재로 일한다는 것'

일본의 경우 글로벌 채용포털보다는 현지 구인사이트가 보다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고려한다면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를 중심으로 채용공고를 검색하는 편이 낫다. 신업 채용 정보사이트는 리쿠나비와 마이나비가 가장 유명하고, 경력자들의 이직을 위한 구인사이트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DODA, 리쿠나비NEXT, 마이나비 텐쇼쿠 등이 있다.

[표 3-16] 일본 주요 구인사이트 목록

포털명	웹사이트	특징
리쿠나비	job.rikunabi.com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
마이나비	job.mynavi.jp	일본 대표 구인사이트
DODA	doda.jp	경력/이직 전문 사이트
리쿠나비NEXT	next.rikunabi.com	경력/이직 전문 사이트
마이나비텐쇼쿠	tenshoku.mynavi.jp	경력/이직 전문 사이트
그린텐쇼쿠	green-japan.com	일본 IT 부문 경력/이직 전문 구인사이트

서류전형 및 지원

일본에서 채용기업에 지원 시 입사지원서인 엔트리시트(entry sheet,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엔트리는 각 기업의 자료와 정보를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엔트리를 하면 그 기업의 채용정보와 기업정보, 설명회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엔트리 방법은 회사마다 상이한데, 채용기업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채용포털에 엔트리를 일괄 등록하여 입사지원할 수도 있다. 엔트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기업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엔트리시트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채용에 정식으로 지원한 것이 된다. 일본 취업을 검토할 때는 먼저 구인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구인표에는 기업의 개요와 모집 중인 직종의 업무 내용, 처우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일본 업체는 사무분장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내용에 유연성이 있는 경우(간혹 IT로 지원했으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가 많다.

일문 이력서 작성 TIP>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의 '해외취업가이드'에 해외취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일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팁도 제시되고 있으니 참고해보자.
(링크: https://www.worldjob.or.kr/abGuide/engResume.do?menuId=1000005224).

면접 전형

일반적인 면접 흐름은 채용 담당자 ⇒ 인사 담당자 ⇒ 임원 및 경영자의 순서로 면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용 이벤트에서는 당일에 최종 면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기업에 따라서는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면접은 대부분 대면으로 실시된다. 대면면접 시에는 복장이나 답변하는 자세를 신경 써야 하는데, 복장에 대해서는 신졸 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검은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거나 비슷한 분위기의 정장차림이 추천된다. 그리고 면접관이 질문할 때는 질문하는 면접관에 눈을 보면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게 좋고, 일본어가 조금 서툴러도 천천히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 있게 말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채용 담당자와의 면접에서는 학창시절의 경험, 지금까지의 경력, 지원 이유(이직 이유), 장래 계획, 성공 또는 실패 체험 등이 자주 나타나는 질문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입사한 뒤에 하고 싶은 일', '10년 후의 비전'과 같은 질문을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요구되는 일본어 실력

최근 KOTRA 도쿄무역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한국인 구직자에게 원하는 능력 중 '일본어 능력'이라고 답한 기업이 95%이고 '일본에 관한 이해도와 적응 능력'을 답한 기업이 6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일본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조화를 위한 일본어 능력 및 일본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 부문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채용기업들이 사내의 다른 일본인 사원과 협업하거나 일본인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정도(JLPT N2)의 일본어 능력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위해서는 일본어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월드잡플러스에서 주요 IT 직종에 대해 채용공고를 검색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전공자이면서 1~3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구인공고에서 영어 외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 혹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채용 조건으로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월드잡플러스의 구인공고 중 특별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3-17]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DEVFOX	Tokyo	모집분야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채용인원	3명 이상	근무형태	정규직
		지원요건	학력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 공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 력	무관	
			외 국 어	일본어(중상): 일상회화 가능자	
			기타조건	비전공자의 경우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Java에 대한 기초 지식 보유	

출처: 월드잡플러스

[표 3-18] 정보시스템 운영자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BRASTECH	Nagoya	모집분야	정보시스템 운영자		
		채용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지원요건	학력수준	전문대학 졸업 이상	
			전 공	관련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경 력	무관	
			외 국 어	일본어(중상) :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이상 영어(상) : Toeic 800점 이상 우대	
			기타조건	비전공자의 경우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필수 가상화 기반, 인프라 설계 및 구축 경험	

출처: 월드잡플러스

[표 3-19] 웹디자이너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GMO PEPABO inc.	Tokyo	모집분야	웹디자이너		
		채용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지원요건	학력수준	전문대학 졸업 예정	
			전 공	무관	
			경 력	무관	
			외 국 어	일본어(상): 일본어능력시험 JLPT N2 이상	
			기타조건	그래픽스킬(그래픽 스킬을 기반으로 디자인한 경험) 코딩스킬(HTML, CSS 등 편집 경험)	

출처: 월드잡플러스

01. 국가 기본 정보

[표 3-20] 독일의 국가 정보

국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면적	357,581㎢(세계 63위,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6배)
수도	베를린(Berlin)
인구	83,190,556명 (2020년 9월말 기준)
주요 도시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뮌헨(München), 쾰른(Köln), 프랑크푸르트(Frankfurt am Main)
민족	게르만족
언어	독일어
종교	카톨릭(27.2%), 개신교(24.9%), 유대교(0.1%), 무교(38.8%), 기타(9%) (2019년 기준)
건국(독립)일	1776년 7월 4일(13개 주 독립선언일)
국가원수	대통령 :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수상 :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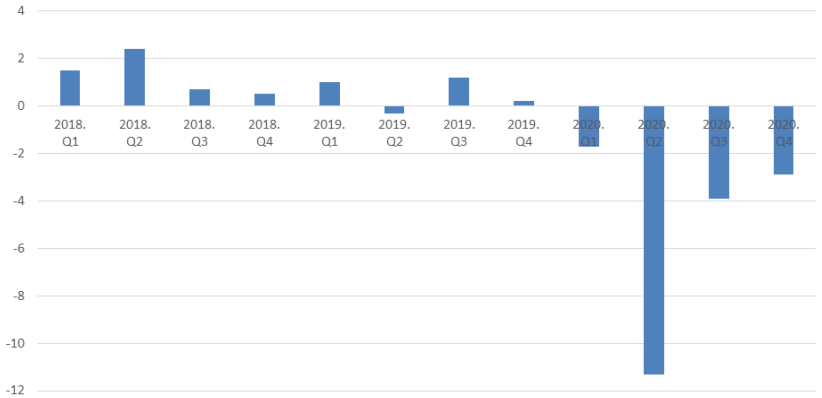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amt)

02. 독일 경제동향

독일의 경기는 견조한 내수 및 고용시장과 브렉시트 이행 지연,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회복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유럽 전역을 강타한 COVID-19 여파로 다시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전반적인 제조업의 부진과 글로벌 및 유럽 내수시장이 붕괴되면서 견조했던 소비시장마저 타격을 입었다. COVID-19 확산 및 재확산과 더불어 제조기업의 생산 중단, 단축근무 시행 등에 따른 생산 부진 지속과 글로벌 수주 감소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독일 경제는 단기간 내 예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는 2020년에 COVID-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과거 최악의 경기 침체를 기록한 2009년 금융위기(Δ5.9%)에 준하는

Δ5.5%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5월 영업 재개 조치 이후 독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9월 들어 2020년 경제 전망을 지난 4월의 Δ6.3%에서 Δ5.8%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10월 말 Δ5.5%로 두 차례 상향조정 발표하였다. 20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 지속 확산 여부가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COVID-19 회복 시나리오 하 독일 경제는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수요 회복세와 더불어 +4.4%의 성장률을 보이며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10]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단위: %)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amt), 2021년 2월말 기준

독일 정부는 2021년 들어서도 2월 중순까지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를 연장함에 따라 2021년 1분기에도 독일 경제는 정체를 보이겠지만 2분기에는 약 3%의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에는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축소될 전망이나, COVID-19 지속 확산 시 추가 경기부양책 등 정부 투자 확대가 기대되며, 코로나 전개 양상에 따라 소비 및 고용은 기저효과 및 가계소득여건 개선과 더불어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다만 봉쇄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서비스 분야의 부가가치는 2020년 봄과 비슷하게 하락할 것이 확실한 반면, 봉쇄조치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산업 및 관련 서비스분야는 상황이 달라 1분기에도 경제생산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업별 회복속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03. 독일 산업 현황

독일 산업 현황

독일의 산업구조는 크게 농・임・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서비스업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2020년 말 현재 서비스업의 비중은 70%로 가장 크고, 제조업(22.9%), 건설업(6.0%), 농・임・어업(0.7%)의 순이다. 2020년 들어 COVID-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산업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요 산업 중 제조업의 총 생산이 2019년 대비 8.3%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기타 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 도소매・운소・숙박・음식서비스 부문 등이 COVID-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규모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건설업과 공공・교육・보건 부문은 각각 2019년 대비 8.1%, 2.2% 성장하였고, 정보통신(ICT) 부문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독일 산업별 GDP 현황(단위: 십억 EURO)

구분	2018.12	2019.12	2020.09
국내총생산(GDP)	3,024.4	3,106.2	3,014.7
농업·어업·수렵	22.3	24.9	22.1
제조업	770.5	754.2	691.3
건설업	148.3	166.8	180.2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서비스	483.0	500.8	473.4
정보통신(ICT)	145.5	153.2	155.2
금융, 보험	115.8	116.9	116.4
부동산	317.8	327.2	334.5
비스니스서비스	351.7	361.3	338.4
공공, 교육, 보건	554.3	581.6	594.1
기타 서비스	115.2	119.3	109.0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amt), ‘National Accounts_Domestic Product’, 2021년 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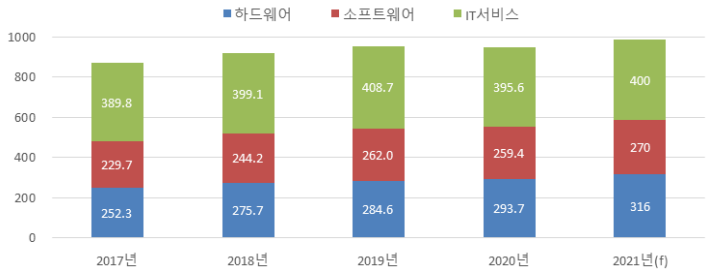
독일 ICT 산업 현황

독일 ICT 시장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크며, 유럽에서는 가장 활발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산업에 첨단 정보통신기기가 접목되면서, 정보통신 산업은 높은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독일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이테크 전략(2006년)’을 시작으로 ‘하이테

크 전략 2020(2010년)', '신 하이테크 전략(2014년)', '하이테크 전략 2025(2018년)'을 발표하여 추진 중이다. 하이테크 전략은 혁신정책을 통한 독일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독일의 미래 능력 강화, 미래의 가이드로서 독일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연구 및 혁신 간 연계 등이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ICT 관련 핵심 정책인 '인더스트리(Industrie) 4.0'과 '디지털 전략(Digital Strategy) 2025'를 통해 독일의 정보통신산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하이테크 전략 2020'의 미래 프로젝트로 출범하였는데, 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독일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디지털 전략 2025'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2025년까지 독일 전역 1GB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디지털 인트라를 개선하고 데이터 관리 및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과 신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독일 ICT 산업의 핫 트렌드는 클라우드컴퓨팅, IT 보안,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등이다.

2020년 ICT 시장의 매출규모는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즈니스 약화로 인해 전년에 비해 0.6% 감소한 1,698억 유로를 기록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는 다시 ICT 시장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Bitkom에 따르면 2021년 ICT 시장(통신업 제외)의 매출규모는 컴퓨터, 서버 및 주변기기와 같은 IT 하드웨어 부문이 2020년에 비해 8.6% 증가하여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프트웨어 시장도 4.1%에서 성장하면서 업계 평균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클라우드 비즈니스의 강력한 성장과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대신 임대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면서 IT 컨설팅을 포함한 IT서비스 부문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전반적으로 ICT 전 부문이 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1] 독일 ICT 시장(통신업 제외) 매출규모 추이(단위: 십억 EU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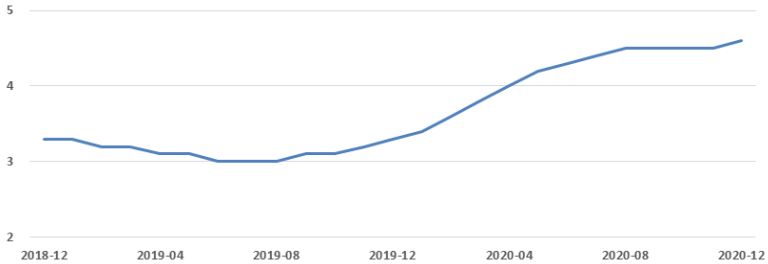
출처: Bitkom, 'Bitkom Jahres Pressekonferenz 2021', 2021년 1월 13일자

04. 독일 고용시장

고용시장 현황

독일은 유로존 국가 중 가장 고용이 안정된 국가로서 2019년까지 3% 초반대의 실업률을 보였으나 2020년 들어 COVID-19가 확산되면서 그간 건재하던 실업률도 4월 4.3%로 전월 대비 0.5%p, 전년 동기 대비 1.1%p 증가하며 고용시장에도 COVID-19 위기의 여파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COVID-19의 부정적 영향 속에서도 독일연방노동청의 단축근무 지원과 더불어 실업률이 9월부터 소폭 개선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COVID-19의 재확산으로 봉쇄정책이 시행되면서 2021년 1월에는 다시 실업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실업률은 유로존 28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2020년 말 현재 실업자 수는 270만 명으로 실업률이 4.4%를 기록하였고, 2021년 역시 258만 명으로 예년(2019년 227만 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그림 3-12] 독일 실업률 추이(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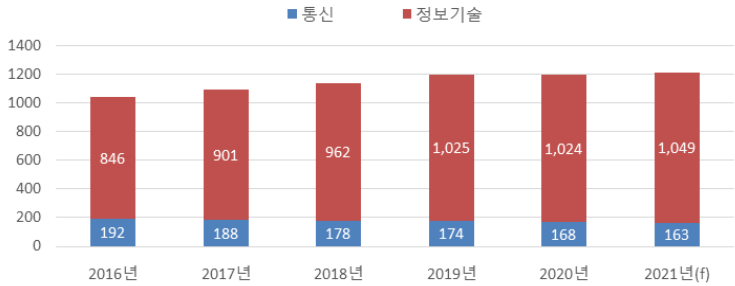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amt), 2021년 2월말 기준

독일 ICT 부문 고용인원

독일에서 여타 산업은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반면, ICT 부문은 최근 5년간 150,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매우 강력한 고용 성장을 보여 왔다. 독일 ICT 부문에는 약 120만명의 인원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2020년에 COVID-19로 인해 일자리 수가 8,000개 가량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디지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도 증가시키고 있어 앞으로도 동 부문의 고용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

히 2020년 위기 상황에서도 86,000개 가량의 일자리에서 인력 공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의 고용 성장에도 불구하고 ICT 부문은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수요에 비해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림 3-13] 독일 ICT산업 일자리 추이(단위: 천명)



출처: Bitkom, 'Bitkom Jahres Pressekonferenz 2021', 2021년 1월 13일자

독일 ICT 부문 임금수준

임금은 노동수요가 회복되면서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저임금 근로자 중심의 고용 회복 등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COVID-19 재확산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크고 노동시장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사정 개선흐름은 백신보급 및 경제활동 재개 정도에 따라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대부분의 IT 관련 직업군의 임금 수준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2] 독일 IT 직업군 월임금 수준(단위: 월간, EURO)

직업군	전체	남성	여성
2차 및 3차 산업 전체	3,978	4,148	3,58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5,157	5,451	4,293
- Software publishing	4,860	5,148	3,970
- Programming and broadcasting activities	4,520	4,930	3,975
- Telecommunications	5,862	6,172	5,376
- Computer programming, consultancy 등	4,774	4,897	4,272
-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	5,340	5,570	4,468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Statistisches Bundeamt), 2021년 2월말 기준

01. 취업비자 유형

워킹홀리데이비자(Working Holiday Visum)

독일은 외국 청년들의 활발한 이동을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칠레, 홍콩,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등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양자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은 유효기간이 최대 12개월인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취득하여 독일에서 체류 비용 마련을 위한 관광 취업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체류권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적어도 2000유로의 자비(본인 명의의 잔고증명)가 증명되어야 하고 1년간 외국여행보험이 체결되어야 한다. 체류권에 관한 시행령(Aufenthaltsverordnung) 제35조 4호의 개정에 따라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자영업도 가능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워킹홀리데이비자는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독일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같은 목적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속해서 독일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권법 제41조 3항에 따라 독일 내에서 정식 취업을 위한 체류권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즉,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받아야 취업비자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취업준비비자(18개월) : 독일 대학 졸업 후 구직 시

독일 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학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후 독일에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최대 18개월까지의 체류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구직을 위한 체류권이 유효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고용(원칙적으로는 학업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업종)은 노동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결국 이 기간 동안에는 노동청의 동의 없이 모든 고용관계가 허용되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8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독일에서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직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권법 제41조 3항에 따라 독일 내에서 정식 취업을 위한 체류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취업준비비자(6개월) : 국내 대학 졸업 후 구직 시

국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구직 체류허가를 신청하여 최대 6개월까지 독일에 체류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구직비자의 경우 이미 독일에서 학업 등의 다른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구직 기간 중에는 어떠한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즉, 취업 직전까지만 허용되는 체류허가이며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취업비자로 즉시 전환해야만 한다. 구직비자 신청의 자격요건과 필요서류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단, 독일에서 인정되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비자가 발급되며 대학 학위의 인정 여부는 아나빈(http://www.anabin.kmk.org)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아나빈 검색에서 학교가 확인되지 않으면, statement of comparability를 독일 노동청산하기관(ZAV)에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구직자가 독일 현지 기업에 취업할 때까지 연이어 독일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류허가의 조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① 워킹홀리데이비자 → 취업허가로 전환

② 워킹홀리데이비자 → 어학비자(1~2년) or 유학비자 → 취업허가로 전환

③ 어학비자(1~2년) → 유학비자 → 취업허가로 전환

④ 무비자(3개월) → 어학비자(1~2년) or 유학비자 → 취업허가로 전환

⑤ 무비자(3개월) → 구직비자(6개월) → 취업허가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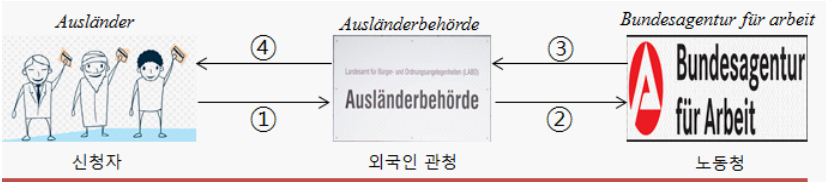
02. 취업비자(Aufenthaltstitel) 발급 절차

독일의 취업비자는 취업체류허가를 의미하며 독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독일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할에 한하여 발급된다. 단, 취업비자의 발급은 노동청의 노동허가(work permit)를 전제로 한다. 노동청에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한 자가 외국인 노동청에 접수한 서류(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등)에 기초하여 (1)근로계약서

상 급여가 그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2)근로조건이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3)취업 우선권을 지닌 독일인 및 EU 소속 국가의 지원자가 충분히 없는가를 검토하여 노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EU 역외 국가의 외국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청년이 독일 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이 (3)의 심사항목에 근거하여 노동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내 인력 부족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종에 취업한 경우에는 노동청의 사전 동의를 얻기가 수월한 편이며 특히, 블루카드 발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노동청의 노동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동청이 노동허가를 결정한 경우 노동청에서는 노동허가 신청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말소될 때까지 노동허가를 발급하며, 이후 갱신 신청 시 2년 또는 3년 기간의 노동허가를 발급한다. 이후 외국인관청은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는 체류비자 즉, 취업비자의 발급을 진행한다. 취업비자는 여권에 스티커처럼 붙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여권을 소지하여 외국인 관리청을 방문하여야 한다. 단, 최초의 발급되는 취업비자에는 회사명이 명기되어 있어 계약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면 해당 비자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반해 갱신된 비자에는 회사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기간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해당 비자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독일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 통상적으로 소도시의 경우에는 2~3주, 대도시의 경우에는 보다 느린 4~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림 3-14] 취업 비자(체류허가) 발급 절차



① 취업체류 신청	② 노동청에 서류 전달	③ 노동허가여부 결정 및 회신	④ 취업비자 발급
비자신청서, 근로계약서, 고용사유서 등			

한편, 독일 취업비자는 독일 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독일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주한독일대사관을 통해 국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신청하였을 경우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 외국인관청, 독일연방노동청과 함께 체류 허가 승인여부를 검토하며 긍정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올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 교환용 취업비자를 발급해 준다. 이러한 교환용 취업비자는 독일 입국 후 해당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관할 외국인관청의서 비자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국내에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독일 현지에서 신청하였을 때 보다 오랜 수속기간을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교환용 비자 발급 까지 약 8~12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취업체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는 비자 발급을 독일 현지에서 신청할 때나 국내에서 신청할 때 모두 대동소이하다. 단, 취업지역과 취업 직종 등의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독일 현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교환용 취업비자를 발급 받은 후 현지에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비자 신청 전에 독일 내에 거주지등록(Anmeldung)을 해야 한다.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① 체류허가 신청서

② 근로계약서(또는 임용계약서): 계약서에 고용기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③ 졸업증명서 및 학적 증명서(영어 또는 독일어 번역) -> 공증이 필요함.

④ 재정 증명서(해당 직장에서 명확한 수입이 명시된 서류)

⑤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독일 보험회사 또는 국제인정 보험회사)

⑥ 거주 임차 계약서

⑦ 이력서(독일어로 된 이력서 추천)

⑧ 고용사유서: 인력부족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주가 작성한 고용사유서에 따라 비자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 변호사나 회사에서 써주는 사유서를 기타의 자료들과 함께 보내는데, 개인이 작성하기보다는 회사 내에서 작성하거나, 변호사가 작성한 사유서를 보내는 경우가 일반적임.

⑨ 유효한 여권

⑩ 여권 사진 1매

*추가적인 증빙서류들이 요구될 시에는 신청자에게 서신으로 개별 통보함.

03. 블루카드 제도

노동인구 감소와 전문 인력 수요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독일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례로 2012년 8월 도입된 'EU 블루카드(Blue Card) 제도'가 있다. 미국의 외국인 취업 허가제도인 '그린카드'와 유사한 '블루카드' 제도는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체류 허가취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권 획득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블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선 일반적으로 ① (독일 내·외)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② 독일 내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은 상태여야 한다. 다시 말해 블루카드를 받은 후 취업(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취

업 계약서를 이민청에 제출해야지만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③ 취업계약을 맺을 당시 최소 56,800 EURO 이상의 연봉(2021년 기준, 매년 조정됨)을 받아야 한다. 특히, 수학자, IT 전문가, 과학자, 엔지니어, 의사(치과의사 제외) 등 인력난이 심각한 전문 직종의 경우에는 ③의 연봉조건을 44,304 EURO 이상으로 완화하여 EU 역외 국가의 전문 인력이 블루카드 취득을 통해 보다 쉽게 독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블루카드 발급 대상에 연령 제한은 없다. 블루카드를 통해 독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되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4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에 3개월이 더해져 발급된다. 단, 2년 이내에 이직을 할 경우 관할 외국인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1. 독일 IT 채용트랜드

COVID-19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IT산업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 시장 또한 전반적으로 구인 수요가 줄어들었으나 IT 부문은 채용 수요가 꾸준하다. 실제 독일 채용 포털인 Stepstone에 게시된 채용공고에 따르면 IT 부문의 채용공고 수가 엔지니어/기술 전문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전문인력 부족에 대비해 비EU국민 우대 취업비자인 블루카드(Blue Card)를 확대 발급하여 IT 및 이공계 분야 인재들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비EU 출신 전문인력의 독일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전문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기존에는 비EU 구직자의 경우 독일 내에서 직장을 찾고 노동계약을 체결해도 노동부가 동일한 업무를 독일인이나 EU인이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우선권 검토(Vorrangsprüfung)'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우선권 검토가 지연돼 취업비자 취득 또는 업무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우선권 검토에 통과하지 못해 독일 취업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다. 향후 취업시장이 악화될 경우 우선권 검토 제도를 부활할 여지는 남겨 놓고는 있지만 새로운 전문인력이민법을 통해 우선권 검토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인 구직자의 독일 취업 행정 부담이 완화됐으며 취업시장에서 독일인과 제도적으로 거의 비슷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독일 취업 TIP**
>
> 독일 현지 IT 기업으로 취업을 고려할 때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대기업 보다는 스타트업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IT 스타트업 기업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연봉수준이나 복지도 우수한 편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할 때 비자 발급을 적극 지원해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주 지원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채용에 거부감이 없으며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도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독일어를 전혀 못할 경우에도 관련 전문지식과 경력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대게 구인공고의 Job Description이 독일어로 기재되어있지 않은 한 독일어 구사능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02. 채용 절차별 독일 취업 TIP

IT 부문의 경우 국가별로 채용 절차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내용도 국가별로 대

동소이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채용 절차별 취업 TIP에 대해서는 III장의 '1. 미국' 부분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서는 독일에 대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기술하였다.

채용공고 검색

대표적인 글로벌 커뮤니티인 Stackoverflow 외에 독일 현지기업의 채용공고는 Stepstone, Indeed, Monster, Kimeta, Jobbörse Arbeitsagentur(독일 연방노동청 채용포털) 등 다양한 채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epstone, Kimeta 등은 독일의 대표 채용포털이며, LinkedIn, Indeed, Monster, Glassdoor 등은 글로벌 채용포털에 해당한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식 공채 제도가 없으며, 기업들은 인력 수급상황에 따라 직원을 수시 채용한다. 한국인에 대한 채용 수요는 대게의 경우 한국 또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현지기업을 중심으로 발생하므로, 채용 포털에서 Korea, Asien(Asia) 또는 International 등의 키워드 검색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IT의 경우에는 국적에 대한 구분 없이 필요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비해 취업 문이 훨씬 넓다.

[표 3-23] 독일 주요 채용포털 목록

포털명	웹사이트	특징
Stackoverflow	stackoverflow.com	IT부문 최대 글로벌 커뮤니티
IT-Treff.de	it-treff.de	2003년 설립된 독일 IT분야 전문 채용포털
Stepstone	stepstone.de	독일 대표 채용포털
Indeed	de.indeed.com	글로벌 채용포털
Monster	monster.de	글로벌 채용포털
Kimeta	kimeta.de	독일 대형 채용포털
Glassdoor	glassdoor.de	글로벌 채용포털
LinkedIn	de.LinkedIn.com/jobs	영어 구사가능자를 위한 채용공고 다수 제공
연방노동청	jobboerse.arbeitsagentur.de	연방노동청 채용공고 사이트

출처: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서류 전형

독일에서의 서류 전형에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크게 3가지로 이력서(Lebenslauf)와 자기소개서(Anschreiben) 및 경력 관련 증빙자료이다. 이력서는 지원자의 정보가 요약돼 있어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대개 장문의 자기소개서보다 먼저 확인하는 서류로, 지원자가 과연 회사와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한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기재한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동기, 본인의 장점, 업무 관련 능력을 지나친 과장 없이 기술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채용 관련 의사결정에 매우 신중한 편이므로 서류전형이 수개월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표 3-24] 독일 취업 시 이력서 작성 TIP

분량	최대 3페이지 내로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작성
양식	각종 서식(문단 크기, 날짜 표시, 폰트 등)을 통일성 있게 구성 - 날짜는 최근의 이력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연도뿐만 아니라 월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경력기간도 `O년 O개월`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을 추천 - 기업 브랜드 컬러를 반영한 이력서 템플릿은 인사담당자에게 신뢰감을 전달할 수 있음. - Stepstone(https://www.stepstone.de/Karriere-ewerbungstipps/bewerbungsvorlage/) 등 각종 온라인 채용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경력사항	모든 경력을 타임라인에 맞춰 빠짐 없이 기재 - 경력상 공백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 활동도 기재하는 것이 필요 - 독일 외 제 3국이나 한국에서 취득한 학력의 경우 KOTRA University, Seoul, Südkorea 등으로 학교 소재지를 친절히 안내하는 것을 추천함.
자격사항	채용공고에 기재된 용어를 그대로 활용해 이력서에 기재
비자 및 언어	외국인으로 지원 시 근로 가능 비자 소지 유무와 언어능력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필수 기재

출처: Stepstone, KOTRA 푸랑크푸르트 및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표 3-25] 독일 취업 시 자기소개서 작성 TIP

분량	1~2페이지 내로 지원동기, 본인의 장점, 업무 관련 능력 등을 지나친 과장 없이 서술
양식	각종 서식(문단 크기, 폰트 등)을 통일성 있게 구성하는 동시에 독일 편지 양식에 준해 기업 인사담당자 성명을 직접 언급하고, 연이어 본인이 지원한 포지션(Marketing Manager 등)을 다시 한번 정확히 언급 후 지원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
서론	서론 부분에서 기업과 지원분야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여 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함.
본론	자신의 장점과 업무 관련 능력을 부각하면서도 이력서를 기반으로 객관성 유지
결론	인사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한 점에 대해 간단한 감사와 입사 시 포부를 기재 후 서명

출처: Stepstone, KOTRA 푸랑크푸르트 및 함부르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면접 전형

독일 현지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원자의 능력과 경력이 해당 포지션에 잘 부합하는지 등 업무 적격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내 진출기업의 경우, 한국 본사와의 교신 업무가 많은 특성상 해당 포지션에 대한 질문보다는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성격, 독어 및 영어 언어 구사력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의 대표 채용포털인 Stepstone.com에서 주요 IT 직종에 대해 채용공고를 검색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구인업체에서 학사 이상의 관련 전공자이면서 3~5년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당 직무 관련 필수 스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영어 능력을 요한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경력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 채용공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3-26]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Finetech GmbH	Berlin	모집분야	Software Developer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전공	
			경 력	무관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코딩 경험 C++/Delphi에 대한 높은 수준 지식	

출처: Stepstone.com

[표 3-27] 정보시스템 운영자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Max-Planck-Institut für Intelligente Systeme	Stuttgart	모집분야	Software Developer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컴퓨터 공학 또는 관련 전공	
			경 력	무관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Linux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 Windows servers 디자인 및 관리 경험 DNS, DHCP, WSUS 관련 지식 Python, PowerShell, scripting languages 경험	

출처: Stepstone.com

[표 3-28] 웹디자이너 채용공고 사례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METRO Markets GmbH	Düsseldorf	모집분야	Software Developer		
		채용인원	○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무관	
			전 공	무관	
			경 력	무관	
			외 국 어	영어(상): 원활한 의사소통	
			기타조건	UX/UI에 대한 풍부한 경험 디자인 산출물(journey maps, service blueprints, roadmaps, prototypes, design systems, UI and visual design) 창출 능력 디자인 툴(Adobe Creative Suite and Sketch, basics of HTML and CSS)에 대한 지식	

출처: Stepstone.com

[표 3-29]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공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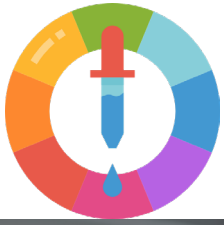
업체명	소재지	채용 개요 및 자격 요건			
Axxessio GmbH	Darmstadt	모집분야	Java Software Developer		
		채용인원	1명	근무형태	Full Time
		지원요건	학력수준	학사 이상	
			전 공	Informatik(컴퓨터 과학) 혹은 유사 전공	
			경 력	관련 실습 및 인턴 경험 우대	
			외 국 어	영어(상), 독일어(중)	
			기타조건	· Java 숙련자 · NoSQL-데이터베이스 연관 지식 보유 · 아마존 · 아마존 웹서비스 등 클라우드 서비스 경험	

출처: Stepstone.com

PART

04

해외취업 성공 포인트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
02
정부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
03
스스로 취업하기
-
0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01 해외취업 정보찾기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 공공기관, 해외취업 박람회(설명회), 기타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01. 월드잡플러스(웹/앱)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는 청년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별로 분산된 해외진출정보(해외취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등)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일자리(구인/구직)정보, 해외취업 후 경력관리, 국내 복귀 후 재취업 등 해외진출 전(全)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진로적성 진단과 연계한 커리어플래너 제공
- 주요 국가별 기본 정보 및 유망 직종 취업전략 제공
-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한 해외취업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영문/일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무료 첨삭 서비스 제공
- 해외취업, 해외연수(K-Move스쿨),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 모집 공고 제공
- 청년해외진출 멘토링, 해외취업설명회(박람회)참여, 해외취업 아카데미 신청 정보
- 취업사실 확인 및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지원
- 해외진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및 국내 재취업 정보 제공
- 부당사례 신고센터 운영 등

일자리 검색하기

월드잡플러스

[그림4-1] 월드잡플러스 해외일자리 검색

체크포인트

(1) 앱스토어에서 월드잡플러스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친구추가(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링크드인(LinkedIn)에서 worldjob plus를 검색하는 경우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또는 이력서 작성 시 희망 국가와 직종을 체크해두면 나에게 맞는 해외취업 정보를 [마이페이지] > [빅데이터 기반 추천정보] 메뉴에서 확인하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이력서를 미리 등록해두면 구인공고가 올라왔을 때 바로 지원도 가능하다.

해외진출 정보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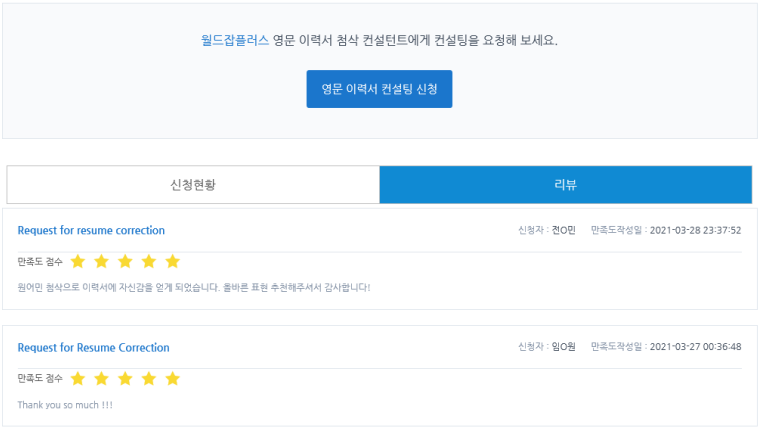
국가별 기본정보 및 취업전략, 비자정보, 진출현황, 취업 성공수기 등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림 4-2]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가이드 화면

체크포인트

(1) 국가별 해외취업 가이드북, 해외진출 성공수기 등 알짜정보가 곳곳에 있으니 찾아서 이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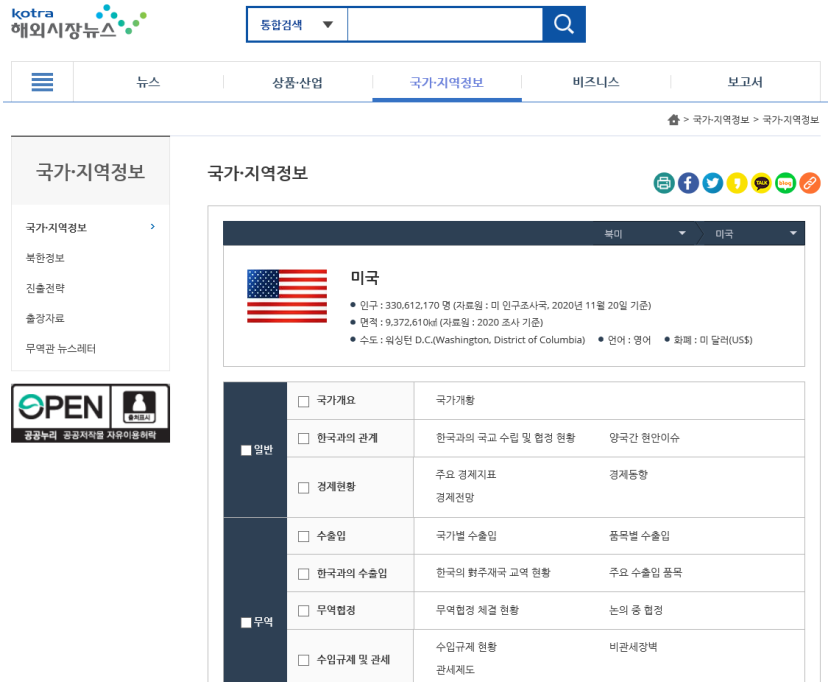
(2)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이니 구인공고에 지원하기 전에 미리 이용하자!



02. KOTRA

KOTRA는 해외시장 뉴스(www.news.kotra.or.kr)를 통해 94개국에 대한 국가정보, 무역·투자진출 현황, 취업유망분야 등의 자료와 해취투게더 카페(cafe.naver.com/kotrajobinfo)를 통해 비자정보, 정착생활 후기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3]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제공하는 국가정보



03.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는 글로벌시장 리포트를 통해 주요 국가의 해외시장 뉴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잡투게더(www.jobtogether.net)를 통해 해외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02 정부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활용하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취업 단계별로 정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4-1] 취업준비단계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 현황

구분	추천 프로그램	비고
관심	해외취업센터 상담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센터 (카카오 실시간 채팅상담 / 전화, 이메일, 방문상담, 온라인 화상상담 등)
	· 해외취업 설명회 · 대학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채용정보, 비자정보, 고용동향 등 제공(월드잡플러스 공지사항 참조)
	청년해외진출 K-Move 멘토링	국가┌직종별 멘토가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온라인 콘텐츠 형식으로 전달
준비	해외취업 아카데미 (K-Learning, K-Class)(서울/부산/군산/통영 해외취업센터)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법, 글로벌 네트워킹 스킬 등 교육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신청)
	역량 강화 온라인강의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외국어, 직무 등 글로벌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제공
	청해진 대학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예비자 과정과 K-Move스쿨, 중장기 통합지원 프로그램
	K-Move스쿨	직무┌어학교육 맞춤형 교육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
도전	공공알선(해외취업센터) 상담	실시간 채팅상담, 전화, 방문상담을 통한 상세상담
	월드잡플러스 구인공고 지원	국내외 K-Move센터를 통해 발굴┌모집된 해외구인기업과 구직자 매칭
	해외취업박람회	(공단, KOTRA, 한국무역협회 등)기업과 구직자의 온┌오프라인 채용 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지원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국내외 민간알선 기관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매칭
성공	해외 K-Move센터 헬프데스크	해외 17개소(KOTRA,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취업자의 해외정착 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취업자의 조기 정착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 지급(1, 2, 3차)
	해외진출 성공수기 공모전 지원	해외취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해외취업 정보와 노하우 제공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업자의 현지정착 지원, 경력이동경로 파악, 이(전)직 지원 등

01. 해외취업센터

센터에서는 해외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시 채용관 운영을 통해 면접을 지원하며, 해외취업 정보제공,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역량진단,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표 4-2] 해외취업센터 현황

구분	내용
온라인 상담신청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방문상담예약
서울해외취업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02.6964.7071~7077)
부산해외취업센터	부산 진구 중앙대로 993, 롯데골드로즈빌딩 610호(051.715.7017~7020)
군산청년 해외취업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 1길4, 상공회의소 4층(063.443.1558)
통영청년 해외취업센터	경남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센터 2층(055.648.6544, 055.649.6544)

[표4-3] 해외취업센터 이용정보

구분	내용
해외취업상담	방문, 전화, 이메일, 온라인 화상상담(해외취업 알선 지원) 실시간 채팅 상담(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상담>실시간 채팅문의)
해외취업 아카데미 (무료)	해외취업 구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인재의 조건, 영문/일문 이력서 작성법, 면접 요령 등 강의) 신청 : 매월 신청 진행, 기수당 정원 50명 내외로 선발
해외취업 알선	구인기업, 구직자 발굴 및 취업 알선
상시채용관	기업의 채용 설명회 및 (화상)면접 장소 제공 해외취업동아리 스터디 공간 제공

※ 아카데미 과정은 수요를 반영하여 유동적으로 운영(IELTS 시험대비반, 독일 취업반 등)

02. 청해진 대학

청해진 대학은 해외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을 장기적으로 대학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편성·운영 후 해외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표 4-4] 청해진대학 사업 운영기관 현황(2021년 3월 기준)

기관명	국가	연수과정명	연수직종
대구보건대학교	일본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전문가 연수과정	의료
동명대학교	베트남	일본 IT (I-Construction) 콘테크 전문가 양성과정(1기)	사무
동명대학교	멕시코	2021년 TU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 양성과정(2기)	사무
동의과학대학교	미국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부품 및 기계설계 과정	기계/금속
동의과학대학교	일본	2021년 일본취업 자동차 와이어하네스 설계과정	기계/금속
백석대학교	일본	5차년도 청해진 대학 미국 특급호텔 경영관리자 육성과정	사무
부산외국어대학교	미국	[청해진_4차] 베트남 무역물류사무직 과정	사무
선문대학교	베트남	선문대학교 일본 IT 프로그래머 양성과정	IT
선문대학교	일본	K-서비스 전문인재 양성과정	서비스
영남이공대학교	일본	일본 취업비자 취득 IT & 자동차 취업 연수과정	IT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일본향 웹 모바일 프로그래머 전문가 양성과정	IT
한양여자대학교	일본	일본 스마트 IT 개발자 취업과정	IT

03. K-Move스쿨

K-Move스쿨은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직무, 해외문화 및 직장예절 등 구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표 3-5] K-Move스쿨 사업개요(2019. 11월 현재)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민간)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30%범위 내에서 연령초과자 선발가능)나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에 부합하는 자 ▪ (대학)대한민국 국민 중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로서 사업 참여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학년 재학 중인자로 연수종료 후 해외취업이 가능한자 ※ 휴학생은 참여 불가 **지원제외대상** ▪ 연수개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공단의 해외취업 연수과정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 ▪ 연수종료 후 취업률 산정기간 내 졸업 및 해외취업이 불가능한 자 ▪ 연수 참여(예정)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연수개시일 1년 이내에 8개월 이상 연수 또는 취업 대상 국가에 해외체류 사실이 있는 자(교환학생 체류기간 등 예외 인정) ※단, ①해외 유학생 대상 모집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승인받은 과정 및 국내교육 구성이 연수과정의 50%이상인 과정은 참가가능, ②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예외 인정
연수분야	IT, 경영사무, 외식조리, 무역물류 등 해외취업이 가능한 분야
연수국가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중남미, 중동 등
연수 기간	(단기) 200시간 이상(단, 8주 이상 구성) (장기) 600시간 이상 (트랙 II) 1,000시간 및 10개월 이상 ※ 트랙 II : 1일 8시간 이하/주말 수업 가능
연수 유형	▪ 일자리 확보형 : 구인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과정 후 취업으로 연계 ▪ 자격취득 또는 훈련(교육)과정 이수형 : 해당국 부족직군, 기술·기능 및 전문 직종으로 자격취득 또는 해당국 지정 훈련과정 이수 후 취업과 연계 * 호주 유아교육 과정, 필리핀 스킨스쿠버 강사 과정 등 ▪ 도제제도 연계형 : 호주·캐나다·독일 등 도제훈련을 운영 중인 국가의 구인업체에서 도제식 훈련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 ▪ 특화모델 연계형 ①신시장 개척 연계: 새로운 국가, 직종의 구인수요가 있을 시 연수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 과정 ② 과정평가형 자격 연계: 과정평가형 자격과 연계하여 연수과정 후 취업 연계 과정
지원 금액	(단기) 1인당 최대 580만 원 (장기) 1인당 최대 800만 원 (트랙 II) 1인당 최대 1,350만 원 - (민간) 개인부담금 : 정부지원금의 20% 이내(신흥시장 취업 과정의 경우 10%) (대학) 개인부담금 없음
취업현황	2018년 기준 68.03% (3,560명 중 2,422명 취업)
신청방법	월드잡 플러스 검색 후 지원(일자리찾기-해외연수)

[표4-6] K-Move스쿨 신청 및 취업절차

구분	내용
①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온라인 접수(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등록)
② 모집공고 지원	과정별 모집요강 확인 및 지원
③ 연수생 선발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④ 연수 실시	오리엔테이션 및 연수실시
⑤ 취업 알선	해외기업 알선 및 면접(일반적으로 연수과정 80% 경과 후)
⑥ 사후 관리	연수 종료 후 1년까지

[표4-7] K-Move스쿨 주요과정(2021년 3월 기준)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일본	장기	(사)국제경영원	일본 서비스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정(취업연계형)
2021	일본	장기	(사)국제직업능력개발 교류협회	일본취업 웹/모바일 개발자 연수과정2기
2021	일본	트랙 II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SMART Cloud IT마스터 Plus
2021	일본	장기	(사)한국무역협회	일본 IT 41기 SMART Cloud IT마스터 과정
2021	인도	장기	ICS GLOBAL	글로벌 INDIA 비지니스 개발/운영 실무인력 양성과정 5기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6기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물류유통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가톨릭관동대학교	5기 미국 해외취업 국제 관광경영관리자 연수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가톨릭상지대학교	싱가포르 글로벌 헤어디자이너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강남대학교	일본IT취업 Java Enterprise Developer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일본 ICT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베트남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베트남 제조업 SCM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미국취업 경영정보시스템 활용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일본] JAVA/웹 프로그래밍 전문가 양성과정 2기
2021	캐나다	장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캐나다 유아교사 및 보조교사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경성대학교	[미국] Global Art Design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6기)
2021	일본	장기	경성대학교	[일본] Global IT 융합 전문가 해외취업 연수과정(3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말레이시아	장기	계명문화대학교	말레이시아 글로벌 기업체 인력양성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국립안동대학교	2021년 베트남취업 품질/생산 중간관리자 2기 연수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글로벌취업센터	베트남 생산관리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남서울대학교	일본취업 자바 웹 프로그램밍 전문가과정 5기
2021	멕시코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중남미관리직 취업연수과정(5기)
2021	일본	장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본 자동차설계 엔지니어(카티아) 취업연수과정(3기)
2021	미국	장기	대구보건대학교	미국 치과기공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셰프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대림대학교	미국 특급호텔 호텔리어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동명대학교	TU 미국 글로벌 기업 사무 실무자 연수 과정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그래픽디자이너 양성과정(7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패션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IT엔지니어 양성과정(6기)
2021	미국	장기	동서대학교	미국 무역물류프런티어 양성과정(8기)
2021	베트남	장기	동서대학교	베트남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4기)
2021	일본	장기	동서대학교	일본 IT엔지니어 양성과정(5기)
2021	싱가포르	단기	동서울대학교	싱가포르 식음료조리분야 정규취업 연수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테크니션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물류무역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미국	장기	동아대학교	미국 디자인 전문가 해외취업과정(10기)
2021	호주	장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호주 호텔 조리 & Hospitality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동의대학교	베트남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기계IT기술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비즈니스 전문가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동의대학교	미국 아트디자인 전문가과정
2021	베트남	장기	㈜디앤에스코리아	베트남취업 제조기업 관리자 연수과정(군산)
2021	일본	단기	㈜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항공 여객운송 연수과정(4월5일)
2021	일본	장기	㈜디앤에스코리아	일본취업 IT엔지니어 전문인력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백석대학교	미국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6기
2021	일본	장기	백석대학교	일본 IT보안 스페셜리스트 양성과정 5기
2021	태국	단기	백석대학교	태국 Global Sport Protector 전문인력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필리핀	단기	백석문화대	필리핀, 팔라우 스킨스쿠버다이빙 전문가 연수과정(10기)
2021	홍콩	장기	백석문화대	홍콩호텔관광서비스 해외취업과정(5기)
2021	캐나다	장기	부산가톨릭대학교	치과기공사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한미 통번역 비즈니스 실무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 사무분야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인도네시아	장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 언어우수자 집중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사)대경워라벨인 재개발협회	베트남 청년 중간관리자 취업지원 연수과정
2021	멕시코	장기	(사)한중남미협회	멕시코 자동차와 전자업종 사무행정 및 생산관리직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Global 디자인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삼육대학교	미국 Global e-Biz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미국 상경8기 물류 포워딩 유통 분야 취업과정
2021	미국	장기	선문대학교	미국 디지털 시각디자인 전문가 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소프트엔지니어 소사이어티	일본 IT개발 7기 SW DevOps 마스터 과정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테크니컬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신라대학교	미국 글로벌 비즈니스 실무 전문가 양성 과정 5기
2021	일본	장기	신라대학교	일본 IT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3기
2021	베트남	장기	아데코코리아	베트남 해외취업 글로벌 무역실무 전문가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연성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과정
2021	호주	장기	영남이공대학교	호주 요리사 자격증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영산대학교	베트남 비즈니스/무역/물류인력 양성과정(4기)
2021	미국	장기	영산대학교	미국 Hospitality 전문가 양성과정 (1기)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기계자동차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자동차자동화 설비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기설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웹/모바일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영진전문대학교	일본 전자회로설계 전문가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우송대학교	베트남 삼성협력기업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북미 디지털 심미보철사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호주 조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수과정 (Certificate IV)
2021	독일	장기	원광보건대학교	독일 맞춤형 외식조리사 양성 및 취업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5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월드잡프렌즈	일본취업6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과정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인하대학교	[우수과정]미국 유통물류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 과정
2021	베트남	단기	인하대학교	베트남 수출입 경영지원 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4기
2021	일본	트랙 II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글로벌 ICT 전문가 양성과정 트랙 II 5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49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0기
2021	일본	장기	제이에스엘인재개발원	[우수과정] 하이브리드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51기
2021	베트남	장기	㈜제이엠피코리아	베트남 유통 및 무역 & 생산관리자 취업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경영인 양성 및 경력개발과정 6기
2021	미국	장기	조선대학교	미국취업 국제 품질관리 실무자 양성과정 1기
2021	대만	단기	㈜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헤어 실무자
2021	대만	단기	㈜네모아이엔씨	대만 뷰티미용 실무자
2021	일본	단기	㈜더드림버스	일본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직 취업과정 1기
2021	베트남	트랙 II	㈜드림힐	[트랙 II]베트남 제조기업(전자/자동차) 중간관리자 취업연수 4기
2021	중국	장기	㈜드림힐	중국진출 한국기업 사무관리직 11기
2021	멕시코	장기	㈜드림힐	중남미 중간관리자(자동차/전자)취업연수과정 3기
2021	미국	장기	㈜리얼스톤	미국 취업 e-Biz 실무자 양성과정 2기
2021	미국	단기	㈜사이다링크	2021년 해외취업 아마존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1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호텔 및 리조트 매니저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2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일본	장기	㈜글로벌인	[우수과정] 21년 3차 일본취업 Java 및 Big Data 개발자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4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사우디	장기	㈜코사솔루션	[우수과정]2021년 제15차 사우디 왕립병원 및 협력국립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과정
2021	베트남	장기	㈜아르케	베트남 디지털경영관리자 양성과정
2021	일본	장기	㈜아르케	일본 멀티미디어융합IT개발자 양성과정
2021	미국	장기	㈜아이씨엔그룹	미국 경영정보전문가 양성과정 7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미국	장기	㈜아이씨엔그룹	미국 기업맞춤형 품질공정관리 엔지니어 양성과정 5기
2021	베트남	장기	㈜외대어학연구소	베트남 Global biz 전문가 양성 과정
2021	미국	단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제6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단기	㈜워싱턴국제교류센터	7차 글로벌 패션에디터 생산기획MD관리자 연수과정
2021	미국	장기	㈜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Google 디지털 마케팅 실무자 운영과정 2기
2021	미국	장기	㈜커리어	2021년 미국취업 산업경영 중간관리자 양성과정
2021	미국	단기	㈜피제이넥서스	미국취업 국제무역물류전문가(CITLS)연수과정 2기
2021	일본	장기	㈜한국능력개발교육원	일본 JAVA 웹개발자 4기 연수과정
2021	중국	장기	㈜해성인재개발원	21 중국취업 중간관리자 연수과정 (제3기)
2021	일본	트랙 II	㈜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일본 글로벌자동차 3D설계엔지니어(트랙II 4기)
2021	일본	장기	㈜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일본 3D자동차부품기계설계 10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4기
2021	일본	장기	코세아인재개발원㈜	일본 웹프로그램개발전문가 연수과정 35기
2021	사우디	장기	팍시아 주식회사	2021년도 제3차 사우디 보사부 국립병원 및 협력병원 간호사 취업 연수
2021	미국	장기	한국교통대학교	미국 빅데이터 기반 경영시스템 실무자 양성과정
2021	베트남	트랙 II	한국능력개발직업전문학교	베트남 한국기업 생산성향상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2021	호주	장기	한국영상대학교	호주 호텔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2021	베트남	장기	한국표준협회 전북지역본부	베트남 품질·환경·안전 중급관리자 과정
2021	미국	장기	한남대학교	미국 경영지원 실무행정인력 양성과정 7기
2021	미국	장기	한성대학교	미국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
2021	싱가포르	단기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 18기
2021	미국	단기	㈜해외인턴쉽교류센터	[미국] 글로벌 패션분야 전문가 24기 해외취업연수과정
2021	영국	단기	㈜해외인턴쉽교류센터	[영국]디지털 컨텐츠 디자인 과정 2기 해외취업 연수과정
2021	일본	트랙 II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기계/자동차설계 엔지니어 전문가 연수과정 (5기)
2021	일본	단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일본취업 공항지상직 연수과정(6기)

연수 연도	연수 국가	사업 유형	연수기관	연수과정명
2021	베트남	장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2기)
2021	베트남	장기	㈜헥사곤지엠아이	2021년 베트남 국제무역 및 생산/품질 관리자 연수과정(3기)

04. 민간 해외취업알선 지원사업

해외취업은 민간 해외취업알선 기관(리크루트사)을 통하여서도 가능하다. 사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기관 중에서 월드잡플러스를 통하여 해외구인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이 성사된 경우 구직자를 대신하여 공단에서 알선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05. 취업자 경력관리 및 이(전)직 지원

경력관리시스템(월드잡플러스)				향후 계획(예정)
해외취업자의 직무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개인별 경력관리 플랫폼	→	- 해외취업자의 체계적인 경력관리 지원 -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활성화	→	- 국내 재취업 등 이(전직)지원
설문조사				**향후 계획**
해외취업자의 취업만족도, 직업이동경로, 희망서비스 등 조사	→		→	-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취업자의 직업이동경로를 장기적으로 파악

체크포인트

경력관리시스템은 역량개발 및 직무경험을 구직 단계부터 취업 후 국내 복귀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력관리 플랫폼으로 해외취업 준비자, 취업자, 취업 후 국내복귀자 등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

01. 주요 채용 사이트

IT 부문의 경우 채용정보는 스택오버플로우(Stackoverflow)와 같은 동 분야의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얻거나 채용포털을 통해 검색하는 것이 편리하며, 이 외에도 기업의 채용 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채용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앞서 'PART 03.해외 취업 유망 국가'에 국가별로 주요 현지 혹은 글로벌 채용 사이트를 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02.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트 서비스(BSNS) 이용

최근 BSNS는 프로페셔널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경력, 관심 분야에 대해 어필함으로서 개인에게는 새로운 구직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구인 시 인재풀이 제한적인 부문을 중심으로 BSNS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인자 입장에서도 동종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이력 관리를 통해 잡오퍼를 받거나 글로벌 인맥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북미의 경우 추천에 의한 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BSNS를 이용하여 네트워킹 관리를 하는 것이 해외취업 시 많은 도움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구직용 BSNS인 링크드인(LinkedIn)의 활용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4-4] 링크드인 활용방법

회원가입
www.LinkedIn.com 접속 > 성명, 이름, 이메일 등록 후 계정만들기

프로필 작성
프로필 : 학력, 경력 등 기재

채용공고 검색
채용 기업 검색 및 찾기

지원하기
기업 지원하기

BSNS 활용 방법

항목	내용
프로필 구축	• 전문성과 자신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프로필 사진 첨부 • 경력사항을 자세히 기재. 특히, 담당했던 업무나 프로젝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이미지 등을 함께 추가 • 취미, 특기 같이 업무 외에 자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지속적인 활동	• 본인이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관심사나 역량과 관련된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리서치 컨텐츠를 공유. • 지인들이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자신에 대한 추천 글 요청
관심기업 등록	• 관심 있는 회사를 관심기업으로 등록한 후 회사에서 올리는 컨텐츠를 파악하여 최근에 동 회사가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 이러한 실시간 정보는 추후 회사 면접 과정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채용공고 확인	• 최근 다수의 호텔들이 BSNS를 통해 구인공고를 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 •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관심 기업 그리고 관심 직무 및 포지션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된 채용 공고 및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확인

체크포인트

자력으로 취업에 성공한 한국인 구직자들에게 일부 취업알선업체들이 연락을 취해 와서 자신들이 알선하여 취업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횡령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K-Move 센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관련 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0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한 사전 구직등록 이후 해외취업에성공한 청년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해 공단에서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자격요건,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 사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금액	지원방식
지원금 우대국가	6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3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200만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	400만원	(1차) 취업후 1개월 : 200만원 지급 (2차) 취업후 6개월 : 100만원 지급 (3차) 취업후 12개월 : 100만원 지급

※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후 승인 순(선착순)으로 지원
※ 지원금우대국가 : 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 선진국 분류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지원대상 및 취업 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① 만 34세 이하인 자 ②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근로계약서 작성)한 자
취업 인정기준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한 비자(취업국가 영주권자 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워킹홀리데이비자는 공단사업(취업알선, 연수사업)을 통한 취업자만 인정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 - 청소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등 ③ 임금수준 : 연봉 1,600만원 이상 ④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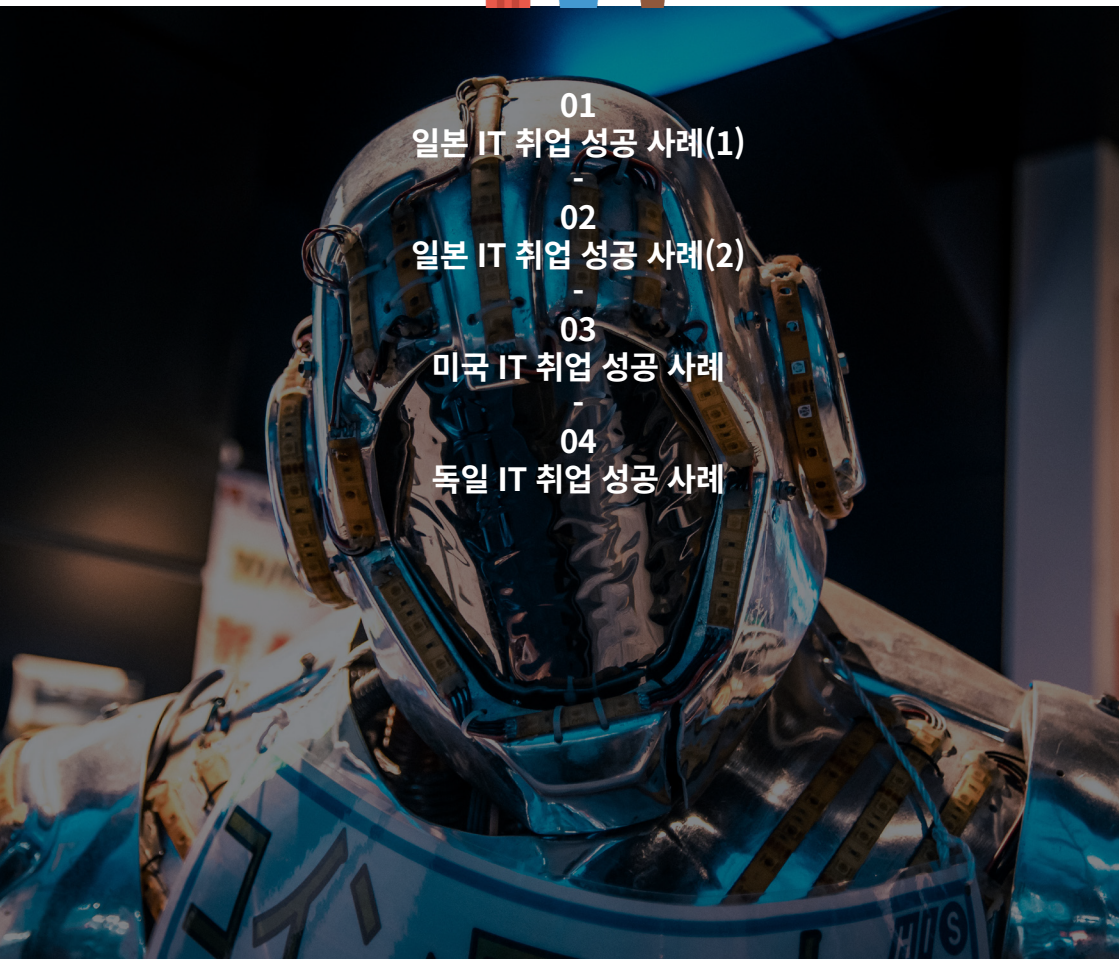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1) 취업 전에 반드시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만 해외취업 후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은 '월드잡플러스-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메뉴에서 하세요.
(3) 신청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는 취업사실확인(K-Move/EPS센터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을 받아야 하며 K-Move/EPS센터 확인은 월드잡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1차 지원금은 근무 시작 1개월 이후부터 4개월까지, 2차 지원금은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3차 지원금은 근무시작 12개월 이후부터 14개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5) 정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드잡플러스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취업경력(취업처, 재직기간 등)을 입력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PART

05

해외취업 성공 사례



01
일본 IT 취업 성공 사례(1)
-
02
일본 IT 취업 성공 사례(2)
-
03
미국 IT 취업 성공 사례
-
04
독일 IT 취업 성공 사례

성공사례

중문과 출신의 일본 제조업 엔지니어 취업기

출처: 2020 해외취업 성공스토리 공모전 수상작, 조성표

해외취업 도전 계기

저는 해외라는 도전적인 환경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해외에 나가서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대학생 때 한일교류를 많이 했기에 친구들도 많았고, 문화와 생활습관에도 익숙했던 일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다가, 결국 소프트뱅크와 DENSO라는 회사에 내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DENSO가 QR코드를 발명하는 등 기술력으로 유명해 개발자로서 성장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여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해외취업 준비 과정

일본 취업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자기분석이었습니다. 중문과 출신에 컴퓨터학과를 복수 전공했지만, 개발자가 적성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간 인생의 목표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은 채 대학 생활을 보내던 저는, 이때 제대로 자신을 분석하며 마음속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하려 태어난 걸까?', '개발자가 되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건가?', '5년 뒤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고민을 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고민해보니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직종에서 어떻게 살아 나가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착수한 것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혼자 취업을 준비했기에 정보를 찾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먼저 KOTRA 일본 취업 카페에 올라오는 구인공고를 참고하며 지원할 기업을 정리했습니다. 개발자로 활약하기 좋은 기업에만 지원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지원기업은 소프트뱅크와 라쿠텐, 그리고 DENSO로 좁혔습니다. 또한, KOTRA 카페의 취업 후기와 민슈(みん就), 외자계닷컴 등 일본 취업 정보

사이트의 정보를 보며 활용할만한 팁만 추렸습니다. 그렇게 차차 서류전형과 면접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지원할 기업이 정해지자 먼저 기업 및 업계 연구에 공을 들였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입사해서 하고 싶은 일', '10년 후 비전'과 같은 질문을 물어보는데, 사실 답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입 대졸 채용 및 회사 홈페이지에서 중장기 성장전략, 투자자 정보, 결산 설명회, 기업 이념 등을 찾아 분석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계의 동향및 기업의 성장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업계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는 닛케이 신문의 기사를 찾아 읽었습니다. 면접 때는 이런 정보로 답을 준비했더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요? 열정이 대단하네요.”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직 기업에 들어가 하고 싶은 직무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경력자 채용공고를 통해 저와 맞는 직무를 파악했습니다. 일본 회사는 '종합직'을 뽑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를 지원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력자 채용 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경력자를 위한 공고이니만큼, 해당 직무에 어떤 스킬이 요구되는지 상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스펙이 어떤 특정 직무와 잘 맞는지 판단할 수 있고, ‘해보고 싶다!’라는 직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적응 방법 및 회사생활

입사 후 약 3개월 반의 연수를 거쳐, 지금은 차세대 차량용 초음파 센서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 신경 썼던 것은 제 장점을 업무에서 살려,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선배의 한 마디였습니다.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을 찾아.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면 일도 즐거워질 거야."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였던 선배의 말은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점인 '적극성'을 살려 업무에 임했습니다. 먼저 출퇴근 시 미소를 띠고 밝은 목소리로 부서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허 번역을 자진해서 지원하거나, 모르는 게 생기면 선배와 회의하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비효율

을 찾았을 때는 생각해본 해결책을 다음날까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상사와 선배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금방 부서에 적응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제 개성을 살리며 일을 즐겁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다년간의 한일교류 경험을 통해 일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기에, 금방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무덤덤한 성격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일상생활이 아닌, 일에서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배속과 희망의 괴리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코스로 입사한 저는, 코드를 직접 짤 수 있는 부서에 배치받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배속받은 부서는 코딩할 일이 전혀 없는, 하드웨어 부서였습니다. 배속 직후에는 부서가 IT와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아, 따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직장인의 삶을 살다 보니 평일에는 일이 끝나면 지쳐서,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서 코딩을 멀리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살다 보면 코딩을 못하는 개발자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몰려 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아리에 가입해 사내 검색엔진을 만들고, 한국 친구들과는 주 3회 줌 회의를 하며 개발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깃허브라는 사이트에 거의 매일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초짜 개발자이지만, 이왕 취미로 할 거면 이직할만한 실력을 목표로 하자는 신념을 갖고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해외취업은 도전입니다. 남들보다 매일 더 노력하고 인내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해외생활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봉은 적은데, 세금은 많이 떼여 저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던 부서로 배치되어 꿈꾸던 것과는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지시, 문서정리, 보고 등 모든 것이 일본어로 진행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부모님이 매우 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이런 현실에 부딪혀, 결국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확실한 목적과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일본 취업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끈기 있게 노력하고, 도전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분명 후회 없는 행복한 해외 생활을 하며 즐겁게 일할 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께 이 수기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居酒屋
7F·8F
ビックベック
SHINJUKU
BIG DRUG
トラノコ
KONOMI YAKI
HOTEL GRACERY
IMAX
海賊とよばれた男
12.10
MARUHAN
GODZILLA ROAD
驚安の殿堂
ドン・キホーテ
新感覚ネットカフェ Booth
Elle de Castle
居楽屋
きんぐら酒場
カラオケ

성공사례

잡은 지푸라기가 내 길이었던 노스펙 지방대생

출처: 2020 청년해외진출 공모전 수상작품집, 장재영

지방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 2학기 학점 3.9, 미래에 대한 준비 하나 없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다보니 처해진 내 상황이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몇 개와 공인 어학점수라고는 대학 졸업 최소 조건을 위한 TOEIC 600점을 가까스로 넘는 점수뿐이고, 비교적 높아 보이는 학점은 지방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학기에 성공취업 준비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했다. 수업을 들으며 취업관련 경험이 많으셨던 교수님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몇 번에 걸친 상담 끝에 전공인 무역학을 과감히 포기하고, 어렸을 때 컴퓨터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던 경험을 살려 개발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지만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이 시점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워낙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좁았고, 정보도 부족했기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야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교수님께서 월드잡플러스라는 사이트와 함께 연수를 마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다. 사실 해외로의 취업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개발자의 길을 과연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타국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 하고 내심 걱정부터 들었다. 그러나 교수님의 설득과 월드잡플러스 사이트를 통한 정보들을 보고 나니, 이내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는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 이미 일본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도 많고 정보도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

조금씩 계획이 구체화되어가면서 그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오기만 한 나 자신을 스스로 다그치며, 혹독하고 외로울 그 길을 완주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졸업 시점과 맞물려 시작하는 JSL 인재개발원 센터의 해외연수과정 공고가 올라왔고,

그렇게 해외진출을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학교 졸업과 맞물려 시작되는 연수 과정이었기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부랴부랴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MOS 등의 자격증은 취득해봤지만 웹 개발자로서의 지식과 일본어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었다. 연수원 동기들은 컴퓨터를 전공했거나,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독기를 품고 연수에 임했다. 집에서 연수원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연수가 끝날 때까지 기상 악화가 있지 않는 한 항상 수업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수업 준비와 복습을 했다. 감사하게도 IT 강사님께서도 일찍 나오셔서 질문을 다 받아주시면서 나를 최대한 이용하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 시간을 최대한 이용했고 후에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이 순간은 지금뿐이다' 라는 일념으로 최대한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지식들을 동기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팀 프로젝트 때에는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팀을 만들어 진행했는데, 그 안에서의 역할 분담은 분명히 있지만 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 또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위해 그냥 내가 몇 발자국만 더 걷자는 생각으로 자료 수집과 데이터 기반 만들기, 개발 환경 세팅 등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같이 매일 매일을 독하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더뎌지는 동기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내 실력과 역량이 더욱 상승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연수원에서는 일본 취업 시 필요로 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위한 방과 후 교실도 마련해 주었다. 나는 해당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연수수업이 끝나고 시작되는 자격증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들으며 집에 돌아가서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전산 용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지식을 모두 요구했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았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었다.

일본어도 연수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히라가나도 모른 채 시작해 갈 길이 멀었지만 수준이 비슷한 동기들끼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평소에 말을 할 때에 일본어를 한, 두 마디 섞어서 말하게 되고, 일상회화, 비즈니스 회화, 면접 준비 등을 거치면서 역할별 상황극도 해보며 차츰차츰 나아갔다.

동기들과 문자를 할 때에도 서투르지만 일본어로 해보고, 전화를 할 때에도 일본어로 말하며 웃고 떠들었던 경험들도 다 어학 능력 상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연수기간의 최대 장점은 꼭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본어를 잘하는 동기들이나, 쉬는 시간 복도에서 만나게 되는 일본어 강사님들께 언제라도 모르는 것을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던 일본어가 어느새 조금씩 들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진출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옅어져 갔다. 연수원에 있는 동안 무수히 많은 회사에서 설명회를 왔다. 하지만, 내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회사는 연수원 수료 한 달 전까지도 보이지 않았다. 동기들 중에는 다가오는 수료 날짜에 대한 압박감 때문인지 원치 않는 회사일지라도 일단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면접을 보는 동기들도 많았다. 물론 나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 온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이었고, 그런 마음이 전해진 것인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딱 맞는 회사가 나타났다. 나는 그 한 회사만을 생각하며 면접을 준비했고, 일본어 면접에 크게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라는 사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감사하게도 그 첫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회사 입사 확정 후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EMS로 발송하고 비자가 발급되기만을 기다렸다. 비자 발급까지는 약 두 달 정도 소요되었는데, 동기 중에는 네 달 이상이 걸린 경우도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나 입사예정자들의 입장에서나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았다. 특히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나 일본어 어학 자격증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비자 발급 기간이 서로 상이한 것 같아서 그저 자신의 비자 발급 담당자가 잘 걸리기를 바라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았다. 비자 발급에 관한 기준 및 확인 절차가 있을 테지만 비교적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아무래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어학의 한계가 있었는지 일본에 오고 나니 편의점에서 점원분이 하는 말도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왔지만 막상 실전에 부딪치니 어학의 부족함에서 오는 압박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처음에 일본에 와서 느낀 공허함은 회기숙사의 내 방으로 비유할 수 있다. 처음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던 차가운 방처럼 내 마음도 추운 공허함으로 가득 찼었지만, 방에 책상이 생기고, 의자가 생기고, 사람들을 사귀고, 소통하며 아늑한 보금자리로 변해갈 때쯤 내 마음도 공허함에서 점점 온기로 채워지지 않았나 싶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에 있지만 한국인 위주의 회사이다 보니 첫 프로젝트는 어학 능력이 그리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기회로 생각하고 퇴근 후에도 한국에서와 다를 바 없이 일본어 공부에 몰두했다. 실제 현장의 설계서에 쓰이는 일본어들은 처음 보는 단어도 많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정형화된 문법이나 형식이 있어서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했다. 실제 일본인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추는 것을 1순위로 생각했다. 그렇게 차츰 일본 생활, 문화에 적응하며 부족한 나 자신을 위해 주말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다음에 간 프로젝트 현장은 일본의 현장이었다. 앞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도움이 컸는지 일본 현장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의 업무는 듣던 대로였다. 일본인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팀 내부의 정보 공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고, 아주 작은 수정사항이나 작업 내용일지라도 반드시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이는 내 성격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어학 능력이 부족해서 일본인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꽤 많았다. 다행히 아주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었지만 스스로 일본에 온 만큼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언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대학교 마지막 학기에서 부랴부랴 달려와 보니 벌써 일본에 온 지 1년이 넘었다.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임을 실감하고 있는데, 개발 공부가 싫어지지 않으니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다. 개발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싸움처럼 느껴지지만 이 과정이 즐겁다. 나는 현재 HTML + CSS + JavaScript + jQuery를 이용한 프런트엔드 개발과, Java + Spring Framework + PostgreSQL DB를 이용한 백엔드 개발을 하고 있고, 간단하면서 강력한 코딩을 하기 위해 매일 같이 알고리즘 문제 풀이와 코드를 더욱 알기 쉽게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Code Refactoring을 연습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해당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어서 한국에서의 개발 방식과의 차이를 배우고 이해하고 있다. 위 언어들을 중점으로 하면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엑셀 VBA나, 각종 개발 툴들을 공부하고 싶다.

또한, 일본은 코딩보다는 상위 공정인 설계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설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라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코딩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나중에는 좋은 설계서를 작성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힘을 합쳐 이끌어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성공사례

실리콘밸리 주니어 개발자의 취업기

출처: 2019 해외취업 성공 수기집, 전지은

해외취업 도전 계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Crocus AI에서 주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게 된 지 어느 새 5개월이 지났습니다. Crocus AI는 기존의 Human Intelligence의 한계가 있는 분야에 AI를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입니다. 초창기부터 합류했던 엔지니어분들은 모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시니어 레벨이고, 저를 면접 볼 당시 처음으로 주니어 개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위스콘신 매디슨 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 스타트업을 거치면서 어떠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맞을지, 한국 또는 미국이라는 지역을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고민에 답이 될 만한 곳은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고, 시니어 레벨 개발자들과 합을 맞출 수 있는, 10인에서 20인 구성원 수준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내내 너무나 춥게 느껴졌던 미국 북부지역이 아닌, 따듯한 서부지역 중 IT 스타트업이 밀집된 실리콘밸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금방 깨졌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보낸 이력서에 회신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며, 코딩 또는 알고리즘 위주의 면접에서 긴장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졸업 후 받은 OPT unemployment 기간 3개월이 2주 남은 시점, 한국행 비행기표까지 끊고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회사에 극적으로 합격하면서 이제 막 설립된 초기 스타트업에서 졸업 후 첫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에 한 발을 더 가까워지자, 실리콘밸리에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은 더 강해졌습니다.

해외취업 준비 과정

이곳 실리콘밸리에는 한국과 달리 공채 면접이 없습니다. 개인이 무작정 입사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K-Move와 같은 한국 정부의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추천하면 입사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Crocus AI)도 K-Move를 통해 주니어 개발자 채용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도 좋은 기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취업, 특히 실리콘밸리에서의 취업을 목표로 하면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고생도 했지만, 학교 교수님, 선배, 그리고 KOTRA K-Move 해외취업 SNS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덕분에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저의 취업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 초기에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먼저 찾아보고 지원 가능한 비자가 무엇인지, 어떤 순서로 어떤 비자를 지원해야 미국에서 오랜 기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USCIS 정부 홈페이지나 KOTRA의 해외취업 가이드를 잘 읽었습니다. 둘째, 이력서에 지금까지 했던 인턴십과 개인적으로 했던 toy project를 지원하려는 회사에 맞게 정리하고, 제 주위에서 취업한 학교 선배, KOTRA 이력서 컨설팅 세션 등 이력서 리뷰 기회를 찾아서 계속해서 첨삭을 받고 지속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셋째, 개발자에게 중요한 코딩 인터뷰 준비를 위해 Leetcode.com의 모의 코딩과 알고리즘 문제를 풀며 인터뷰를 연습했습니다. 그 후엔 KOTRA의 K-Move career fair와 같이 Job Fair나 주위의 친구들에게 Job Reference를 받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나만의 취업 성공 노하우

제가 취업에 앞서 우선 준비한 것은 비자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미국에서 어떤 비자를 얻어야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미국 정부 홈페이지와 KOTRA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비자 지원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제가 판단할 때 취업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원 업무와 관련된 경력을 이력서에 잘 적는 것인데, 학교 선배, KOTRA 이력서 컨설팅 파트에서 첨삭을 받아 지속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했던 것도 입사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제 직무에서는 코딩 인터뷰도 매우 중요했

습니다. 코딩, 알고리즘 문제를 수집해 공부하면서 인터뷰를 준비했고, 전문 커리어 센터와 취업박람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입사 후 적응방법 및 회사생활

입사 후 첫 몇 주 동안은 눈치껏 배우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업이어서 별도의 트레이닝이나 사수 시스템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개발팀에서 수년간 정리해온 documentation과 코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회사가 쌓아온 솔루션을 이해하고, 저에게 맡겨진 개발과제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회사 또는 스타트업에서는 조직 내 상하 관계에 의한 업무수행이 아닌, 개개인 스스로가 project manager가 되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신규 프로젝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 연동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써보지 않은 개발 언어인 JavaScript와 새로운 프레임워크 React, React Native가 필요했고, 회사에 요청하여 별도의 개발 강좌를 들으면서 동시에 실제 production 코드 개발을 하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회사의 주요 파트너사인 구글과의 프로젝트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엔지니어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과 교류하면서 인적 네트워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발자를 훈련시키고 역량을 높이는 데 지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구글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파트너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 근무일에 교육을 들으며 새로운 개발 툴을 배울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개인도 더 좋은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

타지에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생각에 막막할 수 있지만, 기회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기회를 통해 많은 분이 해외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Google
MOORE
LEFT
TURN
SIGNAL

성공사례

30대에 전공 전환 독일 IT 취업 성공기

출처: 2019 독일취업 경험담(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미상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저는 한국에서 경영대를 졸업하였고, 독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석사 후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독일 공대 대학원 오퍼를 받고, 2주일만에 정리하고 독일에 온지도 어느 새 3년차네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은 첫 번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어떻게 취업했는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현재 저는 다름슈타트에 있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회사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대, IT니까 취업된거네' 라고 말하면 그게 맞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도 IT 분야 수요가 높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은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학부 때부터 공대생이 아니기도 하고, 꽤 늦은 나이에 인생 2회차 시작하고자 독일에 와서 이룬 성과라 제게는 더욱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머신러닝 엔지니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영업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한국나이로 33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말리는 사람이 더 많을 나이였지만 독일 대학원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석사를 2년간 공부한 뒤 운 좋게도 바로 취업이 되었네요. 글을 쓰고 있는 2019년 1월 현재 3개월차입니다. 석사 때 공부와 회사에서의 소통은 주로 영어로 하고 있고, 저는 아직 독일어자격증이 없습니다. 학교 독일어 수업에서 A2가 마지막 레벨이었습니다. 부디 저의 경험이 공대 백그라운드를 지니신 분들뿐만 아니라 독일 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모든 분께(특히 30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취업 과정과 결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문과출신 공대 석사

문과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전공을 바꾼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은 순간 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 진학 당시 저는 한국나이로 33살이었네요.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 관련 학부 전공 없이 IT쪽 석사 진학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제 경우는 두 군데서 오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퍼는 오퍼고 공부는 공부지요. 대학원에서는 우선순위를 학과 공부에 두었습니다. 인간 관계나 학교 행사 같은 것들은 꼭 필요한 경우만 빼고는 최대한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았어요.
무엇보다 문과출신이고, 프로그래밍, 수학 같은 이공계 기초 소양이 무척 약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초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첫 학기에 대학원 기초수업 들을 때도 정말 꾸역꾸역 힘들게 따라갔습니다. 과정은 석사였지만 선형대수학 같은 학부 수업도 들은 건 물론이구요.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남들은 2-3시간이면 끝내는 과제를 하루 종일 하고도 모자라 새벽 네 다섯 시까지 하는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교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유튜브, 코세라, 칸아카데미와 같은 사이트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잠을 안 자가면서 한 건 아닙니다. 새벽에 공부하는 게 편해서 새벽까지 했을 뿐이지 30대에 잠 안 자면 몸 축나요. 과제는 많고 속도는 느리니 첫 일년 정도는 맘 편히 보낸 주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년이 지나고 나니 프로그래밍 실력이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네요.

지도 교수님의 도움

생각해보면 지도교수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지도교수님은 정말 중요하지요. 제 지도교수님은 이탈리아 분이셨는데 정말 너그러우면서도 학생들에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오피스에 계실 때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항상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목이 인기과목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찾는 교수님은 아니셨고, 그래서 오히려 제게 더 많이 신경써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인기과목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30분 단위로 계속 약속이 있을 정도로 바쁩니다. 학생과의 소통도 다른 교수님들이 대부분 이메일로 약간은 격식있는 방법을 좋아하시는 반면 제 지도교수님은 메신저로 소통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메신저로 제 논문과 관련된 링크를 날려주실 정도로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전 정말 저희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취업했는가 - 과정

취업도 교수님 역할이 무척 컸습니다. 졸업논문을 쓴 뒤 교수님께 회사 좀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저를 추천해주신 건 아니고, 교수님이 알고계신 회사 이름을 몇 개 던져 주시더군요. 제 논문이 데이터와 화성 관련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우주 관련 회사들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긍정적인 답은 없었고, 이 회사는 오픈된 관련 포지션이 없어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 링크드인에 포지션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공고를 읽고 있었더니 이 회사 인사담당 역시 제 프로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링크드인에서 누가 내 프로필을 보고 있으면 알림이 뜹니다) 이 때다 싶어 인사담당자에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포지션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더니 경력직을 찾고 있다며 제 경우는 해당 분야 경력이 없으니 인턴으로 지원을 해보라고 하더군요. 이력서를 보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로 면접을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에 지원했냐고 물을 때도 내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썼고, 그걸 아시는지도 교수님이 이 회사를 추천해 주셨다 라고 했더니 무척 흥미로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교수님과 연락해서 레퍼런스 체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에서는 간단한 스몰 토크와 함께 기술 면접을 봤습니다. 저를 머신 러닝 엔지니어로 뽑고자 했기에 머신러닝 관련한 제 경험을 묻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유려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지만 실무자가 기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빼놓지 않고 대답했기에 다음 면대면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 하기보다 스스로가 했던 프로젝트와 과제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구요. 그 때 어떤 문제에 어떤 기술을 썼는지, 왜 그 방향을 택했는지를 Github등에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대면 인터뷰에서는 굳이 요청하지 않아도 본인의 프로젝트 관련 시각 자료를 만들어가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는 제 타블렛에 제 논문 포스터를 담아가서 설명했고, 제 프로젝트와 접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성이 좋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구요.

취업은 적당히 어렵다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과 독일의 취업 난이도를 비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취업 안된다고 한탄하면 이런 질문을 듣는다고. "100군데 지원해봤어?" 하지만

독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30군데 지원해봤어?" (사람에 따라 50군데, 100군데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국만큼의 난이도는 아니지만 독일도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언어, 문화적 차이까지 생각하면 한국의 취업 난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관대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 합격하기까지 저도 두 달간 약 40개 회사에 지원했고, 인터뷰 요청은 두 번 받았습니다. 저는 조바심내지 않고 항상 관대하게 기다려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될까 안될까에 신경쓰면서 지원하다 보면 정말 누구나 모시고자 할 정도의 인재가 아닌 바에야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고, 거절당하다 보면 동기부여가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기계적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두 회사 지원이라는 목표를 잡고 제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여도 일단 하루 두 회사는 무조건 지원했습니다. 공고에 따라 하루에 네 개 정도까지 보낸 날도 있네요. 물론 당연하지만 Job Description에 따라 나름 CV와 커버레터를 계속 업데이트 했습니다.

한국과 거의 같은 CV 팁

CV에 대해 팁을 넣자면 한국과 거의 같습니다.

1. 질문의 여지가 있는 이력서를 쓸 것
   1) 너무 자세하게 시시콜콜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최대한 간결한 단어를 쓰고 생략할 건 생략하세요. 지원 직무와 관련없는 경력은 없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3) 인터뷰어 입장에서도 뭔가 빠졌다 싶어야 질문할 거리가 있거든요. 궁금해지기도 하구요.

2. 최대한 정직하게 쓸 것 - 저는 엔지니어 직군이지만 어설프게 할 줄 아는 거 써놨다가 물어보면 난감하더라구요.

3. 직무관련 주요 키워드 찾는 법
   1) 링크드인 등에서 해당 직무와 같은 사람 찾아보기, Job Description 상세히 뜯어보기, 회사 홈페이지, Xing, Stepstone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같은 JD 찾아보기(사이트마다 JD 를 약간 다르게 내기도 합니다. 생각지 못한 힌트가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

2) 독일에서도 CV 내 키워드로 필터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3) 특히 큰 회사들이 그렇구요. 그래서 직무관련 주요 키워드들은 어떻게든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또한 IT 직군은 프로젝트가 무척 중요한데 본인의 소스 코드와 프로젝트 내용들을 Github 등에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해당 직군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글을 쓰고나니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유학생활 중간에 독일로 건너왔고, 가족이 있어서 인지 몰라도, 회사에서 인턴쉽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덕분에 블라우카르테도 바로 받을 수 있었네요. 가끔 커뮤니티를 보면 문과 출신인데 IT쪽으로 독일에서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대부분 부정적인 답글들이 많이 달리던데, 커리어 전환을 꿈꾸는 분들게 긍정적인 사례로 이 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글 곳곳에 있는 짤막한 팁들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PART

06

해외취업 Q&A

IT 직종 취업 시 관련 전공의 학위가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IT 직종에서는 컴퓨터공학을 비롯한 관련 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원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학력 자체보다는 실력이 중요하지만 채용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력을 검증할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서류전형에서 학위자 중 실력을 테스트할만한 지원자를 걸러내게 된다. 따라서 신입직인 경우 관련 전공의 학위가 없다면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시니어나 리드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주어진 업무만 잘 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프로젝트나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러한 역량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기 때문에 IT 분야를 평생 진로로 선택하였다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전공자의 경우 학위 기간 중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해당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해 두는 것이 좋으며, 최근에는 구글의 Career Certificates, 마이크로소프트의 Global Skills Initiative와 같은 IT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도 있다.

IT 직종으로 해외취업 시 외국어 능력은 얼마나 갖추어야 하나요?

IT 직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팀단위의 협업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 IT 분야는 주로 영어가 기본적인 의사소통 언어이자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 변화 트랜드가 영어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채용 공고 상에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정도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한다. 특히 시니어나 리드급이 되면 본인의 업무뿐만 아니라 고객이나 팀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높을수록 좋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어 실력이 필수 요건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일본어 공부도 해두어야 한다.

? IT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 직무와 직종에 따라 필요 역량은 다양할 것이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나 개발자 직군의 경우에는 다른 직군에 비해 분석적인 사고와 꼼꼼함이 더 요구되고, 웹디자이너는 기본적으로 미적 감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IT 직종 전반에 걸쳐 공통되는 역량도 있는데, 우선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은 가장 기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협업 체제 내에서 자신이 맡은 부문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 동기부여 및 꾸준한 자기계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IT의 경우 정해진 일정 내에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노하우도 갖출 필요가 있다.

? IT 부문에서 해외취업을 하려면 경력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IT 직종 대부분이 1년~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IT 부문의 해외취업을 희망한다면 동아리, 프로젝트, 인턴십 등 어떤 경로를 막론하고 최대한 경험을 쌓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엔트리레벨의 경우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니어급은 1년~5년, 시니어급은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 개발자로 해외취업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을 배우면 좋을까요?

! IT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한 것이 큰 경쟁력이 된다. 특히 프로그래머나 개발자의 경우에는 필수적인데, 프로그래밍 언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티오베(TIOBE)에서 매달 제시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별 인기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참고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C 언어군(C, C#, C++)과 Java 및 JavaScript 등이 강세였는데, 최근에는 Python, R, SQL, Perl, Go 등의 순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경우 전이 가능한 스킬로서, 특정 언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 다른 언어도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 비전공자인데 국내 IT 자격증으로 해외취업이 가능한가요?

!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학력과 경력을 중심으로 지원 자격이 제시되고 자격증을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격증을 요구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자격증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증이나 자격증만 인정하기 때문에 국내 IT 자격증은 효용이 떨어진다. 물론 국내 IT 자격증을 공부하면 그만큼 실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고, 국내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면 안된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한일 IT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정보처리기사 및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컴퓨터 분야 비전공자라도 일본 취업비자 발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이므로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득하는 것이 좋다.

? 경력직으로 해외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가요?

! 경력자라면 IT 직종의 취업이 초년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채용 공고를 보면 아마도 10건 중 1건은 적어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IT 부문은 이직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DODA, 리쿠나비 NEXT, 마이나비텐쇼쿠 등 경력직만을 위한 채용포털도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경력직 이직 시에는 본인의 경력이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인정되기 때문에 채용 공고의 내용을 잘 살펴서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경력이 많을수록 좋다고 여기기 쉬운데, 이력서에 해당 직무와 관련 없는 경험을 나열하는 것은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IT 직종의 임금과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IT 부문에 해당하는 직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임금 수준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국내 취업에 비해 해외취업 시 보다 높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다. 많은 채용포털에서 직종별 평균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해외취업 시 받게 되는 임금 수준은 직종별로 예시되는 평균 임금보다는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 부문과 마찬가지로 IT 부문도 직급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초년생의 경우 임금 밴드의 가장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예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IT 종사자에 대해 야근과 과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해

외취업 시에는 근무 여건이 나쁘지 않다. stackoverflow의 서베이 자료에 따른 응답자의 50% 이상이 주당 40시간~44시간 정도의 근무를 한다고 응답했고, 40시간 미만 근무자도 2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 IT 부문 해외취업 시 비자발급에 어려움은 없나요?

! 한국인 구직자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마 취업비자 문제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국민의 취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 취업비자 허가가 까다로운 편이지만, IT 부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군이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가장 쉬운 부문이다. 최근에는 주요국 모두 IT 인재 영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미국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금기시 되는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어린아이를 함부로 예뻐하거나 만지면 안되고, 공공장소 등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피해야 하며, 팁 문화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의료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꼭 챙겨야 한다.

?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본의 경우 사회적 분위기나 전반적인 교육방침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합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는 행동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행동할 때 이 점에 매우 신경을 쓰는 편이다. 평소 자신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처음에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 개인적인 질문은 좀 더 친해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일본 사회는 이른바 매뉴얼 사회로 모든 것의 속도가 한국보다 느리며 신중하고 철저한 경향이 있다. 언뜻 보기에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가 적은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 일본의 경우 주거비와 교통비가 비싼 편이어서 이들에 대한 회사의 지원 정도에 따라 생활비 차이가 클 수 있다. 일본기업의 경우 교통비는 대부분 지원이 되고, 최근 구인난이 심해지면서 기숙사를 제공하거나 월세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주거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주거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일반 생활물가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씀씀이에 따라서 개인마다 생활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일본의 IT 부문 임금수준을 감안하면 일본기업에 취업 시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수준입니다.

?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독일에서 생활해 가면서 현지 문화에 맞게 다양한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가장 중요한 3가지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에서는 '나치'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친분이 쌓여 자연스럽게 역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도 '히틀러' 또는 '유태인 학살(Holocaust)' 관련 농담이나 찬사는 금물이다. 둘째, 독일인들은 철저히 공적인 생활과 사적인 생활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 하는 질문은 금물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독일인들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휴가 중 또는 퇴근 후 전화를 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독일에서의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 독일의 경우 도시마다 물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 성향에 대한 개인적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힘들다.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트르와 같은 대도시는 우리나라 서울 강남과 유사한 물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특히, IT 부문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수준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비교적 높은 과세 비율과 기타 사회보장 비용으로 인해 세전 소득에 비해 실수령액은 다소 낮은 편(세전 소득에서 약 30-45% 공제)이기 때문에 독일 대도시의 비싼 임차료 등을 고려할 때 넉넉하지 않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프랑크푸르트의 평균적인 임차료가 1m²당 14.52유로인 점을 고려할 때 33.3m²(약 10평) 정

도의 작은 방을 임차하더라도 월 임차료로 최소 483유로가 지출되며 교통비 및 식대 등을 고려한 기초생활비로 600유로를 적용하더라도 관련된 기초 생활비로 약 1,100유로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취업 센터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취업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스터디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국해외취업센터안내

서울 해외취업센터

E-mail kmove@hrdkorea.or.kr
전화 02) 6964-7072(~707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402호

부산 해외취업센터

E-mail busan@hrdkorea.or.kr
전화 051) 715-7017(~7020)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시청역 롯데 골드로즈빌딩610호

군산 해외취업지원센터

E-mail gunsankmove@hrdkorea.or.kr
전화 063) 443-1558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내항1길 4,
군산상공회의소/군산청년뜰 4층

통영 해외취업지원센터

E-mail tykmove@hrdkorea.or.kr
전화 055) 649-6544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충렬로 31,
통영청년세움 2층

일자리 찾아 세계로

해외취업 **완전정복 IT직종**

도서명	해외취업 완전정복 IT직종
발행인	어수봉
발행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2021년 5월 01일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문의처	1577-9997
홈페이지	www.worldjob.or.kr
지은이	박진모, 윤동열
디자인	초아출판사
ISBN	979-11-5799-390-1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

본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취업준비의 시작과 끝은 월드잡플러스

www.worldjob.or.kr

비매품/무료

03300

9 791157 993901

ISBN 979-11-5799-390-1